

제3장 지명유래

제1절 서곶(西串)

1. 개관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날 서곶(西串)과 검단(黔丹)이라 불리던 지역이다. 1995년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역은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해 서곶면이라 하였다. 1871년(정조 13) 간행한 《호구총수》 기록을 보면 모월곶면은 354가구에 1,196명, 석곶면은 305가구, 1,015명의 인구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142년 전 지금 서곶지역 인구는 2,211명이었다.

서곶 지명은 군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서곶은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아출판사 《국어사전》에 의하면 우리말의 ‘곶’ 또는 ‘고지’는 바다나 호수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장산곶이나 장기곶처럼 지명 뒤에 붙어 바다로 뻗어나간 곶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천이라는 고유지명에 ‘곶’ 자를 붙이면 인천의 한 해안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지칭되는 것인데, 서곶은 그렇지 않다. 한자로 표기할 때는 땅이름을 나타내는 ‘곶(串)’ 자를 차용하는 것이 위의 장산곶이나 장기곶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서곶지역은 오늘 인천 중심가에서 보면 서쪽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바처럼 이 지역이 부평군에 속해 있던 시기에 부평 중심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이다.

서곶은 지형이 바다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놓인 형상이다. 계양산(桂陽山)과 철마산(鐵馬山)을 품고 있는 원적산맥(元積山脈)이 바다를 향해 퍼져 내리며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서곶의 북쪽지역이 황어현(黃魚縣)에 속했으며, 남쪽지역은 부평현(富平縣)에 속했다. 조선시대에는 남쪽과 북쪽이 모두 부평부(富平府)에 속했으며, 오늘날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을 포함하는 남쪽을 석곶면(石串面), 오늘날의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을 포함하는 북쪽을

모월곶면(毛月串面)이라 하였다. 이 두 면의 경계는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라고도 한다)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모월곶이라는 지명은 이곳의 지형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는데 작은 메기 터럭(毛)같이 뻗어 내려서 '터럭이 많은 반달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전설을 보면 물이 많은 고장이라 물곶이(水串)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석곶이라는 지명은 속칭 돌곶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곳의 지형이 꼬챙이같이 길게 뻗어있으며 돌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 돌곶이가 어디인가는 한 장소를 잡아 지칭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보아 가좌동, 원창동, 가정동의 해안이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월곶면은 면소재지가 현재의 검암동의 윗마을(上洞)에 있었음이 확실하나 석곶면의 소재지가 어디였던가는 알 수가 없다. 이 두 면은 일제가 1914년 3월 1일, 부천군을 만들어 부평군 전체와 인천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부천군 소속이 되었다. 그리고 동년 4월 1일 두 면이 합병되어 서곶면(西串面)으로 명명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부천이라는 지명은 인천 일부와 부평을 통합해 만든 지역이라 조합식으로 만든 지명이었다. 이때, 부평군 군내면 부평리(현재의 계산동)에 있던 부평군 청사를 폐지하고 옛 인천읍의 소재지(현재의 관교동)에 부천군청을 개설하였다. 서곶을 통치하던 행정력의 중심이 부평을 떠나 원인천으로 가게 된 것이었다.

서곶은 1940년 4월 1일, 인천부(仁川府)에 편입됨으로써 부천이란 지명과도 멀어졌다. 인천부는 이 지역이 인천의 중심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행정편의를 위해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 서곶출장소는 1968년 인천이 구제(區制)를 실시하면서 북구에 편입되었다. 1988년에 전체 서곶 지역이 서구로 독립되었으나, 서곶이라는 유서 깊은 지명은 1968년 구제 실시와 함께 내무행정의 지명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서곶초등학교와 서곶중학교의 학교이름 속에, 그리고 민간의 고유명사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서곶면의 청사는 모월곶면의 자리를 이어받아 연희동의 옛 연희진 자리에 있었다. 이곳을 서곶출장소가 다시 계승했으며, 1970년대에 마을을 관통하는 48번 국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서구청이 이를 계승하였다가 서구보건소로 물려주고 현재의 위치로 신축해 나갔다.

서곶은 길게 해안을 끼고 있는 터라 연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청라도(靑羅島 파렴), 사도(蛇島, 뱀섬), 일도(一島), 장도(獐島 노렴), 곰의바위, 쟁끼섬, 까투렴, 울도(栗島, 밤섬) 소염도(小鹽島), 세어도(細於島), 장금도, 목섬, 호도(虎島, 범섬) 등이 그것이다. 서곶의 앞바다는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들었다. 섬들은 밀물 때에는 바다에 잠겨 푸른 수평선 끝에 보이기도 하고, 썰물 때에는 망망한 갯벌의 끝에 얽전히 앉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와 맛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에 앞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갯벌 매립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1차로 원창동과 석남동 앞바다가 매립되어 울도와 소염도가 사라졌으며, 2차로 검단지역 앞바다와 백석동, 검암동, 연희동 앞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

역이 청라매립지에 포함되면서 세어도를 제외한 청라도, 일도, 장도 등 거의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매립사업으로 인해 서곶의 면적은 원래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섬과 산하, 고개의 지명 유래

(1) 섬

① 설날

가. 난지도(蘭芝島)

난지도는 경서동의 서단(西端)인 금산의 정북쪽 300m에 놓인 큰 섬이었다. 물에서 가까워 경서동의 한 마을로 여겨져 왔다. 형체는 몸을 크게 편 해파리 같은 모습이었다. 금산과의 사이에는 큰 갯골이 하나 있어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건너가지 못했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에 난지도(蘭芝島)라는 지명이 보인다.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난지염'의 음운변화이다. 사멸된 우리말에 '염'이라는 것은 섬과 동의어였다.

난점에는 옛날에 세곡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흥성한 때가 있었으나 그 뒤에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50~60년 전에는 30여 가구가 어업으로 삶을 영위하였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

난지도는 물과 워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지화되었다. 현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난지염의 절반을 차지하고 놓여 있다.

나. 사도(蛇島)

경서동의 서단인 금산에서 정북쪽 700m, 연희동 용의머리 반도의 서단에서 북서쪽 800m에 자리잡고 있던 섬이었다. 뱀이 유난히 많아 그런 이름이 붙었고 말뜻 그대로 '뱀섬'이라고도 불렀다. 40~50년 전 그곳에서 백사(白蛇)가 여러 마리 잡혀, 땅꾼들이 드나들었다.

서곶의 대부분의 섬이 그랬듯이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나 경작지도 적고 밀물 때 물살이 빨라 배를 대기 어려웠다. 그래서 거의 민가가 없이 놓여 있다가 매립지로 들어갔다.

다. 거참도(巨憺島)

경서동의 서단 금산에서 서쪽 4km,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맨 끝이었다. 섬의 바로 등 뒤(서쪽)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이 있었다.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라. 장도(獐島, 노렴)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남서 3km, 연희동 용의 머리 서단에서 4km 떨어진 섬으로 서곶사람들은 '노렴'이라고 불렀다. 이 섬에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염'이란 지명이 붙었다가 '노렴'으로 축약이 되었고, 한자로 뜻을 살려 장도로 표기했던 곳이다. 꽤 먼 섬이었지만 거참도나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

갈 수 있었다. 경서동에서 가려면 갯골이 없었으며, 연희동에서는 3개를 건너야 했다. 지금은 매립지에 포함되어 육지가 되었다.

마. 자치도(雌雄島, 까투림)

까투리처럼 생겨 그런 이름이 붙었다. 원창동의 갯말 서쪽 갯벌에 있던 섬이다.

바. 청라도(靑羅島)

청라도는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반도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푸른 Ningul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서곶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렘'이라고도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 서곶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컸다.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이를 수 있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을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 했다. 김포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되어 버렸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과 이 섬 사이에는 자치도, 소도, 소문점도, 대문점도 등 작은 섬들이 놓여 있었다.

사. 일도(一島)

청라도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던 섬이었다. 위의 호도처럼 육지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매립되어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복합 화력발전소가 앉아 있다. 그리고 위의 장도와 청라도와 더불어 방조제로 연결되어 서곶의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

아. 울도(栗島)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서남서 2km에 있던 섬이다. 머리서 보면 밤알처럼 보여 밤섬이라고도 불렀다. 그 사이에 갯골이 하나 있었으며 해안에서 썰물 때 갯벌을 걸어 섬까지 갈 수 있었다.

울도는 매립되어 1974년 인천화력발전소가 세워졌고 경인에너지의 정유시설과 발전시설이 들어앉았다. 경인에너지는 지금 SK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소염도(小鹽島)

가좌동 해안에서 1.5km 떨어져 있던 섬이다. 어린아이 팔뚝만한 지네가 살고 있어, 이 섬에 나물 캐러 건너간 여인이 물려 죽은 일이 있다.

② 지금도 살아 있는 섬들

가. 세어도(細於島)

세어도는 물에서 먼 섬으로 매립지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섬으로 남아 있다.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쪽 6km 떨어져 있으며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 건너편에 있다. 그러므로 썰물 때

에도 걸어서는 이 섬에는 갈 수 없다.

가늘게 늘어진 섬이라 세어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세루, 또는 서천도(西遷島)라는 별칭도 있다. 세루는 '서쪽에 멀리 머물다'의 뜻으로 '서유(西留)'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세루로 음운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천은 서쪽 멀리 귀양 가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 호도(虎島)

장도에서 3km 서쪽,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은 갯골 가운데 앉아있다. '범염'이라고도 했으며, 생긴 모습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으니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바로 이 앞으로 개설되어 있어 쉽게 바라볼 수 있다.

(2) 산

가. 계양산(桂楊山)

해발 표고가 395m로 인천에서 제일 높다. 수주악(樹州岳), 안남산(安南山), 아남산(阿南山), 노적용(露積峰), 환여금(環如金), 용장자산(鏞獐子山)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망해지(望海誌)》에는 산정에 올라가 보면 삼면이 모두 물이라고 하였다. 남쪽 부평평야는 바닷물과 한강물이 혼합되어 드나들고 서쪽은 서해가 있고 동쪽은 한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로부터 문장가들이 말한 부평 8경이 있다. 8가지 모두 서곶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계양산을 소재로 삼고 있다.

1. 계양고종(桂陽孤鐘): 계양산 중심성 공해루에 걸린 종의 고적한 모습
2. 경명낙조(景明落照): 계양산 서쪽 경명현 너머로 지는 해
3. 난포영약(蘭浦靈藥): 난지도에서 나는 영약 난지초
4. 계산현폭(桂山懸瀑): 계양산 서쪽 암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5. 미도낙조(尾島落照): 서해 꼬리섬(필자주. 부평 매립지에 묻힌 호도(虎島)) 옆으로 떨어지는 해
6. 응봉조휘(鷹峯朝暉): 계양산 매바위에 뜨는 아침 해
7. 탁옥성문(琢玉成文): 탁옥재에서 수도하여 성공한 문장
8. 천마황서(天馬皇瑞): 천마산 천마 발자국의 상서스러움

계양산은 양질의 부싯돌이 생산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임진왜란에서 참패한 조선 조정이 화승총을 만들고 화약과 함께 신속히 발화하여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을 연구하게 되었다. 무관 정두원(鄭斗源)은 부하 정효길(鄭孝吉), 박무길(朴武吉)과 더불어 계양산 돌을 원료로 군사용 부싯돌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고 전한다.

계양산에는 3~4부 능선에 회양목이 지천으로 많았다. 관상용으로 쓰기 위해 마구 캐 나갔다. 심지어

는 서곶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어디로 보내는 것인 줄도 모르고 캐내 가마니에 담았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회양목 군락은 그 뒤 주택 건축경기가 일어나면서 마구 캐서 멸종되어 버렸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계양산에는 12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 만일사가 제일 컸다. 고려 때 지어졌으며 문장가들의 시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에 알려진 명찰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터라 도랑에 서면 서해를 굽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절이 헐린 이유를 설명하는 전설이 있다.

정부의 세곡을 실어 나르던 뱃사람들이 일부를 빼돌리고는 ‘계양산의 만일사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난파가 되어 세곡을 잃어버린다.’고 관청에 진정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절을 서해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곶 앞바다에는 유명한 강화수로의 손돌목 같은 소용돌이 뱃길이 있었다는 전설은 없다. 혹시 그런 위험한 곳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다. 서곶의 앞바다는 모두 매립지에 포함되어 물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나. 철마산(鐵馬山)

표고 266m의 산으로 북쪽이 심곡동에 닿아 있다. 동쪽은 효성동(曉星洞)이고 서쪽은 가정동(佳亭洞)이며, 남쪽은 원적산(元積山)으로 이어진다. 심곡동쪽은 산세가 완만하고 적당한 높이의 구릉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마치 심곡동이 품에 안기듯이 앉아 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은 천마산(天馬山)이었다. 산중턱에 하늘을 향해 내달리다가 도약하는 말발자국 형상이 있어 마제봉(馬蹄峯)으로도 불리는데다, 심곡동 동쪽 골짜기에서 아기장수가 태어나고 천마가 날았다는 설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이름이 바뀐 것은 지극히 측량기사의 무심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전한다. 1915년을 전후하여 일제가 한반도 전체 토지를 정밀 측량하였고, 그때 서곶지역을 측량한 기사가 주민들에게서 ‘천마산’이라고 듣고 ‘철마산’이라고 지도에 기록해버렸다. 《대동여지도》 등 그 이전의 고지도는 분명히 천마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더구나 그때 만든 지도는 오늘의 부평구 산곡동과 청천동, 서구의 가좌동과 석남동에 걸쳐 있는 원적산(元積山), 부평구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에 걸쳐 있는 금마산(錦馬山)도 철마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인천에는 3개의 철마산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도 있다.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고는 지도상에 있는 그대로 ‘철마산관통도로’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것이다.

다. 원적산(元積山)

해발 표고가 165m에 이르는 작은 산이지만 가파른 편이다. 지금 서구와 부평구를 경계 짓는 산으로서, 옛날부터 남으로는 장고개, 북으로는 안아지고개를 안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애당초 이름은 ‘원적(怨積)’이었다고 한다. 조선중기에 경인운하를 팔 적에 원통현의 바위 때문에 실패하고, 안아지고개는 고개가 90개나 되어 역시 실패의 원인이 된 터라 원(怨)이 쌓여서 원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산은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 원적산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철마산이라는 뜻밖의 이름이 붙어버렸다. 위의 철마산에서 설명한 것처럼 1915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의 토지측량에 참가한 일본인 측량기사가, 천마산을 철마산으로 잘못 기록하고, 이 산이 천마산의 지맥에 닿아 있어 이 산마저 철마산으로 지도에 기록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결과로 생긴 지명오류 중 가장 큰 것이 오늘날의 ‘철마산관통도로’이다. 가좌주공아파트 앞에서 시작해 고개를 넘어가서 명신여자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다. 1969년에 개통하여 1972년 10월 2일에 준공된 이 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과 부평간의 거리를 16km에서 5km로 줄였다. 시간도 1/3로 단축되었다.

라. 축곶산(紐串山)

해발 표고가 160m에 달한다. 가정동 봉화재 마을 앞에 있으며 싸리나무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가정동과 십곡동에 사는 원로들은 ‘싸리곶’라는 우리말 지명도 사용한다.

계양산 지맥이 서쪽으로 뻗어와 철마산을 만들고 더 나아가 승학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산까지 나아가 뚝 끊어진다. 한자 표기에 곶(串)자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곳 또한 바다까지 돌출했던 것 같다. 이 산 앞에 펼쳐진 들판을 ‘봉화재들’이라 부르는데, 형태로 보아 방죽을 막아 만든 간척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뚝 끊어지듯이 솟은 이 산이 육지의 끝이었다는 것이다.

이 산에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 봉수란 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방법이었다. 밤에는 횃불이 잘 보이지만 낮에는 안보이므로 연기로써 신호하였다. 《세종대왕실록》 제148권에는 ‘경기 부평도호부의 축곶산 봉수는 부평 서쪽 10~15리에 있는 봉수로 남쪽으로 25리 떨어진 인천 성산(成山, 문학산) 봉수대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 25리 지점에 있는 김포 백석산 봉수로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이 산의 봉수는 1423년(세종 5)에 세워졌다. 조선말기까지는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병인양요 후 이양선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서울 남산의 봉수를 중심으로 삼아 5개의 축이 작동되었다. 그것을 거준(炬準)이라 하였다. 축곶산 봉수는 제5거준에 속했다. 즉 서울남산 제5봉에서부터 양천 개화산-김포 북성산-통진 남산-강화 송악산-하음 성산-교동 화개산-강산-진강산-대모성산-통진 수안성산-백석산-축곶산에 이르는 체계였다.

마. 금산(金山)

경서동의 바다 쪽에 박힌 산으로 ‘범머리산’ 또는 한자음으로 호두산(虎頭山) 또는 금산이라 불렀다. 금산은 여기서 금이 많이 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고, 범머리산은 형용이 호랑이 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에는 병인양요 후 이양선의 출몰을 관측하는 망루와 봉수대가 있었다.

이 산 동록(東麓)에는 조선 세종대에 대제학을 지낸 유사눌(柳思訥)의 묘(인천 지방문화재)가 있다. 그는 이 마을 태생으로 소년기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 슬하에서 자라다가 계양산 서록에 있던 만일사(萬日寺)에서 공부해 대과에 올랐다.

(3) 하천

가. 빈정천(濱汀川)

계양산 서록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서곳의 하천으로서는 가장 크다. 상류에서 공촌동을 지나고, 연희동, 공촌동, 경서동의 경계가 있는 과기평마을 서곳로의 빈정교 밑을 지나 드넓은 '닭우리' 들판을 가르며 바다까지 흘러갔으나, 지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닭우리 별판에 건설되어 빈정천의 형질도 변경되었다.

발원하자마자 공촌동 앞을 지나므로 '공촌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빈정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립지리원의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빈정천이다. 《부평읍지》에는 빈장천(濱長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의 '빈(濱)'이 '물가'를 뜻하니, 길게 세 동리를 거치고 물가를 이루며 길게 흐른다는 뜻으로 기록자의 자의에 따라 표기한 듯하다.

바다에까지 이른 이 하천은 연희동 용의머리 마을 북쪽에서 갯골이 되어서 드넓은 갯벌을 구불구불 가르며 서쪽으로 뻗어, 장금도와 소문점도 사이를 거쳐 썰물 때도 조수가 머무는 큰 갯골에 합류된다. 합류지점은 울도의 남서쪽이었다. 이 갯골은 지난날 어선이 쉽게 정박하는, 서구의 가장 큰 뱃길이었다. 40~50년 전에는 선착장이 있었다. 닭우리 들판도 바다에 방파제를 막기 전에는 갯벌이었을 것이므로 고대에는 밀물이 과기평마을까지 올라왔고 선착장도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매립지에 포함되었으므로 지금 갯골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나. 심곡천(深谷川)

철마산 주봉과 탁옥봉(琢玉峯)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한다. 심곡동과 연희동의 비옥한 샘내[泉川] 들판을 가르고 흐른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이 하천의 옛이름이 샘내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샘내'라는 지명은 상류에서는 수량이 풍부하던 서곳로의 심곡교(深谷橋)에 이르러 급격히 수량이 줄어들며 땅속으로 찾아들고, 하류에 이르러서는 독 바깥에서 샘이 되어 분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천을 보호하는 독의 폭이 좁아 폭우 때는 자주 범람하여 주변 무논을 자갈밭으로 만들었으며, 가뭄 때는 하천이 말라버려 무논에 물을 댈 수가 없었다. 대신 독 밑에 저절로 형성된 3개의 웅덩이의 물은 사시사철 풍부하여 샘내 들판을 충분히 적시었다. 1970년대에 한강 수리조합 관개수도가 이곳까지 유도되었으므로 웅덩이들의 그런 기능은 불필요해졌다.

심곡천의 상류는 심곡동을 거치지만 하류에서는 연희동 경계를 이루며 흐른다. 샘내 별판 아래 바닷물을 막은 독을 샘내방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복개되었다.

(4) 고개

가. 경명현(景明峴)

징맹이고개라는 우리말 지명으로 더 알려진 이 고개는 서곳에서 계양산 산록을 거쳐 부평지구로 넘어

가는 길에 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개성과 인천, 안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으며 길이가 8km에 달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부평조에는 ‘경명원서십리석곶로(景明院西十里石串路)’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도 나온다.

이 곳에는 고려 때 국영응방(國營鷹房)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 때에는 매사냥이 성행하였다. 국영응방이 서울인 개경에 있었다. 그런데 사육하는 매가 민가의 닭이나 오리를 공격하여 피해가 커서 원성이 커졌다. 응방 책임자였던 이탁(李擢)과 그의 부하 박향(朴鄉), 윤수(尹秀)는 왕명에 따라 장소를 물색하던 중 부평 계양산의 경명현을 지목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국영응방이 생겼다.

경명현에는 중심성이라는 성이 있었다.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는 ‘부평과 서곶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경명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쌓여진 성벽으로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직후 강화수로와 인천만의 국방강화책으로 계획하여, 1870년(고종 7) 10월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方) 등이 축성했다. 축성의 유래는 중심성 사적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성은 전부 무너지고 문루·공해루 초석만이 원위치에 남아 있다. 중심성 사적비는 6·25전쟁 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 진열하던 중 전재(戰災)로 소실되면서 없어졌다.’고 쓰고 있다. 공해루에는 부평팔경도를 그려 걸었다고 전한다.

나. 안아지고개

안아지고개 또는 아흔낮은고개(九十峴)라고도 한다. 가정동에서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가좌동의 철마산 관통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인천 동구 방향에서 부평지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물론 공촌동의 계양산 관통도로(경명로)가 뚫리기 전 서곶에서 자동차를 타고 부평지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천교가 개설되기 전, 서곶사람들은 인천 다운타운에 가려면 옛 서곶로를 타고 가좌동에서 십정동을 거쳐 주원고개와 주안을 경유해 갔다. 그곳의 버스편이 매우 드물었으므로 일부는 이 안아지고개를 넘어 산곡동까지 가서 인천행 버스로 갈아탔다. 가정동에서 서운동까지의 길을 안아지길이라고 부른다.

안하지 또는 안아지라는 지명은 조선 태조가 새도읍지를 찾으려 할 때, 이 고개 너머 피네미골짜기가 아흔아홉번 째 골짜기가 되어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전한다.

다. 승학현(昇鶴峴)

가정동에서 심곡동으로 넘어오는 높고 긴 고갯길로 싱아고개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멀지 않은 연희동 용의머리 앞바다가 수백 년 전부터 두루미 도래지였으니 이 고개에서도 두루미가 날아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붙여진 것이 승학현이고, 싱아고개는 싱아풀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미로 보아 둘 다 타당하나 수십 년을 서곶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 싱아고개라고 부른다.

이 고개는 지난날 남쪽의 석곶면과 북쪽의 모월곶면을 가르는 경계였다. 이 고개 남쪽 사람들은 석남초등학교를 나오고 북쪽 사람들은 서곶초등학교를 나온 터라 유대감도 고개를 중심으로 분리된다.

구불구불 여러 개의 굽이를 가졌던 높은 고개였으나 새서곶로가 뚫리면서 통행도 뜸해졌다.

2) 마을의 지명유래

(1) 가좌동(佳佐洞)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里), 그리고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그리고 썰물 때마다 길이 열리는 앞바다에 소염도(素鹽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이 지명들은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가재리(佳裁里)와 감중절리로 합해졌다.

1871년(정조 13) 면단위 호구, 인구수와 법정리를 기록한 《호구총수》에는 지금과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가좌동(加佐洞)으로 실려 있다. 아름다울 ‘가(佳)’ 자인가, 더할 ‘가(加)’ 인가, 가좌리였나 가재리였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말 지명 ‘가재울’의 음차기록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지명은 천간정(淺間町)이었다.

가재리는 옛날에 ‘가재울’ 또는 ‘가재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이곳에 맑은 시내(佳佐川)가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시내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렸다. 이 건지에서도 큰 가재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가재울은 크게 보면 가좌동 전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 보면 건지골마을을 지칭한다.

건지골은 가좌동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이 된다. 달성서씨(達城徐氏)가 뿌리내리고 살아 왔다. 윗말은 박씨가 많이 살아 ‘박촌말’이라고도 했는데 가좌동 본마을의 위쪽이다. 지금 주공아파트 1단지 지역이다. 아랫말은 가좌동의 본마을이다. 윗말의 남쪽 아래 있으며 현재 주공아파트 2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감중절리는 이곳에 감중사(甘中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은 빈대가 많아 승려와 신도들이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취락이 큰 편이어서 큰감중절과 작은감중절로 나누어 불렀다. 큰감중절은 아랫감중절로도 불리며 지금 가좌1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작은감중절은 윗감중절로도 불렀는데 현재 가좌3동사무소 근방이 된다.

보도진(步道津)마을은 나루터를 끼고 생성된 취락이었다.

천간정은 구한말에 한반도를 침탈할 때 자주 이용된 군함 아사마마루(淺間丸)를 기념하여 그렇게 지었다.

보도진 나루는 동구 송림동과의 사이 300m의 해협에 놓인 나루였다. 흔히 ‘보두지’라고 불렀는데 한 자 뜻 그대로 썰물 때는 배를 타지 않고 징검다리도 건너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인천교의 아래쪽 1km 부근이 이 나루터 자리였다. 윗나루와 아랫나루 두 곳이 있었으며 윗나루를 수도나루, 아랫나루를 그냥 보두지라고 불렀다. 수도나루란 인천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윗나루는 징검다리 통행이 가능해 배 샅이 쏘고, 하류의 아랫나루는 거의 물에 잠겨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 나루는 처음에는 개인이 경영하다가 인천부에서 관장하였고 부천군 서곶면에서 관장하기도 하였다. 1961년 윗나루 자리에 인천교가 준공되면서 없어졌다.

40년 전, 인천 중심가에서 서곶으로 가려면 이 나루를 건너 보도진 구릉을 타고 공동묘지 서쪽 옆길을 거쳐 능안마을로 들어가거나, 감중절마을로 나가 국방도로를 탔다. 국방도로를 타고 북진하면 감중절

과 가재울을 거치게 되고, 능안과 원적산 사이를 지나서 건짓골을 거쳐 왼쪽으로 번작리, 오른쪽으로 박가외말을 스치면서 옷우물까지 나아갔다. 그대로 직진하면 가정동이 나왔다.

원적산은 해발 표고가 165m에 이르는 작은 산이다. 지금 서구와 부평구를 경계 짓는 산으로서, 옛날부터 남으로는 장고개, 북으로는 안아지고개를 안고 있다. 원적산을 올라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을 원적산고개라고 불렀다. 이 고개는 오늘날 철마산 관통도로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곳의 철마산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해망산(海望山)은 멀리 서해와 팔미도까지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에 감중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가는 고개를 장고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고개 앞의 마을을 장끝마을이라 부른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구루지고개는 가좌동에서 산곡동 화랑농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국방도로는 일제강점기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군사연락을 위해 만들었다. 가좌동에서 가정동까지 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직선으로 뻗친 구역이 그 후신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열리기 전에도 이곳은 지금처럼 넓었으며 ‘국방도로’라고 불렀다.

이 국방도로는 1941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부평에 조병창(造兵廠)을 세우던 해였다. 인천항으로 군수물자를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의 지도 아래 근로보국단이 만들어지고 서쪽의 청장년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본군의 감시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였으며 잠곡밥을 먹으며 길가에 임시로 세운 천막에서 잠을 잤다. 이 공사는 3년 계획으로 착수하였으나 태평양전쟁에 청년들이 다수 징병 또는 징용당하여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8·15광복 때까지 중단되었다. 이 도로에 육교 구실을 하는 검정다리가 있었다.

건지골 드넓은 들판을 건지들이라고 불렀으며, 가좌천이 그곳을 가르며 흘렀다. 옛날에는 그냥 ‘큰내’라고 불렀으나 1910년대에 일본이 토지측량을 한 뒤에 지금처럼 가좌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은 복개되어 있으며 물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까지 흘러간다. 이 가좌천이 끝나는 곳은 옛날에 갯벌이었고, 이곳은 매립되어 목재단지가 앉아있다. 건지골은 하천과 마른 연못이 있어서인지 습기가 많았다. 이 마을에 결핵환자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가 습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지금 진주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물론 옛날처럼 습하지도 않고 폐결핵 환자가 많을 리가 없다.

이방뿌리라는 곳이 있었다. 가재울마을에서는 악귀를 쫓기 위해 예방을 하며 해안에 밥을 해서 버렸다. 그래서 예방부리라 했는데 변음되어 이방뿌리가 되었다.

건지골에는 수령 300년의 엄나무 한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 주변에 건지터가 있다.

소염도에 열녀의 정절을 기려서 만든 각시당이라는 절의 옛 터가 있었으나 매립공사와 시가지 확장으로 사라졌다.

(2) 석남동(石南洞)

원적산(元積山) 기슭에 발달한 법정동으로 지금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등 행정리를 안고 있다. 지

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번작리, 고잔(高棧), 옷우물, 박가외말[朴家墓村] 등 네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호구총수》에는 대표 취락인 번작리(番作里)가 법정리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지명은 촌상장정(村上將町)였다.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 해전을 지휘한 함대사령관 촌상[村上]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번작리는 번지기로도 불린다. 옛날에 포구였고 군대의 기지와 초소가 있어 근무당번을 정해 번을 썼던 터라 그런 지명이 붙었다. 포구 앞에는 노송(老松)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둥근 형의 동산이 남아 있었다. 두루미와 백로 등이 마치 널어놓은 빨래처럼 앉아 있던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지금의 거북시장과 그 아랫쪽마을이 옛날의 번작리이다.

고잔은 해변을 향해 쪽 뻗어간 지역을 이므로 많은 동명이소(同名異所)가 있다. 인천에도 오늘의 중구 일대, 남구 고잔동, 그리고 경서동까지 4곳이나 있었다. 석남동의 고잔이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독 높을 고(高)자를 쓴다는 것이다. 이곳 고잔은 1960년대만 해도 인가가 두세 채에 불과했다.

바다가 보이는 둔덕에 주로 옷우물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엿집이 있었는데, 석남동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운 곳이었다. 1960년대에만 해도 어떤 청년이 머리를 산발한 여자귀신에게 홀려 그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며칠 동안 열병을 앓으며 헛소리를 한 일이 있었다.

구레방죽이라 부르는 제방이 바닷물을 막고 있었고 꽤 넓은 무논지대를 형성했다. 지금 고속도로변으로, 화공단지가 들어서 있다.

옷우물은 북쪽마을이다. 발음되는 대로 ‘오두물’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옷이 오른 사람이 와서 몸을 씻으면 잘 낫는다 하여 붙여졌다. 옛날에는 계곡에 숲이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흘렀다. 작은 규모의 간장공장이 있었고 노송들이 키를 자랑하며 서 있었다. 지금 석남초등학교가 들어선 곳부터 거북시장의 위쪽(북쪽) 끝, 그리고 신도로 옆의 지금 강남시장이라 부르는 곳까지가 옛날의 옷우물 마을이다. 지난날 병을 낫게 한 우물샘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도 석남약수터라 불리며 물통을 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박가외말은 동쪽 산 밑에 있었으며 ‘바그메’ 라고도 불렀다. 이곳에 박씨의 묘가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전하는데, 이곳에서 평생을 산 주민들은 박씨보다는 배(裴)씨가 더 많았다고 말한다. ‘이곳에서는 초콜릿 빛깔’의 찰흙이 많이 나와 아이들이 맛있게 먹기도 했다. 이곳에는 약 40년 전부터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자리잡고 있다.

검정다리마을은 큰길 옆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주민들을 강제로 부역시켜 만든 국방도로에 검정색 콜타르를 칠한 목재 육교 2개가 1960년대 초까지 놓여 있었다. 저절로 이 육교 근방에 가옥들이 들어서고, 그 취락을 검정다리마을이라 불렀다.

독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옷우물마을에서 원창동 쪽으로 나갈 때, 도당재산 밑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걷게 되어 있었다. 이 골짜기에서 독을 구웠다 하여 독골이라 하였고, 여기 취락이 들어서자 독굴마을이라 불렀다.

무라가미쫓는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 해전을 지휘한 함대사령관 촌상(村上)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오늘의 행정동명인 석남동은 옛 석곶면의 남쪽에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번작리 포구는 사람을 실어 나르기보다는 인근 밭에 줄 인분을 실은 '똥배'가 많이 와서 서 있었다.

원적산이 마을의 동쪽을 감싸고 있는데 이 산은 북구 산곡동(山谷洞)에 닿아 있다. 석남동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은 철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곡동과 가정동에 닿아 있는 철마산의 한 지맥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고잔산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다. 고작천(高作川)은 이곳이 고작리로 불리던 시절에 명명된 이름이다.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석남동의 중앙을 흐르는 작은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복개되어 있다.

지난날 석남동 아래쪽은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둔전(屯田)들'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군대에 소속된 토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번지기라는 지명과 연계하면 옛날에 이곳이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들판에는 윗방죽, 아랫방죽, 안방죽 등 세 개의 제방이 있었다.

석남동에는 위에서 설명한 독골, 박가의 묘가 있던 박가피골, 갯가에 있었다는 먼갯골, 이렇게 세 개의 골짜기가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하천, 들판과 함께 모두 도시화되면서 시가지로 변해 버렸다.

(3) 신현동(新峴洞)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하며 지난날에 새오개 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뉘어져 있었다.

신현동을 지금도 나이 많은 서포사람들은 새오개라고 부른다. 원창동(옛 지명은 포리)에 세곡의 하역과 보관을 위한 포리항을 만들고 큰 창고를 지었다. 서울까지 육로로 실어가기 위해 새로 길을 닦으면서 고갯길을 만들고 그 고갯길을 '새고개'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음운변화되어 새오개가 된 것이다. '새고개>새오개'의 음운변화는 'ㅣ'모음 아래에서 'ㄱ'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국어에서는 흔한 것이다.

새오개 마을은 큰말과 작은말로 나누어 불리기도 한다. 북쪽 취락을 큰말 또는 큰새오개라고 하고 남쪽 취락을 작은말 또는 작은새오개라고 불렀다.

양금머리라는 작은 취락의 지명도 있다. 새오개에 서서 바라볼 때, 평투고개라는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그 고개를 솔앗너머라고 불렀다. 그 솔앗너머로 넘어가면 양지바른 남향의 작은 취락이 나오는데 그곳을 양금머리라고 불렀다. 지금 신현동과 석남동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요굴이라는 작은 취락이 새오개 서쪽에 있었다.

구석말이라는 취락이 있었다. 구석지게 들어가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 현재 신현북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옛날의 새고개길은 마을 서쪽에 있으며 지금 도시화되어 알아보기 힘들지만 법정동인 원창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도당굿을 하던 도당산에 있어 도당재고개라고도 한다.

멍개골 고개가 있었다. 도당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온 구릉인데 석남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평투고개는 양금말에서 새오개로 넘어가는 고개였다.

요굴고개는 새오개 마을에서 요굴마을로 가는 고개였다.

굴앗고개는 새오개마을에서 석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였다. 지금 한화에너지로 가는 길과 네거리를 이룬다.

신현동에는 앞방죽과 너머방죽이라는 두 개의 방죽이 있었다. 앞방죽은 지금 신현아파트가 들어앉아 있고 너머방죽은 가정동 봉화재 방죽까지 이어지는 길고 높은 둑으로 지금 신현중학교 북쪽 평지였다.

수령 500년이 넘는 회화나무가 신현동 131-7번지에 있다. 천연기념물 315호로 지정된 보호수이다. 높이 22m, 둘레 5.3m에 이르는 거목으로 멀리 보아서도 자태가 매우 장려하다.

(4) 원창동(元倉洞)

조선시대에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해안 마을이다.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갯말과 환자곶(還子串) 등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법정동 명칭이 구수정(久水町)이었다.

갯말은 원창동의 본마을이다. 포리, 포촌 등으로도 불렸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 선착장이 있어 배가 머물 수 있는 부두라는 의미를 담은 지명들이다. 《호구총수》는 포촌리(浦村里)라는 법정리로 적었다.

갯말은 간곶말, 아랫말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갯말은 바닷가에서부터 산의 구릉 위로 길게 자리잡았었는데 구릉 위에 있던 취락이 윗말이었다.

아랫말은 윗말 바로 밑에 위치했다. 1884년 이곳에 전조창(轉漕倉)을 세우기 전에는 작은 섬이었는데 그때 갯벌이 메워져서 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도촌(島村)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그 당시 도촌에 조수가 드나들어 허영계 노염(露鹽)이 서려 있어서 노염밭이 되었던 터라 노염말이라는 이름도 생겼다. 이 마을의 원로들이 늪말이라고 하는 것도 노염말의 음운변화인 듯하다.

간곶말은 윗말과 아랫말의 중간지대를 가리켰다.

환자곶말은 조정의 대여양곡 보관창고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환자(還子)란 가난한 백성들이 춘궁기에 관으로부터 곡식을 빌어간 뒤 추수가 되면 갚는 차용제도를 말한다.

울도는 우리말로 밤염이라고 불렸다. 물에서 보면 밤톨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98년에 화약고가 만들어졌으나 곧 폐지되었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썰물을 따라 갯벌을 걸어나가 섬에 가고, 밀물에 앞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갯벌은 매립으로 지금 육지가 되었다.

세어도는 우리말로 세루섬이라 하였다. 물에서 보면 가늘게 늘어져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 그렇게 지어졌다.

구수정은 러일전쟁 때 인천 해전에 참가한 장군 구수(久水)의 성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포리 포구 뒤의 옛날 도당곳을 하던 산을 도당산이라 하였다.

환자곶마을 뒷산을 환자곶산이라 하였다.

울도에 있는 구릉을 밤산이라고 불렀다. 이 산에는 품질 좋은 향나무가 자생하였다.

세어도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세어산이라 불렀다.

갯말에 갯말방죽, 울도에 밤염방죽, 세어도에 세루방죽이 있었으나 매립되어 사라졌다.

환자(還子)를 저장한 환자 창고터가 해변에 있었으나 매립공사로 사라졌다.

전조창 터가 포리 해안에 있었다.

도당산에 외국 함선을 막기 위한 포대가 있었다.

(5) 가정동(佳亭洞)

가정동은 철마산(鐵馬山) 옆을 넘어가는 승학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 부터가 북서쪽, 지난날 석곶면이었다.

지난날 가정마을과 산밑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호구총수》는 봉현리(烽峴里), 가정리(佳亭里), 두 개의 법정리를 기록했다. 봉현리는 지금 봉화촌, 봉화재라고 부르는 곳이고 가정리는 본마을이다. 뒷날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 곳을 합해 가정리(佳丁里)로 명명하였다. '가정(佳亭)'을 잘못 쓴 것인데 한동안 그냥 통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지명은 천대전정(千代田町)였다.

가정은 이곳의 본마을이다. 조선조의 개국공신 조반(趙胖)이 말년에 여기 와서 가정(佳亭)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한다. 그 뒤 이 마을은 가정촌으로 불리웠으며, '가경주' 또는 '개경주'라는 변형된 지명도 사용되었다. 지금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질이 바뀌어가고 있다.

봉화촌은 마을 서쪽 바다에 가까운 마을이다. 부락이 등지고 있는 축곶산(楸串山)에 봉수(烽燧)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취락은 축곶산에서 방아머리까지 서쪽으로 뻗어간 능선 아래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봉화재', '봉화촌', '봉오재' 또는 '봉우재'라는 변형된 지명도 사용되었다. 인근에 청라 신도사가 건설되어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산밑마을은 산밑주막이라고도 불렀다. 승학현 밑에서부터 지금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인터체인지까지 자리잡았던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승학현을 넘어가는 고개 입구(현재의 한국전력 건물과 주유소 시설 뒤편)에 주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개발단 마을이라는 취락이 축곶산 서쪽 와지선에 자리잡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난민들을 주축으로 한 철거민들이 인천시내에서 폐밀려나와 이곳에 자리잡고 살았다. '수용소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천대전정은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의 해전에 참가한 일본 군함 천대전환(千代田丸)에 이름을 딴 것이다.

철마산이 마을 앞에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철마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흐르는 가정천(佳亭川)이 있는데 지금은 복개되었다.

축곶산(楸串山)은 싸리나무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서해쪽 봉화재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봉수대가 있었다. 이 산의 활개가 능선을 이루며 서쪽으로 뻗어가다가 뚝 그치는데 이곳을 방아머리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해안을 조망하며 방어하였기 때문에 방어(防禦)머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마살피라는 작은 산이 오늘날의 신현동과의 경계지역에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형체마저 사라졌다.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라고도 한다.)이 가정동 산밑마을에서 철마산과 축곶산 사이 협곡을 가르며 심곡동까지 뻗어있다. 매우 길고 높은 고개였지만 남쪽 등성이 너머에 새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가해졌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의 모월곶면과 남쪽의 석곶면으로 나뉘었다.

안아지고개가 철마산과 계양산을 연결하는 지맥을 타고 효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있다.

수루너미고개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개가 있다. 가정동에서 심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승학현과는 구별된다. 승학현은 서쪽이며 심곡동의 서곶로 길가 마을 '양가말'로 이어지지만, 이 고개는 보다

동쪽이며 심곡동의 깊숙한 곳(절골)로 이어진다.

용난골이라는 골짜기가 철마산 남서쪽에 있다. 이곳에서 용마(龍馬)가 날아올라 승천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피네미골이라는 골짜기가 철마산 너머에 있다. 안아지고개를 넘어 철마산 동쪽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큰 피네미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작은 피네미골이라고 부른다.

밤까지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경인고속도로 옆 카톨릭 본당과 수녀원 건물 일대를 지칭한다. 이곳에 밤이 많고, 지나가려면 늘 짙은 틈으로 밤가시가 찢러와 그런 지명이 붙었다.

가정천(佳亭川)이 철마산에서 시작하여 축곶산을 에워 돌며 봉화재들을 비옥하게 적시고 바다로 흘러 간다. 마을 쪽은 복개되어 있다.

봉화재들은 축곶산 아래 넓은 들판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1925년에 축조된 봉화재 방죽이 바다를 막고 있다. 이 곳 해안에도 광대한 천일염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전이 되었다.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이곳에 이주하여 세운 정자인 가정(佳亭)터가 가정동 456번지의 네거리 서쪽 100m에 보존되어 있다.

가정동 뒷산 밑에 도당굿 제단이 있다. 주민들은 옛날부터 이곳을 외경스럽게 여기고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켰다.

(6) 심곡동(深谷洞)

철마산(鐵馬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날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기피울과 양가말[梁家村]이라는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1871년(정조13) 간행한 《호구총수》에 심곡동은 서구의 다른 법정동들과 달리 기록이 없다. 당시 호구 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심곡은 옛 이름 기피울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가정동에서 승학현을 넘어와 연희동으로 가는 서쪽으로 국도 위쪽은 철마산 골짜기로 깊숙이 뻗어갔다. 그래서 기피울이라고 한 것이다.

서쪽으로 국도에 인접한 마을을 양가말이라 했다. 지금 극동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양씨(梁氏)가 많이 살아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고려 때부터 남원양씨(南原梁氏)가 많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조선초기에 이주해 온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풍천임씨(豊川任氏)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서부소방서와 경찰서가 있는 새로 개설된 8차선 새 서쪽으로 도로 근방을 모모통말이라 불렀다.

모통말에서 더 깊이 들어간 곳, 저명한 지형지물을 말하면 현재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있는 부분을 절골말이라고 불렀다. 옛날에 절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80세가 넘는 원로들이 그곳에 절이 있었다는 전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오랜 지명인 셈이다. 이 절골말은 임씨(任氏)가 집성촌을 이루며 오랜 세월 살고 있어 임촌말이라고도 부른다.

절골말에서 바라보아 탁옥봉을 너머에 있던 작은 취락을 뒷말이라고 불렀다. 뒷골은 뒤에 숨듯이 자리잡은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곳은 이씨가 오랜 세월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어 앞의 임촌말과 호응시켜 이촌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진정(日進町)은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일본 군함 일진환(日進丸)에서 딴 것이었다.

철마산 북쪽이 심곡동에 닿아 있다.

탁옥봉(琢玉峯)은 마을 앞산이다. 신라시대에 어떤 도인이 정자를 세우고 수도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심곡천(深谷川)이 철마산과 탁옥봉 사이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샘내들을 적시고 서해로 흘러간다.

바다를 막아 샘내 별관을 개척하게 한 방과제를 샘내방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로 복개되어 있다.

승학현(昇鶴峴)은 가정동에서 넘어오던 높고 길었던 고갯길로 싱아고개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멀지 않은 연희동 용의머리 앞바다가 수백 년 전부터 두루미 도래지였으니 이 고개에서도 두루미가 날아올랐을 것이다.

철마산 산록 바위에 말 발자국 형상이 있어 천마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아기장수전설과 함께 구비 전승되고 있다.

택재고개라는 고개가 심곡동에서 곧바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있다.

조선 문종(文宗)의 후궁인 숙의문씨(淑義文氏)의 묘가 탁옥봉 산록에 있다.

수령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철마산 와지선에 있다.

(7) 연희동(連喜洞)

연희동은 근대 서곶의 중심로서 연일과 셋말 등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반도처럼 뻗어나간 곳이 있는데 그곳을 ‘용의머리’라고 부른다. 거기에도 작은 취락이 있었다. 《호구총수》에는 한자 표기가 지금과 달리 연희리(延希里)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연희(連喜)로 한자표기가 바뀌었는데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다. ‘연일’이라는 본마을의 음차기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 출신인 이훈익의 《인천지명고》는 ‘연일이 신라시대부터 여자들이 모여 비단을 짰던 곳이라고 전한다. 근방 여인들을 모아 직조기술을 가르치던 교습소구실을 했다고도 전한다. 그래서 본래 여희(女姬)라는 지명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연일로 바뀌었다. 이 마을의 형상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여인과 같아서 여희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전설도 있다.’고 기록했다.

두 가지 전설이 모두 여인과 직조에 연결하여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희동에 정작 비단과 베 직조의 근원이 되는 뽕나무밭이나 삼밭은 남아 있지 않고 원로들도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셋말은 연희동과 공촌동의 사이에 끼여 있어 그렇게 붙여졌다. 1991년부터 시작된 도시개발로 인해 큰 도로가 관통해 나가고 자연취락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연희동 본말에서 셋말과 공촌동으로 가는 고개를 새꼬랄고개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개 밑에 있는 작은 취락을 새꼬랄말이라고 불렀다. 고개의 모습이 새의 꼬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

지금 연세병원이 있는 곳이다.

용의 머리는 연희동 본말에서 뻗어간 땅의 모습이 용과 같고 바다에 이르면, 마치 용의 머리 같은 곳에 취락이 있어 그렇게 붙여졌다.

옛날 연희동이 시작되던 곳은 현재의 연희감리교회가 들어선 작은 고개였다. 심곡동에서 뻗어온 서곶로 길은 이 고개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갈마산과 연희동 본마을 사이를 지나 다시 활처럼 휘어지며 고개를 올라갔다. 연희교회 근방 고개를 군인길 또는 군잇길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삼거리였다. 서곶로를 타고 와서 휘어지지 않고 서곶초등학교와 옛 연희진 터로 곧장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아마도 서곶로가 닦여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을 타고 가면 서곶초등학교와 서곶면사무소(옛 연희진 자리)와 서곶지서(서곶면사무소의 건너편)에 곧바로 닿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군인길 언덕에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용의 머리 반도로 가는 것(줄안마루길이라고 불렀다)이다.

옛날에 군인길은 중요한 교통로이자 군사도로였다. 고려 때는 이 길을 타고 북으로 가서 개경으로 통하고, 조선시대에는 이 길을 타고 와서 연희진에서 동쪽길을 잡아 계양산 옆 경명현을 거쳐 부평부(富平府)나 서울로 갔다. 그리고 1883년 조선 조정은 연희진을 설치하고 용의머리 반도 끝에 용두돈대를 만들고 아울러 이곳에 경기연해방영(京畿沿海防營)이라는 병영을 설치했다. 군인길이란 지명은 아마 그런 연고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에서 연희진이나 용두포대로 긴급 전령이나 파발이 달려오고 달려가고 군병력도 대오를 맞춰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옛날의 군사도로 군인길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뚜렷하게 있어 옛일을 더듬을 수 있게 했으나 지금은 도시개발로 가옥들 사이로 난 하나의 골목길처럼 되어 버렸다.

연희동에는 수군기지인 연희진(連喜鎭)과 해안 포대가 있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뒤에 서해로 침범해 오는 서구 열강의 함선을 격파하기 위해 1878년에 만든 것으로서 연희진은 연희동 247번지에 있었다. 포대는 용두산에 있어서 용두포대라고 불렀는데 군사적 요충이어서 앞바다가 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군의 해안 경비초소로 사용되었다.

서곶면사무소가 1914년에 연희진터에 들어섰다. 이 건물은 1940년에 인천부 서곶출장소로 바뀌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명칭이 바뀌어 인천부 서곶지청이 되었다.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다시 출장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출장소가 현재의 서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한 뒤 한동안 건물이 보존되었으나 1990년대의 도시개발로 없어졌다.

연희동의 본마을 연일은 세 개의 야산과 하나의 하천을 끼고 발달했다.

갈마산(渴馬山)은 마을을 관통해 가는 국도의 남쪽에 있던 야산인데 그 모습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없어졌다. 서구청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연일 마을에서 보기에 왼쪽(동쪽)이 높고 오른쪽(서쪽, 군인길 쪽)이 낮았는데, 그런 연유로 동쪽의 높은 산 정상을 윗피라고 불렀다.

닭우리산(鷄鳴山)은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 구릉이다. 계양산을 관통해 내려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큰

길에서 왼쪽 무논지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다.

샘내(泉川)들은 연희동과 심곡동 사이에 있는 들이다. 철마산에서 발원한 심곡천(深谷川)을 젓줄로 삼고 만들어진 곳이다.

닭우리들은 닭우리산 아래, 빈정천을 끼고 형성된 드넓은 무논지대를 말한다.

위의 샘내들판과 닭우리들판은 2010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앉으면서 형질이 사라졌다. 공사 시작 전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니 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다 한다.

용의 머리산(龍頭山)은 용의 머리 반도의 바다쪽 끝에 있는 야산이다.

빈정천(濱汀川)은 계양산 서록에서 시작되어 공촌동을 거치고 연희동과 경서동 사이를 흘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

고로수고개와 고로수골이라는 곳이 있었다. 연희동 본마을의 앞산 갈마산의 위쪽(동쪽)등성을 넘어가는 고개와, 그곳에 있던 골짜기를 가리켰다. 지금은 시가지로 변했다.

능안이라는, 용의 머리보다 작은 반도가 있었다. 현재의 서부경찰서 연희파출소가 있는 옛 새꼬랴말에서 서쪽 소로를 타고 들어가면 도당재 언덕에 이르고, 그 언덕 언저리에 서곶면사무소와 서곶지서가 있었다. 오래 묵은 엄나무(도당굿을 하던 도당나무이다) 밑을 지나 계속 서진하면 1km쯤 되는 길이 바다를 향해 뻗어갔다. 그곳을 능안이라고 불렀다. 능안에는 옛날에 왕릉이 있었다고 구전되고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

이 능안길은 서곶초등학교 뒷편으로 뚫려 있다. 그 북쪽으로 뻗어간 산줄기 하나가 봉긋 솟아올라 넓은 벌판을 바라보며 뚝 끊어진다. 이 봉우리가 닭우리산이고 넓은 벌판이 닭우리들이다. 그리고 능안의 남쪽 들판을 대평두리 또는 대평들이라고 부른다.

용의 머리 마을 앞바다는 김포매립지에 포함되기 전 두루미 도래지로 유명했다. 1977년 천연기념물 252호로 지정되었으며 해마다 늦가을에 용두산에서 서면 장려한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청라매립지가 조성되어 갯벌이 사라지자 두루미들은 오지 않았다.

연희동 해안에 상애(相愛)염전이라는 천일염전과 저수지가 있었으나 1960년대에 무논으로 개척되었다.

연희동 산 85번지, 옛 연희진 및 서곶출장소 터 위쪽 언덕길을 도당재라고 하는데, 그곳에 도당굿을 지내던 제단터와 300년 된 엄나무가 있다. 이 엄나무 고목에는 큰 그네가 걸리고 해마다 단오 때는 그네타기대회가 열렸다.

(8) 공촌동(公村洞)

부평과 서곶의 진산인 계양산의 서록(西麓)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옛이름 고현리(古縣里)가 삼국시대 부평지역의 통치중심지여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 공촌이라는 최초 지명은 1871년(정조13) 간행한 《호구총수》에 오늘처럼 공촌리(公村里)로 실려 있다.

지난날 본마을과 갈피(葛山)마을, 그리고 하천 건너편 과기평마을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위의 경서동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기평은 공촌, 경서, 검암동의 경계가 합쳐진 곳이다. 일제강점기

의 일본식 지명은 흑전정(黑田町)이었다.

고현리는 삼국시대에 이곳이 부평과 김포의 옛 지명인 주부토현(主夫吐縣)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부평에 읍호가 처음으로 붙은 것은 이 ‘주부토현’이 처음이고, “고구려 장수왕 58년(470) 김포반도에 주부토군을 설치했다.”는 기록 한 줄이 역사서에 있다. 이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태조 23년(940)에 다시 수주(樹州)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부토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3세기 가까운 세월과 장제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2세기 가까운 기간에 통치중심지가 공촌동이었을 것이라고 인천의 원로향토사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옛 문헌기록에 ‘경명현폐현지 계양산북록 만일사하평탄지 민호이백야(景明廢縣址 桂陽山北麓 萬日寺下平坦地 民戶二百也, 경명현의 옛 현소재지는 계양산 북록의 만일사 아래 평탄한 땅에 있었으며 200호의 백성이 살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과 기와 조각 따위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고현이’, ‘고련이’ 또는 ‘이십만평’이라고 부른다. 마을 동쪽 산중턱의 드넓은 지대를 이르는데, 이곳의 면적이 20만 평이 되며 지난날 읍소재지였다고 마을원로들은 추측하여 말한다.

2001년에 발간된 《계양사》는 고대 계양지역의 읍소재지를 계양산 서쪽 고현벌[古縣平]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읍치 부근인 경명현 서쪽에서 근래에 돌도끼가 출토된 점, 읍치로 짐작되는 곳에서 온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석판이 여러 개 출토된 점, 읍치 추정 장소와 가까운 갈매산과 허암봉에서 고인돌이 발견된 점, 읍치 위 산중턱에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다는 만일사(萬日寺) 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래된 족보에 고현(古縣)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공촌동이 읍치로서 타당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을 열거하고 있다. 군사적 요충이라는 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라는 점, 육로교통이 좋다는 점, 서해의 조수가 빈정천까지 밀려왔을 것이므로 이곳을 작은 포구로 삼을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서동 금산 아래 큰 배를 댈 수 있는 포구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공촌동에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말고 근방 검암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공촌동에서 검암동, 시천동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계양산 산록이 중심지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발아장과 구슬원이라는 여각(旅閣), 장모루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묶으면 이곳이 옛 부평지구의 통치 중심지였다는 추정이 더 유력해진다.

공촌은 ‘고현’에서 음운이 변한 것이 아니다. 마을형태가 한자의 공(公)자와 같아서 지어졌다고 전한다. 한 능선의 동서에 마을이 앉아 계양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기평은 경서동에서 기술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갈매는 ‘공(公) 자를 이루는 능선 너머마을로 침이 유난히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흑전정은 임진왜란 때 왜군 지휘관이었던 흑전장정(黑田長政)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장자터라는 곳이 있다. 검암동과 경계를 이루는 허암봉의 남쪽으로, 옛날에 부자들이 모여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도당미라는 곳이 있다. 지금 계양산 관통도로 길가 서구정수사업소가 있는 부분이다. 옛날 이곳에 도

당할머니를 모셨던 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길마산은 계양산과 철마산 사이에 있는데, 마치 짐을 잔뜩 실은 길마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산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 산을 계양산 너머 계산동 사람들은 중구봉(重九峯)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에 불교행사인 중구절(重九節, 9월 9일) 행사를 이 산에서 지낸 연유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공촌동의 유명한 지형지물은 모두 계양산과 연관되어 있다. 계양산은 공촌동과 북구의 계산동(桂山洞), 방축동(防築洞), 목상동(木霜洞)의 경계지역 안에 있다. 서구에서는 검암동과 시천동이 산과 가깝지만 주봉(主峰)에서는 떨어져 있고, 공촌동이 가장 가깝다. 깊숙이 산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자리잡고 있는 형상이다.

계양산에는 세 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범골, 경명현 아래의 깊은 계곡인 산곡(山谷), 계양산 서쪽 산자락 아래에 옛날 절이 있었다는 불당골, 이 세 가지 지명은 지금도 사용된다.

계양산 옆으로 난 낮은 구릉을 타고 넘어가는 경명현(景明峴)이라는 유명한 고개가 있다. 서곶과 부평을 이어주는 유일한 고개였으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경명로가 개설되어 의미가 사라졌다. 이 고개는 고려시대부터 매사냥으로 유명했다. 고려 충렬왕은 경명현에 와서 매사냥을 자주하였고, 경명현 서쪽에 국영매방을 두었다고 전한다. '징매'라는 지명은 충렬왕이 매를 징발(徵發)했다 하여 징매[徵鷹]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설이 유력하다.

이 경명현을 중심으로 동서로 쌓은 성을 중심산성(衆心山城, 계양산성이라고도 했다)이라 했다. 1870년(고종 7)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는데 공해루(控海樓)라는 문루도 세웠었다. 공해루 200m 남쪽에 '중심산성 사적비'가 세워졌는데,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6·25전쟁때 포격으로 망실되었다.

계양산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져 문장가들의 글에 등장한다. 고려 때 이규보(李奎報)의 《망해지(望海誌)》, 풍수가 김위제(金謂礪)의 남경(南京, 오늘의 서울) 천도 상소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근방의 문인들이 부평팔경을 시문으로 묘사하였는데 거의가 서곶지역과 계양산의 절승에 대한 것이 제일 많다.

이 산에서 생산되던 부싯돌과 회양목은 품질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팔려 나갔다 한다. 부싯돌은 이제 불필요해져 원석이 남아있겠지만 30~40년 전까지 산록에 지천으로 많던 회양목은 멸종되어 버렸다. 환경단체와 서곶초등학교 동창회 등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어 다시 부활될 전망이 보인다.

계양산에는 만일사를 포함해 12개의 사찰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공촌동은 서곶의 남북을 관통하는 국도에서 깊숙이 들어간지라 한적하고 낙후된 마을이었으나 계양산 관동도로가 생기고, 1991년부터 시작된 연희지구 도시개발로 인해 그 고유의 형질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9) 경서동(景西洞)

지날날 부평부 모퉁이면 소속으로 고잔(古棧), 범머리[虎頭], 심포리(沈浦里), 빈정촌(濱汀川) 등 네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앞바다에 난지도(蘭芝島), 청라도(靑羅島), 세어도(細於島) 등의 섬들을 안고 있었다. 이 섬들은 경사가 약한 갯벌 위에 놓여 있어서 썰물 때는 걸어서 왕래할 수 있었다.

1871년(정조 13) 간행한 《호구총수》에는 당시의 행정 면단위로 호구와 인구수와 행정리 지명을 기록한 자료인데 고잔리(古殘里)와 난지도(蘭芝島)가 실려 있다. 한 동안 고잔리가 법정동으로 지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식 지명은 이가정(李家町)였다. 8·15광복 후 경서동이라는 오늘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경명현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였다.

경서동은 서곳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전의 형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지난 2005년경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고잔은 경서동의 본마을이다. 계양산의 활기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 작은 반도를 이룬 지역에 앉은 마을로 넓은 의미로는 경서동의 여러 소규모 취락을 포괄하기도 한다.

곰말은 마을의 북쪽에 있지만 중심 노릇을 해왔다. 지금 태평상베르아파트가 앉아 있다.

아랫말도 곰말처럼 경서동의 원마을이라 이를 수 있다. 마을의 남쪽 아래에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지금은 빌라촌이다.

넘말은 아랫말에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 고개를 넘으면 나타난다. 고개 너머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 태평상베르아파트와 빌라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앞말은 넘말과 이웃하고 있다.

범머리(虎頭)는 산 이름이자 마을 이름이다. ‘버머리’라고도 불렀는데, 인근 연희동의 바다로 뻗어간 반도를 용의 머리라고 부른 것과 대칭이 된다. 2~3km 떨어진 두 마을은 그렇게 바다로 뻗은 반도가 대응되어 조화를 이루었다.

심포리는 고려시대에 수군기지가 있었던 바다 쪽 포구마을을 가리킨다. 심포(沈浦)란 포구가 물에 잠겼다는 뜻이다. 곰말과 골프장 사이로 길게 자리잡은 마을이었다. 현재 우정아파트 단지가 앉아 있다.

빈정촌과 독점마을, 과기마을은 서곳에서 서쪽으로 뻗어간 경서동 반도로 향하지 않고 서곳로에 인접한 지역을 가리키며 서로 이름이 혼용되기도 하고 매우 가깝게 바라보고 있다.

빈정촌은 빈정천이 지나가는 빈정교 주변마을을 가리킨다.

서곳로에서 국제컨트리클럽 간판을 보고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의 오른쪽은 윗독점(검암동 쪽)이고 왼쪽(연희동 쪽)은 아랫독점이라고 부른다. 지난날 이곳에 카톨릭신자들이 모여들어公所(公所)를 열고 용기를 구웠는데 가마가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빈정촌과 아랫독점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된다.

과기평(過驕平)은 위의 빈정촌, 독점 등을 아우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병인양요 후 이곳에 계우정(桂虞停)이라는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마을 출신 원로들은 과기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과기별’의 음운변화로 보인다.

위의 빈정촌, 독점, 과기평은 오늘의 행정구역으로 경서동과 공촌동과 검암동의 경계가 겹쳐 있다.

경서동의 복잡한 취락을 그 마을에 진입했던 순서대로 설명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검단과 김포를 거쳐 강화로 가는 서곳로 국도의 빈정천을 건너면 빈정촌 또는 과기평이라는 마을을 만난다. 빈정교를 건너자마자 다가오는 취락이 아랫독점이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 서쪽으로 난 길(지금은 국제골프장 입구로 설명된다)을 잡아 걸으면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윗독점이다. 이 길을 타고 5리쯤 걸으면 정면에 곰말이라 부르는 취락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도당재, 왼쪽에는 아랫말이 자리잡고 있다. 아랫말에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촌락이 넘말과 앞말이다. 도당재에서 정면의 독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가면 반도의 끝 범머리가 나온다. 이상을 통틀어 고잔, 쪽뎡이고잔, 또는 쪽뎡이라고 불렀다.

도당재에서 오른쪽으로 비껴서 갯벌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난지도에 갈 수 있었다. 범머리에 서면 정면 바다 가운데 떠 보이는 섬이 세어도이다. 썰물 때면 10분만에 걸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범머리에서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우전방에 섬들이 보였다. 왼쪽부터 청라도, 범염, 까투림, 노림 등 네 개의 섬이었다. 이 섬들도 밀물이 적게 밀려오는 조금 때면 썰물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호구총수》에는 고잔(古殘)으로, 이후의 다른 자료는 고잔(古棧)으로 한자 표기가 다르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순우리말 지명 ‘고잔’의 음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복 후 우리말 지명을 회복할 때 고잔이라는 재래의 지명을 버리고 경서동을 선택한 것은 국내에 같은 지명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었다. 고잔의 어원은 이렇다. 해변을 향해 쪽 뻗어간 곳을 ‘고지’ 또는 ‘곶(串)’이라고 부르고, 곶 바로 앞에 우묵하게 패여 있는 곳을 ‘곶+안’으로 합성하여 만든 말이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서해안에는 많은 동명이소(同名異所)가 있다. 인천에도 오늘의 중구 일대, 남구 고잔동, 서구의 석남동, 그리고 이곳 경서동까지 4곳이나 있다.

빈정천은 계양산 서록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가리킨다. 이 하천은 상류에서 공촌을 지나오기 때문에 공촌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의 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빈정천이다.

일제가 옛 경서동에 이가정(李家町)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곳이 지난날 이씨 왕가의 땅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경서동의 전체 토지가 조선 왕조의 종친들의 봉토(封土)로서,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소작에 종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난지도는 옛날에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난지염’의 음운변화인 듯하다. 사멸된 우리말에 ‘염’이라는 것은 섬과 동의어였던 것이다. 난지도는 물과 위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지화 되었다. 그나마 절반은 옛 모습이 살아 있는데 절반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자르고 나갔다.

청라도는 난지도와 달리 물과 상당히 떨어진 섬이었다. 푸른 넝쿨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육지에서 그 섬이 유난히 푸르게 보여 ‘파렴’이라고도 불렀다.

바다 쪽에 박힌 범머리산은 한자음으로 호두산(虎頭山) 또는 금산(金山)이라 불렀다. 금산은 여기서 금이 많이 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고, 범머리산은 형용이 호랑이 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설에는 이 산에 병인양요 후 이양선의 출몰을 관측하는 망루와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봉수는 국내의 전체 봉수를 계통적으로 집성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 상·중·하》(한국보이스카웃연맹 발행, 1989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양선 침범을 보고 받기 위한 연변봉수(沿邊烽燧)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변봉수란 국경선이나 해륙 연변에 제1선을 설치하여 기점 구실을 하였다. 통신 이외에 국경의 초소와 수비대 기능도 가졌다.

이 산의 동록(東麓)에는 조선 세종대에 대제학을 지낸 유사눌(柳思訥)의 묘(인천 지방문화재)가 있다.

그는 이 마을 태생으로 소년기에 아버지를 여의고 숙부 슬하에서 자라다가 계양산 서록에 있던 만일사(萬日寺)에서 공부해 대과에 올랐다. 이 마을에는 양촌(陽村)길이라는 소로가 북쪽을 향해 나 있다.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천에서 김포 양촌으로 가던 길이었다.

고잔마을 옆에 위치한 국제골프장 안에는 사적 221호로 지정된 녹청자도요지(경서동 산 146번지)가 있다. 고려조 중기에 개설되어 조선말기에 폐지되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녹청자 가마터이다. 1965년부터 2년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폭 1.5m 길이 7.3m의 가마터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난지도와 청라도에서는 패총(貝塚)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두 섬에는 지난날 삼남지방에서 징수해 실어 온 세곡을 저장하는 야적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 산야에 좋은 목재가 많아 조선초기부터 궁궐 건축용 양목지(養木地)로 지정되어 벌목이 금지되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된 약썩은 약효가 좋아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썩탱이고잔 또는 썩탱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바다 쪽에 서주(西州)염전이라는 소규모의 천일염전이 있었다.

독점에서 만들어진 옹기도 명성이 높다. 바닷가 쪽에 극동요업주식회사 공장이 들어섰던 것도 녹청자도요지나 독점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10) 검암동(黔岩洞)

검암동은 공항철도 검암역이 개설되고 상전벽해가 될 만큼 형질이 달라졌다. 지난날에는 바로피, 검바위, 간재울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호구총수》에는 검암리(黔巖里)로 등재되어 있다. 오늘의 한자표기가 ‘암(岩)’이 아닌 ‘암(巖)’으로 기록됐는데 의미가 거의 같고 ‘검바위’라는 우리말 지명의 훈차(訓借)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바로피촌은 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위쪽(동쪽)이고 상동(上洞)이라 부른다. ‘바로 산 아래 있는 마을’의 의미였다고 원로들은 말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발아현(發阿峴)이라는 고개 이름도 있고 발아장(發阿場)이라는 저장거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서의 한자 표기 발아(發阿)는 위의 ‘바로’의 음차로 보인다. 오늘의 우리말 부사 ‘바로’는 중세어에서 ‘바랄’였다.

발아현은 고려시대부터 지금의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국도 구실을 하는 길의 고개였다. 지금의 서곶로에서 오른쪽(동쪽)으로 올라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발아장은 그 길 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 지금 상동이라고 부르는 마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 이어온 이 저자에서는 우시장(牛市場)이 서고 농산물과 일용잡화가 팔렸다고 한다. 계양면에 황어장(黃魚場)이 개설되면서 폐지되었다 한다.

추측하기에 중세에는 이곳에 인접한 시천동이 수주(樹州)의 소재지였고 여각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면소재지였으므로 이 마을의 저자는 오랜 세월 흥성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황어장이 활기를 얻으면서 폐쇄되었던 것이다.

검바위는 중동(中洞)에 있다. 검암동의 세 취락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지만 이 마을에 거대한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이 바위를 서인천고등학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한 채가 누워 있는 것만큼 큰데, 색깔이 완전한 검정색이어서 이 마을의 가장 저명한 지형지물이 됨을, 그래서 검

바위란 지명이 붙여졌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검바위 위쪽에는 고인돌도 있다. 이 마을을 벚쩍말이라고도 하는데 까닭을 알 수 없다. 중동에는 검암역이 들어서 서울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간재울은 하동(下洞)이다. 검바위의 아랫마을이다. 이훈익은 《인천지명고》에서 이 마을이 북동쪽을 등지고 앉았다는 뜻의 간방(良方)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였다. 동양의 전통적인 방위개념으로 보면 간방은 북동을 중심으로 한 15도 범위 내의 방위를 말한다. 풍수지리에서 이 간방을 등지고 앉음은 매우 안정된 것이다. 이 마을이 처음에는 간좌울이었다가 간재울로 음운이 변화한 것이라고 《인천지명고》는 설명한다.

바로피라는 예스러운 명칭이나 검바위, 그리고 간재울과 관련하여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마을의 유래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매우 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한편 검암동의 일제강점기 지명은 과생정(瓜生町)였다.

허암산(虛庵山)은 검암동의 마을 남쪽 앞산이다. 일부 주민은 호암산(虎岩山)이라고도 하나 허암산이 맞다. 호암산은 근처의 다른 야산인데 발음이 유사해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허암산은 조선 연산군대에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이 사화(土禍)를 피해 은둔한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허암산의 산정 좌우에 토성 흔적이 보인다. 조선초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길이는 1.5km쯤 된다.

호암산은 우리말 그대로 범바위산이라고도 한다. 검암동 윗마을에서 계양산 방향에 보이는 산이며 계양구 목상동과 경계가 된다. 이 산에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

작은징맹이라는 고개가 있다. 고개 아래가 고려 때에 바로피마을의 저자(밭아장)가 있던 곳으로, 이 고개를 넘어 왕도인 개성까지 갔다고 전해진다.

구슬재 또는 피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다. 검암동이나 시천동에서 출발해 꽃피 옆을 스쳐서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고개 아래 구슬원이라는 여각촌(旅閣村)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숫돌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마을 북동쪽으로 가서 산맥을 넘어 계양지구로 가는 곳에 있는 작은 고개인데, 칼을 가는 숫돌을 늘어놓고 팔았다 한다. 검암동 근방에서 숫돌로 쓰는 돌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검바위고개라는 고개도 있다. 건들고개라고도 하는데 상동에서 공촌동의 장자터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

웃골은 상동 위에 있는 골짜기로 검바위고개와 연결된다. 윗말과 가까워 웃골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산양골은 윗말에서 범바위산으로 가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옛날에 사냥을 하던 곳이었거나, 산양이 나타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침밧골은 범바위산 방향에 있는데, 침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천천은 검암동의 유일한 하천이다. 이 시내는 계양산 서북록에서 발원해 오늘의 시천동과 검암동을 경계 지으며 흐른다.

해머리방죽이라는 둑이 간재울 아래 바닷가에 국제컨트리클럽을 끼고 있다. 바다 머리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방죽 아래로 천일염전이 있었으나 논으로 개간되었다.

검암동의 도당굿과 산신제를 지내던 당산(산70번지)에는 수령 300년의 상수리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11) 시천동(始川洞)

시천동은 옛날에 황어현(黃魚縣)에 속한 시기도 있었다. 그만큼 깊숙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부평부 모월곶면 관할로 들어왔다. 《호구총수》에는 당시의 행정 면단위로 호구와 인구수와 행정리 지명을 기록한 자료인데 시천동을 모월곶면 관할 법정리로 기록했다.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 개척하면서 시천동을 춘일정(春日町)이라고 명명하였다.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 비랴크호를 격파한 춘일환(春日丸)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시내는 시내가 시작된다는 뜻을 가진 지명이다. 계양산 서쪽에서 시작되는 큰 계곡을 끼고 있어 그런 지명이 저절로 붙었다. 한강의 서쪽 방향에 우뚝 솟은 계양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앉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고려시대 전략상 요충지였다고 전한다.

점말은 웅기를 구워 파는 웅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에도 이 지명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가가 거의 없다.

안골은 갯골에서 동쪽 성황당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다. 갯골은 시천동의 끝부분, 지난날 방과제를 막기 전에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서 붙여졌던 이름이다.

윗말은 시천동의 본마을 북쪽 위에 있다. 오룡산(五龍山) 큰 줄기라고 부르는 산이 이 마을을 품고 있다. 오룡산은 계양구 독실동 쪽에서 다섯 개의 활개를 뻗으며 퍼져 나갔는데 그 중 가장 큰 지맥이 시천동까지 뻗쳐오는 것이다.

꽃피 또는 화산(花山)이라고 부르는 작은 산이 있다. 마을 앞산으로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다. 꽃봉오리 형상이어서 붙여졌다.

구슬원(球瑟院)이라는 여각촌이 꽃피 밑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왕도 개성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길목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공치기놀이와 비파를 뜬다고 전한다.

화산 앞에서 검암동 바라피마을까지를 장모루(長牟婁)라고 부른다. 일설에 이곳이 고려왕조 때 부평을 통치하던 수주(樹州)의 소재지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장모루 바로 옆에 삼국시대와 고려 때 역마를 관리하던 구슬역(球瑟驛)이 있었고, 주변에 나그네들을 위한 여각 구슬원과 함께 크게 번창하였다 한다. 원로들의 회고에 의하면 역사에 사용되었던 주춧돌 8개가 수십 년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삼작골 또는 삼자골(挿紫谷)이라는 골짜기가 꽃피 바로 밑에 있다. 나무를 꽃아 심었다는 뜻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변전소가 들어와 있다.

꽃피골이라는 골짜기가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다.

계동골이라는 골짜기가 삼작골 북쪽 능선 너머에 있다.

서남당고개가 계양구 독실동을 거쳐 장기동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지난날 성황당이 있었다.

시천천(始川川)이 마을의 앞자락으로 흐른다. 계양산의 서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것으로 ‘시천들’이라는 들판을 비옥하게 적셔준다.

지난날 점말로 불리던 곳에 웅기가마터가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 두 그루의 보호수가 있다. 시천동 56번지에 200년 된 산수유나무가 있으며, 56-4번지에 2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서곶로에서 시천동을 스쳐 동쪽으로 뻗어가 계양구와 옛 황어장 쪽으로 가는 소로는 포장되어 쓰레기 매립지도로와 연결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시천동을 관통하고 경서동 쪽으로 뻗어간다.

시천동은 진주류씨(晉州柳氏)가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며 산다. 조선조 중엽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柳泰東), 독립투사 류인무(柳寅茂) 선생과 한국 근대 서예의 걸출한 인물 류희강(柳熙綱) 선생이 이 문중 출신이다.

(12) 백석동(白石洞)

백석동은 조선 정조 때 문헌 《호구총수》에는 오늘처럼 백석리(白石里)로 등재되어 있다. 지난날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한들, 독정이, 거월리, 넘말, 도마매, 소맹이, 종알마을 등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다. 그 후 지명은 일제강점기 운양정(雲陽町)이라고 부른 것 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운요는 일본 군함 운요호(雲陽號)에서 유래한다. 1875년(고종 12)에 운요호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군함이다.

백석(白石)은 마을의 행정 지명으로 흰 돌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한들, 한들, 한들 등으로도 불린다. ‘흰들’이라는 지명은 마을의 뒷산인 한뫼산에 흰 돌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재래지명 ‘한들’의 해석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이곳의 한들부락은 검단으로 가는 서곶로 국도를 타고 달리면 왼쪽에 보이는 마을인데 커다란 무논지대를 끼고 발달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마을의 원로들은 ‘한들’ 또는 ‘한들’이라고는 하지만 ‘흰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는 큰 독을 ‘한들방죽’이라고 일컫는다. 1961년 정부는 한자식 표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순우리말 지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이를 관보로 표준지명으로 공시한 바 있다. 그 자료에도 ‘한들’로 되어 있다. 당시의 마을 원로들이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호구총수》에 백석리가 아니라 ‘한들’을 훈차(訓借)한 대야리(大野里)로 정해졌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백석의 지명이 생기고 이미 200년이 지났으니 어원이 어떻든 백석동인 것은 분명하다.

독정이는 독재이 또는 음달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백석동의 중심이 되는 곳, 그러니까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곶로가 왼쪽은 쓰레기매립지로 가고 오른쪽은 천주교묘지와 서울방향 매립지도로로 가는 고가도로와 만나는 지역이다. 독쟁이라는 지명을 가진 한국의 많은 지역이 그런 것처럼 웅기가마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원로들도 있다. 50~60년 전에 이곳에 웅기가마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마을과 인접한 검암동과 공촌동에 워낙 유명하고 큰 가마가 있었던 터라 구태여 이곳을 그렇게 불렀을 이유는 약하다. 《인천지명고》에서는 그 점을 주목하여 다른 해석을 하였다. 이곳에서 대를 이으며 살고 있는 광산김씨(光山金氏) 선대에서 관찰사를 지낸 사람이 이주해 와서 자기의 야호(雅號)대로 독정(篤亭)이라는 정자를 지은 뒤 붙여진 지명이라고 했다. 독정은 인근인 검단동에도 있는데, 백석동 독정을

윗독정, 검단동 독정을 아랫독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백석의 윗독정을 음달이라서 음달말, 검단동의 아랫독정을 양달말이라고 불렀다.

거월리(巨月里)는 독정이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나타나는, 지난날 해안에 닿아 있던 부락이다. 한쪽 면은 왕길동에도 닿아 있다. 물론 지금 바다는 매립되어 없고, 이 오솔길 옆으로는 매립지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거월은 큰 달이라는 뜻 그대로 이 마을에서 달이 유난히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원로들은 유래를 설명한다. 《인천의 지명유래》의 서구편을 집필한 조찬석(인천교육대학교)은 ‘달’이 들어간 지명이므로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천신제를 지낸 마을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넙말은 너머말이라고도 부른다. 한들마을 서남쪽 너머마을이다.

도마매는 넙말의 서쪽 끝 한들 방죽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소댕이는 거월리와 인접해 있으며 지금의 매립지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상고시대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특별구역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소도는 솟대, 솟터, 솔터 등으로 불렸는데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고유 신앙의 징표였다. 《김포군 지명유래집》은 인근 왕길동에 솟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골말[谷澗]은 마을회관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앉아 그런 지명이 붙었다.

한뢰산, 백석산(白石山) 또는 상산(象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산이 마을을 안고 있다. 이 산의 형상이 코끼리를 닮았는데 기슭에 흰 돌이 유난히 많다. 이 산에는 봉수의 자취가 남아 있다. 《세종대왕실록》 제 148권은 ‘김포 서쪽 20리에 있는 봉수로 남쪽 부평의 축곶산에서 연락을 받아 북서쪽 통진(通津) 약산(藥山) 봉수로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두 곳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 다른 문헌에도 나와 있다. 백석산봉수는 해발표고가 73.6m로 낮은 편이지만 통진 약산의 봉수까지는 이보다 높은 지형이 없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둥굴재산은 동구재산 또는 중구현(中丘峴)이라고 불린다. 한들마을 뒷산으로 형태가 둥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와우산(臥牛山)은 독정마을 뒷산이다. 형상이 누워 있는 소와 같아서 그렇게 지어졌다. 송장이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해서 송장혈이라고도 부른다.

행자산(杏子山)은 둥굴재산 서쪽에 있다. 행주산, 도마매산, 골말산이라고도 부른다.

맹대울 골짜기가 있다. 현재의 백석초등학교 뒤 목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맹대울이라고도 부른다.

각골[角谷]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오늘날의 백석초등학교 북쪽이며, 골짜기가 모가 저서 생김 이름이다.

우골[牛谷]이라는 이름의 골짜기가 있다. 윗독정, 즉 음달말이 들어 있는 골짜기이며 와우산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보인다.

안골이라는 골짜기가 우골 동쪽 능선 너머에 있다.

씽골 또는 소용곡(召容谷)이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다. 오늘날 한진실업고교가 앉아 있다.

오령대골, 오랑대골, 또는 오랑대골이라고 부르는 골짜기가 있다. 씽골 아래 큰길을 따라 길게 뻗은 곳

으로, 백석고등학교가 앉아 있다.

жат굴이라는 고개가 쇠골 북쪽에 있다.

도당재고개는 당산고개라고도 하는데 서곶로에서 한들마을로 넘어오는 도중에 있다. 옛날에 이곳에서 도당굿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당굿은 지금은 지내지 않으나 터는 남아 있다.

종알고개는 종알거리며 넘는다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고개이다. 쇠골에서 거월리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다.

행주고개가 둥굴재산과 행자산 사이에 있다.

이 마을에는 한들 벌판과 한들 부락을 왼쪽으로 보며 독정이를 관통해 김포로 가는 서곶로 도로가 있고, 백석동과 검단동을 구분 지으며 쓰레기매립지로 가는 길, 그리고 한들마을을 왼쪽으로 우회해 김포, 양곡으로 가는 새 도로가 있다.

한들방죽은 이 마을에 부(富)를 가져다 준 보물이다. 이 독으로 바닷물을 막고 간척사업을 하여 한들벌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방죽은 구한말에 시작하여 1919년 송병준(宋秉峻)이 완성하였다고 전한다.

천일염을 생산하던 넓은 백석염전이 이 방죽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 없어졌다. 매립 이전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백석낚시터와 저수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메워지고 없다.

한들방죽 밖에 인포염전(仁浦鹽田)이 있었다. 인천과 김포 사이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이원규)

제2절 검단(黔丹)

1. 연혁(沿革)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포현 토산(土産)편에 “황옥이 현의 서쪽 검단리 애갈산(艾葛山)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거니와 15세기 전반기에는 현 검단지역에 아직 면의 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무렵에 김포현에는 군·현치소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른 리(里)의 편제가 일반적이었으며, 검단면의 편제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면의 명칭은 후대의 기록에 등장한다.

왕명(王命)으로 전국의 가호와 인구를 조사하여 집대성한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방리에 검단면의 관할구역에는, 검단면(黔丹面), 노장면(蘆長面), 마산면(馬山面)의 세 개 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의 편제는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간행된 《김포읍지》들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1530년(중종 25)과 1789년(정조 13) 사이 어느 시기에 아직 리(里)의 규모에 그쳤던 검단리, 마산리, 노장리가 면으로 승격하였으나 기록의 불비(不備)로 승격된 시기를 검증할 수 없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전국의 기존 4,351면을 2,517면으로 줄일 때 위의 검단면·마산면·노장면을 검단면으로 통합해 통진군·양천군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된 김포군에 편입시켰고, 이러한 편제는 광복 이후까지 계속되어 왔다.

1995년 2월 28일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재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 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 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2005년 9월 1일 검단1동이 검단1동(마전 일부, 금곡, 오류, 왕길동), 검단3동(당하동 일부, 원당동)으로 분동(서구조례 제804호) 되었다. 2006년 9월 1일 서구조례 제844호에 의거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4동(당하동 일부, 마전동 일부)으로 분동되었다. 2013년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4항에 근거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1동의 오류동, 왕길동이 검단5동으로 분동되었다.

2. 옛 면(面)의 명칭(名稱) 고찰

1) 검단면(黔丹面)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6세기 전반의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검단리의 ‘검’ 자가 ‘검소할 검(儉)’으로 표기되어 있고, 18세기 후반의 《김포군읍지》에는 ‘검을 검(黔)’으로, 1842년(헌종 8)의 《김포군읍지》의 지도에는 ‘소매 금(衿) 자인 ‘금단면(衿丹面)’으로 문자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 글자를 훈(訓)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차(音借)한 때문이다.

위의 ‘검-금’은 모두 고어에서 ‘금’ 계(系)의 어휘로 예로부터 거의 현대에까지 사용되어왔다. ‘금’은 ‘감, 검, 금’으로 인명, 지명 등에 나타나는 바, 그것은 신(神) 또는 왕(王)에 해 당하는 의미였으니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검(儉)’, 웅녀의 ‘금’은 모두 신화의 주인공으로 신적 존재들이다.

예전의 검단면 판도 안에 있던 현재의 금곡동 ‘씻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란 곳이 있다. 이 마을의 뒷산을 당재라 부르고 그 왼편(서편)을 ‘검데이’라 부르는데 검단 > 검데이로 변전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검단’은 신(神) 또는 존장(尊長)을 의미하는 ‘검’과 ‘곡(谷)’을 의미하는 지명소(地名素)의 결합이다. ‘단’은 고대의 지명표기에서 ‘단(旦), 둔(地), 탄(吞)’ 등의 글자로 표기되었으니 ‘곡(谷)’의 뜻이지만 단순히 지명을 만들기 위한 접미사의 기능도 하여 ‘마을’로 해석해도 무난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이던 ‘단(旦)’계의 지명소가 후대에는 의미가 좋은 글자로 바뀌어 ‘붉을 단(丹)’으로 써서 기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검데이는 고대어의 ‘검’ 즉 신(神)의 의미와 단(旦), 곧 곡(谷)의 뜻이 결합한 단어로 ‘신 또는 존장의 마을’이나 ‘신에게 제사하는 마을’이란 뜻이다. 이 마을의 지명으로 검데이와 당재 사이에 ‘계저’라는 곳이 있다. ‘계(鷄)’는 훈차로 ‘닭’과 유사한 형태인 ‘달’, 즉 ‘높다’의 뜻이며, ‘저(儲)’는 ‘담’의 뜻이므로 ‘제단’ 또는 ‘성’의 뜻이다. 그러므로 ‘계저’는 ‘지존한 제단’ 또는 ‘높은 성’의 뜻으로 추정되므로 천신제를 지내는 제단의 뜻으로 추정된다. 금곡동와 오류동 사이의 넓은 들 중간쯤에 예전에는 갯골이 있어 조수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갯골을 검단개(검당개), 그 갯골로 흘러드는 하천을 검단천이라 부르는데 이들도 모두 씻골의 검데이에 연관된 지명이다. 씻골은 마을이름 그대로 예전부터 금, 은, 동, 철이 매장되어 있었고 광복 후까지 채광했다. 이러한 광물자원은 선사시대에 세력집단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생산물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무기와 장식을 만드는 한편 권력과 부의 상징물이 되기도 했다.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사장은 무당이며 왕에 버금가는 신분의 소유자이므로 검데이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신분의 소유자가 이 마을에서 생산되던 금, 동, 철을 가지고 상당한 권력기반을 누리며 살았으므로 그러한 지명이 남아 있고, 또 그것이 옛 면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마산면(馬山面)

현재 대곡동 황곡에 있는 평산(平山) 신영(申瑛, 1499~1599)의 신도비(1573년 건립)에 이 마을을 김포 '마산리', 대곡동 두밀에 있는 반남(潘南) 박정(朴疔, 1596~1632)의 신도비(1712년 건립)에는 '마산면(馬山面)'이라 새겼으나, 그의 부(父)인 박동선(朴東善, 1562~1640)의 신도비(1707년 건립)에는 김포 '마산리'로 새겨 '마산면과 마산리' 양쪽이 모두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18세기 초에는 마산면(馬山面)으로 편제되었음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방여총지 편에 우리나라 말에 큰 물건 곧 큰 것, 우두머리 등을 '말'이라(東方方言稱物之大曰馬) 쓰고 있는데 이때 '마(馬)'는 훈차(訓借), 즉 '말 마(馬)'의 '말'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거니와 마산면(馬山面)의 '마(馬)'도 위와 같은 뜻이다. '마'는 고어 '말'의 훈차표기로 이러한 뜻의 어휘는 아득한 역사를 가졌으니 고구려 광개토왕 비(碑)에 나오는 성(城)의 이름 '구로모성, 변모로성, 모로성, 고모루성' 등과 같은 예에서 이들 성은 모두 종주성(宗主城)이거나 '두(頭), 수(首)'의 의미로 '마루, 모루, 머리' 등과 대응한다. 고대의 왕명 '마립간', 현대어에 남아 있는 '마룻소, 마루씨름(천하장사)' 등이 모두 고대어 '말'과 연관되는 어휘들이다. 강화도의 '마리산'은 국조(國祖) 단군(檀君)을 제사하는 종산(宗山)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부르며 양촌면 마산리는 선사시대 부족장의 묘인 지석묘가 있는 마을이므로 '마리미(으뜸되는 마을)'라 불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마산면'의 '마산'도 '마리미'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말(馬)과는 관계가 없고 '으뜸되는 마을'이란 뜻이다. 본 마을들은 예로부터 황곡, 두밀의 지석묘, 불로의 제림산 등이 있어 천신제(天神祭)를 지내온 마을임을 알 수 있는 바, 고대국기들은 부족장 또는 왕이 제사장을 겸했으므로 이 일대가 '마산', 곧 '으뜸 되는 마을'이란 의미의 지명을 가진 연유를 알 수 있다.

3) 노장면(蘆長面)

옛 노장면은 현재의 원당, 당하리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했다. 현재 어느 마을에도 노장이란 옛 면의 명칭과 연관된 지명이 남아 있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풀이로는 별 의미 없는 지명이 되고 말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갈대 노(蘆)'의 옛날 훈은 '글'로 15세기 문헌에 '글을 노'라고 한다.(글爲蘆 《훈민정음》용자례), '글로(蘆)'《훈몽자회》와 같은 예가 있다. 뜻으로는 '갈대'지만 노장면의 경우는 음차, 즉 고대어를 한자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옛 지명, 인명표기에서 '글'은 '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장(長)의 새김도 '머리'가 되므로 '노장(蘆長)'을 합하면 '머리', 곧 '큰머리'로 의미가 중첩된 것이다. 따라서 노장면을 고유어로 표기하면 '머리고을'이 되고 뜻은 '큰고을' 정도가 되는데, 원당리(元堂里)는 뒤에서 유래를 설명할 터이지만 하늘에 제사지내는 마을의 뜻이므로 '큰 고을', '으뜸 되는 고을'의 뜻인 노장면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동별 유래

1) 검단1동의 유래

199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재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2006년 9월 1일 검단1동의 완정, 청마를 신설 검단4동에 할애하고, 완정, 청마를 제외한 마전동 일부와 금곡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1동이 되었다.(서구조례 제844호)

2013년 7월 5일 검단5동이 신설될 때, 중전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을 검단5동으로 할애하고, 검단1동은 현재 마전동의 잔여 마을들과 금곡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단1동 소재지는 마전동 685이다.

(1) 마전동(麻田洞)

① 연혁(沿革)

가구수와 인구를 조사해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와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옛 김포군에서 작성한 《김포읍지》들에 모두 검단면의 마전리와 여래리는 각각 독립된 법정리로 존치되어 왔다.



마전동 사진(검단 4거리)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검단면의 마전리, 여래리를 통합하고 법정 마전리로 하여 확대 개편된 검단면에 소속시켜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옛 검단면의 면치소재는 청마였다. 1914년 분리된 1리 여래, 2리 가현, 3리 원현, 4리 능내, 5리 완정, 6리 청마와 1992년 설치된 7리 문현, 8리 방현, 9리 목화, 10리 중동, 11리 장미의 11개 행정리가 있었다.

마전리는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부터 서구 검단1동 소속이 되었다가 2005년 9월 1일 검단1동이 서구조례 제804호에 의거 검단1동과 검단3동으로 분동되었고, 2006년 9월 1일부로 검단1동이 서구조례 제844호로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되었고, 2013년 7월 5일부로 검단1동이 검단1동(여래, 가현, 원현, 방현, 문현)과 검단5동(오류동, 왕길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名稱)

‘마전’이란 명칭은 ‘삼바지’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삼바지’는 ‘삼밭이’에서 변천한 것이다. ‘삼밭이’는 이 마을에서 예전부터 삼(어저귀)을 많이 심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어떤 특산물이 지명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전통이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금곡리의 쇓골이 좋은 보기가 된다. 그러나 옛 김포 관련 문헌에 마(麻)가 생산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김포현 토산은 황옥, 청옥, 송어 등이 있고, 앞쪽에 기록된 용인현에는 마, 사기 등이 적혀 있다. 마가 지명이 되려면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이나 앞의 내용으로 보아 마전은 그 근거가 미약하며, 어디에서도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여래(如來)

① 역사(歷史)

여래에는 나주임씨가 여러 대를 세거해 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연조는 알 수 없다. 원래 옛 검단면의 법정 여래리였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통폐합할 때, 마리로 흡수되어 법정리로서의 여래리는 역사 속으로 묻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검단1동으로 변동이 없다.

② 명칭(名稱)

• 전래의 명칭은 ‘여리’였으나 옛적 이 마을을 지나던 풍수가 ‘여래’로 고치면 마을이 흥하여 잘 살게 될 것이라 해서 고쳤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 이 마을에 살면서 적선을 많이 한 ‘여래’라는 승려를 기리는 뜻에서 그 승려의 이름을 마을이름으로 쓰게 되었다고도 전해온다

• 광개토왕 비문에 한강을 ‘아리수’라 했는데 이는 ‘큰 강’이란 뜻이다. 《삼국사기》에 ‘이산현은 본백제 열야산현(尼山縣本百濟熱也山縣)’, ‘여리산 일운 요령’, ‘여래비리국은 덕은 혹은 갈내’ 등의 예가 있는데 여기서 ‘열야, 여래, 여리’는 모두 대(大), 주(主)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래’ 또는 ‘여리’는 모두 ‘큰 마을’의 뜻인 것은 이 마을이 예전부터 이 일대에 있던 법정리로 으뜸되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③ 소지명(小地名)

- 여래: 검단초등학교의 소재지이다. 옛 면사무소, 파출소도 있었으나 원현으로 이전하였다.
- 골말: 학교 동편 마을로 큰 골 안에 있기 때문에 골말이라 했다.
- 품무골: 검단초교 옆 예전 대장간이 있던 곳.
- 가운데말: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곳.
- 범바위산: 이 마을 진산의 주봉으로서 해발 108m로 ‘큰짜’이라고도 부른다. 이 산의 남쪽 능선에 흰색의 큰 바위가 범바위여서 범바위산이라 했다.
 - 작은짜: 범바위산 동쪽 능선 위의 봉우리로 해발 66.7m의 측량기점 삼각점이 있다.
 - 안산: 사거리로 향하는 길 우편 능내교의 북쪽 산등성이.

• 큰개울: 가현, 능안 양편에서 흘러와 여래 별관에서 합류해 여래 모퉁이를 지나 쇠제로 흐르는 나진 포천의 상류.

- 큰우물: 학교 동편의 우물.
- 큰물: 가운데말 위쪽에 있는 우물.
- 아랫물: 가현으로 가는 길 아래에 있는 우물.
- 하누재고개: 학교 뒷산을 넘어 대곡동으로 가는 고개.
- 동등바위: 작은짜 북동편 기슭에 있는 바위.
- 디리재고개: 여래에서 불로동으로 가는 지름길의 고개.
- 황새모퉁이: 만수산 서쪽 능선부리로 백로, 황새가 많이 앉던 곳.
- 여래교: 불로동으로 향하는 도로가 논들 중간에 이르렀을 때 만나는 다리로 '큰 다리' 라고도 한다.
- 여래보: 여래교 위를 막아 물을 대던 예전 보. 현재는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다.

(3) 가현(歌絃)

① 역사

약 400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순흥안씨, 남원양씨, 전주이씨, 김해김씨, 양천허씨, 평산신씨 등이 여러 대를 세거해왔다고 한다. 옛 문헌에 '가현'이란 마을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가현산이란 산이름이 오래 전부터 각종 지리서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마을임을 알 수 있다. 자연촌으로 예전 여래리에 속한 마을이었던 듯하다. 1995년 3월 1일부터 검단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1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예전부터 '간약골'로 불려왔는데 마을 뒷산인 가현산을 따라 '가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가현산 남쪽 큰 골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현산의 옛 이름 '가린산'을 좇아 '가린골'이라 했으나 이것이 후대에 변이되어 '가련골'로 되었고 다시 음운변화에 의해 '가낙골'이 되었다. 우리말의 변천과정에서 '르-니'은 서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여덟을 야덟이라고 하는 예처럼 가련골 > 가낙골의 변화는 가능하다. 가현산 주변의 마을들에서 '가린산-가는산'으로 써온 것도 앞에서 말한 근거로 양쪽이 모두 타당한 형태가 된다. 우리의 고어에서 '갈'은 '크다'의 뜻이므로 '가린골'은 '큰 골'이란 의미가 되므로 '큰 골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③ 소지명

- 삼복골: 마을 북편 가현산 밑의 서낭당 부근의 골과 그곳 마을.
- 윗말: 덕고개 북서편의 마을.
- 아랫말: 여래쪽의 마을. 양지쪽에 있어 양촌말이라고도 부른다.

- 느티울: 이 마을 서남쪽 편 느티울에 있는 마을.
- 안터: 마을 중간부분의 서편쪽 마을로 예전 순흥안씨가 터를 잡았다 하여 안(安)터라고도 한다.
- 가현산: 검단면 내의 제1봉으로 해발 215m, 현용(現用) 각종 지도, 지리 서적에 가현산의 한자표기가 가현산(歌鉉山)으로 되어 있으나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 옛 김포관계 역사, 지리에 거문고 현(絃)자를 쓴 가현산(歌絃山)으로 일관되어 왔다. 지금까지 잘못 써 온 한자표기를 정정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사자봉: 보통 '작은가현산' 이라고 부르는 가현산 주봉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약 1km 정도에 있는 봉우리로 해발 170m의 높이.
 - 장산: 사자봉 줄기 남쪽 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102m 높이의 산.
 - 안산: 여래 뒷산인 범바위산의 서북쪽 줄기. 진산, 좌청룡, 우백호와 함께 명당의 요소.
 - 망절미: 장산의 동쪽줄기, 미(未)를 한자로 썼으나 '뫼 > 메 > 미' 로 변천해온 산(山)의 고어일 듯하다.
 - 당산: 원현 · 여래 간 도로 북편의 산줄기로 예전에 당제를 지내오던 곳.
 - 지진달: 당산 북편의 능선, '달' 은 '산' 의 뜻을 가진 북방 고구려계의 어휘로 매우 희귀한 존재다. 현대어에 남아 있는 예로는 '달암쥐 > 다람쥐' 를 들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산쥐' 이다.
 - 재네미: 당산 남서편 사거리 쪽의 산.
 - 수리펀데이: 망절미 북편의 산기슭으로 수리가 많이 앳던 곳이라고 한다. '수리' 라는 단어가 높다 는 뜻이므로 높은 곳에 있는 펀더기라는 의미도 된다.
 - 동그랑산: 안터의 북편에서 동남향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 서낭당고개: 금곡리 신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황굴고개: 이 마을과 황곡을 왕래하는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다.
 - 덕고개: 이 마을과 태정을 왕래하는 고개로 옛적 어느 생원이 이 고개 근처에 살면서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한다.
 - 말무덤: 장산의 서편 산록에 있는 큰 무덤으로 대개 고분(古墳)인 경우가 많다. '말을 묻은 무덤' 이라 전해지는 마을이 간혹 있으나 '말' 은 '크다' 는 뜻으로 '말거머리, 말매미' '말벌' 등에 들어 있는 '말' 이 '크다' 인 것과 같다.
 - 부엉바위: 사자봉 동편에 부엉이가 깃들던 바위.
 - 으래이: 가현산 남록(南麓)의 끝부분.
 - 망해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가현산에 있고 경치가 경기도의 현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기록된 가현산 남쪽 기슭에 있던 망해사의 터.
 - 막바지: 이 마을에서 가현산 쪽으로 향한 길의 끝부분.
 - 옥돌광산: 덕고개 북쪽 산줄기에서 대리석을 캐던 곳.

④ 전설

• 장산전설: 양촌말 앞에 연못이 있고 그 뒤에 안동김씨네의 묘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부관참시(剖棺斬屍: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의 목을 치는 형벌)의 벌을 받게 되어 묘를 파헤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닥쳐 며칠을 두고 파도 일을 끝낼 수 없었다. 지나가던 풍수가 '팔 수 없다' 하며 이르기를 “노루가 많은 앞산에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말려라. 그러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말리려면 그 연못에 뜬 바가지를 뒤집어라. 그러면 물이 마를 것이고 바닥에는 고인(故人)이 용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하여 그대로 하니 풍수의 말대로 됐다고 전해온다.

• 사자봉의 부안임씨 시조 묘비: 모처에 살던 나주임씨가 사자봉 밑에 부안임씨 시조 임춘(林春)의 묘비가 있다는 전설을 듣고 그 묘비를 몇 년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지나던 풍수가 하는 말이 “못된 사람이 연못에 넣었다.”하여 연못속을 뒤지니 과연 부안임씨 시조의 묘비가 있었다. 임춘은 고려 때의 문장가였다.

(4) 원현. 문현. 방현. 목화아파트지구

① 역사

보통 검단사거리라 불려온 이 마을은 6·25전쟁 이전에는 한적한 마을이었으나 종전 후 공산확정을 피해 남하한 실향민 몇 세대가 본격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해 살아오던 중, 검단면사무소, 파출소, 검단중학교 등이 이전, 신설되어 규모가 점차 커졌고, 최근에는 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규모가 폭발적으로 방대 해져 가고 있다. 1992년 이후 공동주택촌이 속속 행정리로 분리된 것이 이 마을의 변천사를 대변한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 이후 검단 1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원현이란 역원(驛院)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역원은 조선 세조 때부터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일종의 여관으로 역제와 같이 각 도(道)로 통하는 길목이나 인가가 드문 곳에 세워 행려에 편하도록 배려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1454년(단종 2)의 《세종실록》 지리지,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 1864년(고종 1)의 《대동지지》에는 김포군·현에 역이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1530년(중종 25)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정호의 《동국여지지》 김포편의 우역난에는 각각 광인원(廣仁院)이 기재되어 있고, ‘현의 서 시오리에 있다’고 했다.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 의 기사 중에는 ‘역원 무’라고 되어 있으나 조정에 올린 지도에는 검단면지역에 ‘과일원’이라 적혀 있다. 앞의 광인원과 과일원의 일치 여부가 문제이나 역원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봉화촌의 북쪽 끝은 검단개라 불리는데 예전 제방이 없던 시절 김포·강화 간의 나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선하러 가던 길손들이 이 마을을 거쳐 김포읍 방면으로 통행했다고 한다.

또한 원터라고 구전되어온 것이 있고 그곳에서 옛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므로 역원이 있

었다는 방증이 된다. 옛 통진부에 있던 종생역은 문현에도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좋은 대조가 된다.

역참(驛站)은 고려시대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7년(선조 30)경 변방의 군사정세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파발망(擺撥網)이 전국적으로 조직, 강화됨에 따라 말을 타고 전하는 기발(騎撥)은 25리마다, 걸어서 전하는 보발(步撥)은 60리마다 1참(站)을 설치하여 기발은 참마다 발장 1명, 군정 5명 및 말 5필을, 보발은 발장 1명과 군정 2명씩을 두었고, 참점(站店)이 있어 공용출장자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우리가 보통 ‘한참 가야 한다.’는 말을 써왔는데 이 말이 ‘참과 참 사이’ 곧 25리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③ 소지명

- 월현: 중심되는 마을로 검단사거리라 해왔다. 여래로 넘어가는 고개도 같은 이름이다.
- 방현: 월현에서 가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우측의 아파트촌.
- 목화: 원미아파트 서편에 있는 아파트촌.
- 중동: 목화, 장미아파트의 북편에 있는 아파트촌.
- 장미: 중동, 방현아파트 사이에 있는 아파트촌.
- 원미: 목화아파트 남쪽의 아파트촌.
- 문현: 문고개 아래의 마을.
- 방아재고개: 월현고개 정상에서 여래 방향으로 내려가서 고개의 아래 부분.
- 문현: 보통 문고개라 부르는 완정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임진왜란때 적을 무찌르는 성문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온다.
- 약수터: 문고개 아래 서편 절 부근에 있는 약수터.
- 버들우: 305번 도로와 왕길동으로 통하는 도로 사이의 도자기공장 앞쪽.
- 학굴: 사거리에서 왕길동으로 나가는 도로 왼편의 산밑 일대.
- 갈머루: 사거리에서 왕길동으로 향하는 아파트 입구의 산부리 일대.
- 돌케: 갈머루에서 서북의 산부리.
- 원터: 옛 파출소 부근에 있던 예전 원터라고 전해오는 곳. 유물 파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 원너머: 신촌사료공장 뒤편.

④ 전설

• 정조문(貞操門): 옛날 원현마을은 원(眞)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하루 정도는 묵고 가는 곳으로,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이 이 마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꿈에 산발머리에 흰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나타나 ‘억을 하게 죽은 원한을 갚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원 뜰에 암매장된 유골을 양지바른 곳으로 후히 이장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꿈에서 깬 원은 즉시 사람을 시켜 뜰에서 유골을 파내 양지바른 언덕에 안장해 주었다. 그날 밤에 꿈에

처녀가 다시 나타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다음날 원은 그 처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조사한 결과 어느 한량이 그 처녀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모진 매를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처녀는 비록 기생이었으나 정혼한 남자가 있어 끝까지 정조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원은 기생의 한을 풀어주고 정조문을 세워 그 뜻을 기렸다고 한다.

(5) 능내(陵內)

① 역사

약 450여 년 전 남양홍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후손들 20여 호가 세거하고 있다. 예전 문헌에는 법정리, 또는 자연촌으로서의 능내는 기사화된 것이 없어 변천과정을 상고할 수 없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 이후 검단1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전래의 지명은 '능안'이었거니와 이 마을에서 완정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완정과의 마을 경계에 가까운 오른편 산골짜기를 능안이라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능안 골짜기 안에는 고분 2기(基)가 있고 그중 하나가 강릉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수산 서편에 능이 있다고 전해오기도 해서 확실하지는 않다. 능안 골짜기 주변에는 망부석을 비롯한 석물들이 파손된 채 흙속에 묻혀 있다. 또한 능안 앞들의 논을 제청배미라고 불러온 바, 제청이란 장사지낼 때 무덤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장소로 이곳에 제청을 차렸던 장소라는 의미가 된다. 전설과 흡사한 내용으로 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에서 고증할 수는 없다.

③ 소지명

- 능내: 예로부터 능안이라 불러오는 마을로 문화재유적총람에 관리번호 0322-30-012로 등록된 고분이 있으나 그 책에는 흔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논모루: 능안의 동편 마을로 만수산의 서편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모루란 말은 고어에서 머리와 같은 의미를 가진 낱말로 마루, 모루, 머리 등의 여러 어형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높다'의 의미를 가지나 이 마을의 경우 한자어로 답두리(答頭里)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논머리에 있는 마을의 뜻이다.

- 대곡: 사거리와 여래간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면서 오른편의 큰 골과 그곳에 있는 마을.
- 장자골: 대곡 다음의 골에 있는 마을로 여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다.
- 소곡: 장자골 다음의 골에 있는 마을.
- 능안: 소곡 다음의 골로 이 마을 전체의 지명이 유래된 곳.
- 약천골: 능안에서 완정 쪽으로 산모퉁이를 돌아 우편에 있는 골.
- 섬들: 여래 방면으로 향하는 마을의 도로와 시내 사이에 있는 논.
- 신나무들: 논모루 앞의 들. 신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그 들썩에 신나무가 있었기 때

문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강서방들보: 논모루에서 완정 쪽으로 가로질러 막았던 보.
- 푸무골: 논모루에서 갈산마을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는 마을. 풀무골 > 푸무골로 변천한 것이므로 예전에 대장간이 있던 곳인 듯하다.
- 한백륜 묘: 이 마을에 있는 예종의 부마 양혜공 한백륜(1427~1474)의 묘.
- 보안: 완정과 갈산쪽의 시내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상류쪽을 예전에 보로 막았기 때문에 그 안쪽이라는 의미.
- 제청배미: 능안골 앞, 도로 아래 편에 있는 논으로 예로부터 제청배미라 불러왔거니와 제청이란 장례때 산역을 하는 동안 초막과 같은 시설을 하고 임시로 관을 모시고 조문을 받고 제사도 지내는 곳이다. 예전 능을 조성할 때 이곳에 제청을 마련했었다고 전해온다.
- 작은만수산: 만수산 서쪽 능선에 있는 작은 봉우리로 해발 55m 정도.
- 강릉고개: 논모루에서 여러 방향으로 황새모테이쪽으로 난 고개로 강령고개, 강정고개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의 능이 강릉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했다고 전해온다.
- 황새모테이: 작은 만수산의 서편 능선부리로 예전에 황새, 백로 등이 많이 서 했다.
- 재너머: 대곡에서 북편 산너머 일대.
- 방아재고개: 원현고개의 동쪽 시작 부분.
- 삼거리: 346번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분기점.
- 건너말다리: 논모루로 건너갈 때, 들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위의 다리.

(6) 금곡동(金谷洞)

① 연혁

방리(坊里: 면, 리)가 기록된 현전 최고의 문헌인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현 금곡동 지역에 있던 법정리는 당시 검단면 소속의 신리, 금곡리, 좌동리가 편제되어 있었으나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집필된 《김포군읍지》 등에는 모두 좌동리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곡리의 일부를 양촌면에 이관하고 금곡리, 좌동, 신리를 합하여 법정 금곡리로 편성하여 마산면·노장면·검단면을 병합하여 탄생된 검단면에 소속시켰고, 당시에는 1리 금곡, 2리 좌동, 3리 신동으로 구분하였으며 1989년 4리 원미를 신설하였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법정 금곡동이 되었다.

② 명칭

금곡리는 예로부터 쇧골로 불려왔다. 금곡리 산 400번지 일대를 ‘동은터’라 부르는데 예로부터 금, 은, 동을 채광해왔고 1950년대 말까지 철을 캐으나 광석의 고갈로 이미 폐광된 곳이다. 금곡리는 위와

같이 광물이 매장된 마을의 뜻인 ‘씻골’을 한자화한 지명이다.

(7) 금곡(金谷)

① 역사

약 400여 년 전 장수이씨가 입향하여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현재 50여 호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세거하고 있다. 옛 문헌들이 모두 검단면 금곡리로 기록했던 오래된 마을로 금곡리 전체의 으뜸되는 마을이다.

검단동의 23통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쇠가 나므로 씻골이라 했고 한자로 금곡(金谷)이라 표기한 것이다.

③ 소지명

- 큰말: 금곡에서 중심부에 있는 마을.
- 작은씻골: 큰말 서편 능선너머에 있는 마을로 계저 아래가 된다.
- 사자봉: 가현산의 서남쪽 줄기로 이 마을의 진산이며, 해발 170m, 일반적으로 작은 가현산이라 부른다.
 - 안산: 마을의 동남편에 있는 산으로 늦틀 또는 느틀산이라 부른다. 진산, 안산, 좌청룡, 우백호는 명당의 네 요소가 된다.
 - 당재산: 큰말 북편에 있는 산으로 당제를 지내던 산.
 - 모범산: 마을 동남편에 있는 산으로 소나무가 잘 가꿔진 곳이어서 모범림으로 불렸다.
 - 비늘고개: 큰말에서 서북편으로 넘어가는 고개. 검데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빌고개’가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재너머: 큰말에서 북편으로 향하는 고개.
 - 동은터: 주로 금과 철을 채광하던 ‘금곡리 산 200번지’ 일대. 마을의 지명이 유래된 곳.
 - 검데이: 마을 서북편에 있는 큰골. ‘검단이> 검데이’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 신(神) 또는 왕’의 신분에 해당하는 칭호이며, ‘단(壇) + 이(접미사)’는 ‘당’이 있는 곳의 의미이므로 ‘천신제를 지내던 곳’을 나타낸 지명일 것이다. 앞의 검단면의 유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곳이 검단면이란 면의 유래가 된 곳으로 추정된다.
 - 계저: 한자의 해석으로는 ‘달의 단’ 정도의 뜻이지만 전해오는 유래는 분명치 않다. 보통 ‘제줄’이라고도 부르는데 ‘계골 > 계굴 > 제줄’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의 한자표기는 우리말과 일치할 수 없으므로 음과 훈을 필요에 따라 표기했다. 본 계저도 ‘달’이 아닌 ‘달’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달’은 ‘높다’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계저는 ‘높은 단’의 뜻이고 이외에 신의 의미를 표상하기

도 했다. 결국 ‘높은 단’은 ‘신에 제사하는 제단’의 뜻이므로 앞의 ‘검데이’와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

- 불당골: 큰말 앞에서 북쪽으로 치달은 골로 그 위에 예전에 절이 있었다.
- 검단천: 신동 쪽의 시내와 쇯골의 시내, 원현 쪽의 시내가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한다. 이 시내를 검단천이라 부르는 것도 검데이 즉 ‘검단’에서 유래한 듯하다.
- 고괘: 불당골 아래쪽의 큰 골 전체.
- 바라소리: 동은터 앞의 작은 골.
- 낫틀: 안산 동편 마전동과의 경계지역.

④ 특기사항

이 마을은 가현산 남쪽에 아늑한 골에 자리 잡은 마을로 예전부터 금, 동, 철을 캐던 것에 연유해 쇯골이라 불려왔다.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기원 무렵까지를 청동기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구리의 합금인 청동으로 제의용구나 무기를 만들어 주로 부족장의 신분을 상징하는 데 이용되었고, 철기시대에는 철을 달구어 두들겨 펴서 무기나 생활용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에도 부족장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다. 대곡동 두밀, 황곡, 김포시의 양촌면 마산리는 옛 부족장의 묘인 지석묘가 있는데 이들 마을이 본 쇯골과 멀지 않다. 쇯골의 검데이, 계저 같은 예전 천신제를 지내던 곳, 또 앞에 든 이웃마을의 지석묘 등은 가현산 주변의 마을들이 이 마을에서 나던 동, 철을 사용해 경제력을 쌓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8) 좌동(佐洞)

① 역사

약 350여 년 전 평산신씨가 입향하여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현재 10여 호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당시 검단면 소속의 법정리로 좌동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문헌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1789년 이후부터 1842년(헌종 8) 《김포군읍지》 발간 이전 어느 시기에 법정리에서 제외된 듯하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금곡리 소속의 행정 금곡 2리가 되었고, 1991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24통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예전 남원양씨의 선조 터 왼편에 집을 짓고 마을이 형성돼 좌동이라 했다고 한다. 또는 마을의 형국이 왼손을 편 모양이어서 좌동이라 했다고도 한다.

다른 설로는 예전의 마을이름은 자하동이라 했는데 이 지명이 ‘좌동’으로 변한 뒤, 마을의 형국이 왼손을 편 것과 같다는 것을 안 망해사 주지가 ‘왼 좌(左) 자에 ‘사람 인(人)’을 붙여야 마을이 번성할 것이

라 해서 그의 말대로 ‘도울 좌(佐) 로 고쳐 좌동이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대국어에서 성(城)을 ‘자’라고 했다. 이 마을에 ‘성틀마루데기, 둔전틀’이란 지명이 있으므로 ‘자동(성이 있는 마을)’이 ‘좌동’으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소지명

- 넘말: 좌동마을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
- 아랫말: 넘말의 남쪽편에 있는 마을.
- 달안골: 넘말의 북편 마을. ‘달(達)’은 고대어에서 높다 뜻이었다. 집안의 다락도 방보다 높은 곳 이면서 안방에 딸린 일종의 창고와 같은 것으로 ‘달(높은곳) + 악(접미사)’으로 된 말이다. 본 ‘달안골’은 묘각사 입구 부근 일대로 아래쪽의 본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는 마을(골)이라는 뜻이다.
 - 안골말: 넘말의 서편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
 - 김산골: 안골말의 남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
 - 매봉재: 좌동 동북편에 있는 산.
 - 두리봉: 능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둥글게 생겼다.
 - 관오봉: 김산골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해발 44m의 산.
 - 안산: 아랫말 남쪽에 있는 봉우리 해발 35m 정도. 안산은 진산(주산)과 마주보며 좌청룡, 우백호와 함께 명당의 요소가 된다.
 - 길산: 마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줄기미라고도 부른다.
 - 성틀마루데기: 좌동마을에서 남북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를 이르는 명칭. 예전에 성이 있었다. 그 서 편 끝 쪽을 ‘성틀너머’라고 부른다.
 - 좌동저수지: 김포시 양촌면과 경계에 있는 저수지.
 - 비늘고개: 쇓골에서 좌동으로 넘어오는 길산 북쪽 305번 도로의 고개.
 - 안골말고개: 넘말과 안골말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
 - 개수잇고개: 좌동에서 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묘각사 입구 도로와 분기점.
 - 뱀미: 안골말 서남편의 산부리. 와미, 즉 개구리 꼬리는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하므로 산부리가 매우 작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
 - 새능: 능골에 있는 능선으로 예전에 애기능이 있었다고 한다. 고분이 있었으나 도굴당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 둔전(屯田)틀: 좌동 동쪽에 있는 논으로 예전의 ‘둔전’, 즉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양곡을 현지 조달 하기 위해 조정에서 지급한 전답’. 군사요충지에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평상시에는 군사가 둔전에서 자신들의 양곡을 스스로 조달하였다. 1451년(문종 1)에 간행된 《고려사》 권81 병제편에 “경군은 감문위에 속하고, 외군은 촌에 속했는데 2, 3품 군이 주둔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니와 지방의 작은 마을 인 촌에 있는 성을 지키는 병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 성이 있었으므로 둔전이 있는 것은 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 검단개: 좌동과 오류동 사이에 있는 개. 검단천의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이다.

④ 속담

이 마을 동편 능굴은 가현산 서남쪽의 큰 골이어서 오랜 가뭄에도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인근에서 제 일가는 옥답으로 알려졌다. 외지인을 만나 통성명을 하고나면 “좌동 살면 능굴논이나 하는가?”라고 묻곤 했다.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남을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는 말이 된다.

⑤ 특기사항

김포시 양촌면과 접하고 있는 이 마을은 305번도호가 지나 교통이 편리하여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다. 성틀마루테기, 둔전틀이 있는 것을 보아 예전 가현산 서쪽의 관문이었던 듯하다.

옛 문헌에 광해군 때의 은사 양진룡이 노닐 던 ‘사송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터조차 확인할 길 없다. 또 효자 양익선의 효자정려와 임진왜란 때 충신 양지의 충신 정려가 이 마을에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들도 소실되었다.

(9) 신동 · 원미

① 역사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에 살던 전주이씨가 이 마을에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후손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1789년(정조 13) 이후 옛 검단면의 법정 신리로 존치되어 오다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법정 금곡리의 3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25통(1개 반), 26통(2개반)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으로 변경되었다.

② 명칭

신동은 새로된 마을이란 뜻으로 대포리에서 이 마을에 이주해 와서 새로 마을을 개척했으므로 새말이라 불려왔는데 이를 한자지명 신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1789년 이후부터 일제가 법정리를 폐지할 때까지 신리로 불렸다. 신리도 새로 된 마을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생긴 마을은 아니며, 기록상으로도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름이다.

③ 소지명

- 새말: 신동의 마을로 한자지명은 신리, 신동이 같이 쓰였다.
- 넘말: 새말의 중심부에 있는 마을.
- 안터말: 새말의 서쪽 마을.

- 안산: 마을 남쪽에 있는 봉우리로 해발 80m. 예전 벼락을 맞은 산이라 해서 벼락산으로도 부른다.
- 서낭당: 가현산과 사자봉 사이 고개마루에 서낭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곳의 고개를 서낭당고개로 부르는데 가현과 왕래하는 고개이다.
- 좌동고개: 신동과 좌동을 가르는 305번 도로의 고개. 개수잇, 개수깃고개라고도 한다.
- 바른고개: 새말과 안터말 사이에서 필봉산 오른쪽으로 넘는 고개.
- 묘각사: 마을 동편 가현산에 있는 절.
- 행절: 마을 앞에 있던 절로 회양사라고도 했으나 소실되었다.
- 큰우물: 마을에서 묘각사 방향에 있는 우물.
- 안산개울: 묘각사쪽에서 발원한 시내로 좌동저수지로 흐른다.
- 가산우물: 넘말 앞의 우물.
- 만천에골: 옛 행절 북쪽의 넓은 골. 옛날 난리통에 만 명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 달리 전하기로는 왜 적과 싸우려 그 골에 운집한 조선관군이 만 명이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 큰우물골: 묘각사에서 시작해 이 마을 앞으로 통하는 큰 골.
- 삼태굴: 마을 남쪽 안산에 있는 삼태모양의 굴. 그 동편의 굴은 '웃삼태굴', 서편은 '아래삼태굴' 로 부른다.
- 안산미: 안산의 꼬리로 안산 서편의 능선 끝부분이며 그 동편 능선은 개수기.

2) 검단2동의 유래

199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재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로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 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 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2005년 9월 1일부로 검단3동이 신설될 때 원당동을 검단3동에 할애하고, 법정 불로동과 대곡동으로 검단2동으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센터는 불로동 313-13에 있다.

(1) 불로동(不老洞)

① 연혁

황곡에 있는 평산 신영의 신도비(1573년 건립)에는 '마산리'란 명칭이 보이고, 두밀에 있는 반남 박정(朴正)의 비(1712년 건립)에는 '마산면'으로 새겨져 있다. 1789년(정조 13)에 국가사업으로 호구를 조사해 집대성한 《호구총수》에서부터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김포군이 왕명에 따라 작성해 조정에 보고한 《김포군읍지》 등에 따르면 현 불로동 지역은 마산리, 불로리가 법정리로 존치되어 왔다. 따라서 앞의 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산리로 16세기 후반까지 설치되어 있다가 18세기



검단2동 사진(불로동)

초엽 이전의 어느 시기에 마산면으로 승격되었다. 이로 볼 때 불로리는 마산리의 자연촌이었다가 마산리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불로리로 승격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록의 뒷받침이 없어 밝힐 수 없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호구총수》 시대 이후로 법정리였던 불로리와 목지리를 법정 불로리로 통합하고 1리 불로, 2리 목지, 3리 갈산으로 행정리를 구분하였고, 1985년에는 불로에서 마산을 분리하여 4리로 설정하였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법정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2동의 불로동으로 편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동소재지는 불로동 168에 있다.

정부에서 2007년 6월 29일 불로동, 당하동, 원당동 일원의 토지 11,239,000㎡, 호구 6만 6천 세대의 신도시로 지정하여 현재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일부와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예전의 농촌지역 모습은 사라져가고,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옛 지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형태로든 보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한편 불로동 일부, 마전동, 대곡동을 포함하는 검단2지구 택지개발계획은 2010년 5월 10일에 지정되었다가, 2013년 3월 7일에 지정이 취소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다.

② 명칭

불로동의 지명에 사용된 한자표기는 이곳에서 예전부터 천신제를 지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그러한 현상을 지배하는 힘은 하늘에 있다고 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늘에 기원했다. 5월 농사를 시작하기 전과 10월 추수가 끝난 후 각각 하늘에 제사하면서 풍요를 기원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를 지냈던 것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늘 즉 광명과 흑암의 주재자인 ‘신’을 신봉하는 세계관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던 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마을에 따라 당제나 유사한 제를 지내고 있으며, 과거의 전통이 지명 속에 남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신앙관을 ‘불 사상’이라 불렀다

‘불’은 ‘밝다’의 고어로 하늘이 만물을 주재하는 절대자임을 믿었던 조상들의 사고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여러 형태의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이름으로 사용되었거니와 우리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한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표기가 현재까지 전해지기도 하고, 한자를 좋아하던 조상들이 의도적으로 고유지명을 한자로 표기해 전해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것과 음이 유사한 한자들인 ‘불(不), 백(白), 발(鉢), 팔(八), 벽(碧)’ 등과 함께 불은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의 명칭으로 남아있다.

본 불로동에는 목지와 사이에 제향산이란 해발 128.3m의 산이 있다. 물론 요즘에는 산신제를 이 산

에서 지내지 않지만 산의 이름이 제와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에는 천신이 쉽게 하강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을 택해 제단을 쌓고 기원을 했던 것이므로 당연히 제향산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로동도 앞에서 설명한 ‘불’ 계의 지명으로 예로부터 천신제를 지내왔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지명인 것이다.

(2) 불로 · 마산(馬山)

① 역사

이 마을들은 남평문씨의 집성촌으로 지금부터 약 450년 전, 문이길이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 36가구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조 말까지 마산면 불로리였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통폐합할 때 새로 탄생한 검단면 불로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2동의 5, 8동이 되며 동시에 9동 동부아파트, 10~13동 월드아파트, 14~15동 신명아파트, 16~17동 동성아파트, 18~19동 길훈아파트, 20~21동 백두아파트로 통이 신설되었다.

② 명칭

‘불로’는 앞의 내용과 같고, 마산은 ‘큰산’이라는 뜻이다.

③ 소지명

- 사당머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346번 도로 아래편에 있는 마을.
- 아랫말: 불로리의 북쪽 부분에서 길 아래쪽의 마을.
- 안골: 불로리 마을에서 쇠제산 방향을 향하여 터진 골에 자리 잡은 마을.
- 왜물: 마산편의 마을로 수령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는 마을.
- 마산: 마산(해발 55m 정도) 서편의 마을.
- 제향산: 마을 동편 목지와 사이에 연봉으로 이루어졌다. 해발 128.3m의 측량 기점인 삼각점이 있다.
- 당산: 마을 동북편에 있는 해발 59m의 산으로 당제를 지내던 산.
- 뒷골: 당산 북편의 골과 그 앞 일대이며 서쪽으로 돌아가는 곳을 뒷골모퉁이라 한다.
- 불로교: 김포시로 향하는 여우재고개 밑의 시내(목지천) 위의 다리.
- 서낭다리: 불로교에 이르기 전 산모퉁이에 관으로 매설한 다리.
- 방정굴: 제향산 서편의 골이며 그곳의 우물은 방정굴우물이라 부른다.
- 말무덤: 불로와 마산 사이에 있는 긴 산부리. 형상이 긴 무덤과 같아 큰 무덤의 뜻인 말무덤이라 부른다.
- 고산뒤고개: 원당동의 고산 뒤와 왕래하는 고개.

- 방아다리: 불로와 갈매울을 오갈 때 건너는 다리.
- 디리재고개: 여래를 질러갈 때 마을 앞산을 넘게 되며, 이때 넘는 고개를 디리재고개라 한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오리나무모퉁이: 쪽다리 건너 산 밑에 예전에 오리나무가 있어서 그렇게 불려왔다. 이 모퉁이를 돌아 여래로 간다.
- 쇠제보: 안골 산부리에서 들 건너편 쇠제산으로 질러 막던 큰 보.

(3) 목지

① 역사

확실한 연조는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의 선거인은 남원윤씨였다고 한다. 남원윤씨 거주 초기에 심었다고 하는 600여 년 된 향나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약 150여 년 전 원당동에서 풍산김씨가 입향하여 세거해오고 있다고 한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집필된 《김포군읍지》 등에 계속 마산면 소속으로 목지리는 법정리로 있었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정리할 때 갈매리와 함께 불로리에 흡수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서구 검단동의 16통,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2동으로 변경되었다.

② 명칭

옛날 이 마을에 ‘당’이 있었는데 당 뒤에 있던 나뭇가지가 당을 덮었다 하여, 또는 이 마을이 지형적으로 ‘중요한 길목’이라서 목지라 했다고 한다.

목지의 ‘가지 지(枝)’는 ‘산제(山祭)이름 기(枝)’로도 쓴다. 분명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마을에 당이 있었다는 구전과 불로와 이 마을 사이에 있는 제향산은 그 이름이 말하듯 산신제를 지내던 산이므로 목지란 명칭은 산신제와 관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목지’는 ‘산신제를 지내던 나무’, 즉 ‘당목의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목이 있는 마을’의 뜻으로 추정된다.

전래의 지명은 ‘된계기, 똥계기’라고 하는 바, 이 마을과 원당동을 왕래하는 금정산 서쪽 고개가 높고 험해서 다니기 힘들다는 뜻으로 ‘된고개’라고 했고,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된고개마을’로 불리오다가 ‘된고개 > 똥계기, 계기’로 변한 것이다.

③ 소지명

- 양지말: 목지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양지편에 있어서 양지말이라 부른다.
- 건너말: 양지말 동남쪽 신방축고개쪽의 마을.
- 음지말: 금정산 북편 음지에 있는 마을.
- 당재: 음지말 뒤편 예전에 당재를 지내던 곳.
- 신방축고개: 목지와 독자골을 왕래하는 고개.

- 능고개: 이 마을에서 장릉으로 넘어가는 늘어진 고개.
- 수탕고개: 고산 뒤와 이 마을을 왕래하는 고개. 고산 뒤에서는 숫당고개, 실당 고개라고 부른다. 이 고개가 바로 이 마을의 지명이 된 '된고개'이다.
- 이방굴: 수탕고개로 통하는 계곡.
- 방장굴: 제향산의 북편에 있는 계곡.
- 원터물: 마을 입구쪽에 있던 우물.

(4) 갈산(葛山)

① 역사

이 마을은 약 400여 년 전 평택임씨 지간이 입향하여 형성되었고 현재 10여 호의 평택임씨가 세거하고 있다. 마산면 갈매리라 불려왔으나 1914년 검단면 불로리에 통합되어 불로3리 갈산으로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17통,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2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마을의 주산인 '만수산'에 예로부터 유난히 칩이 많아 '칩 갈(葛)'자를 써서 '갈산'이라 해왔다. 이 마을의 전래 명칭은 '갈메울'이거니와 그 의미를 '갈산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갈'은 고어에서 '크다, 높다' 등의 의미를 가졌으니, 옛 면의 명칭인 노장면이 그 예다. 검단동의 제일봉인 가현산의 한자표기가 1530년(중종 25)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842년(현종 8),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 등에는 '노래 가(歌)'로 되어 있지만 김정호의 《동국여지지도》의 통진부 편에는 갈현산이라 되어 있고, 현재도 가현산 주변 마을의 주민들은 가현산보다는 '가린산'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국가 중에서 '가라, 가락' 등이 모두 왕국이므로 앞의 뜻과 같고 《삼국사기》 지리지4에 나오는 산의 이름 '가을산, 가리산, 가랑악' 등이 모두 '갈'을 표기한 것으로 '고(高)'의 뜻이다. 그러므로 '갈메울'은 단순히 '칩이 많은 마을'에서 '높은 산이 있는 마을'의 뜻이 된다.

③ 소지명

- 건넌말: 마을 앞산자락 도로변에 있는 마을.
- 만수산: 이 마을의 진산으로 해발 98m이며 불로동의 지명전설을 잉태한 산.
- 도당산: 만수산 앞줄기로 시월 초이튿날 산치성을 드리는 산.
- 불로리고개: 마을 뒷산 오른편(동편) 능선을 통해 불로동을 왕래하는 고개.
- 만수산우물: 만수산 줄기의 동북편에 있는 약수터.
- 동화시: 갈산에서 목지로 가는 고개 밑의 골.
- 셋굴: 동화시와 고갯길 사이에 있는 골.
- 고산뒤고개: 갈산과 고산 뒤를 왕래하는 고개.

- 용다리: 고산뒤고개 우편의 골.
- 안산: 이 마을의 안산으로 청마 뒤산.
- 왕굴: 건넌말 뒤편의 큰 계곡.
- 번터굴: 왕굴 서편의 골.
- 갈산보: 현재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는 쪽으로 예전에 보였다. 강서방들보라고도 부른다.
- 가재우물: 마을 앞논에 있는 우물로 현존하며 예전에 가재가 많았다고 한다.
- 푸무골: 마을 서편의 작은 골. 풀무골 > 푸무골로 변천한 말로 대장간이 있는 곳에 붙이는 지명이다.

(5) 대곡동(大谷洞)

① 연혁

1573년 건립된 황곡마을 소재 평산(平山) 신영(申瑛)의 신도비문에 이 마을의 소재지를 김포 '마산리'라고 했다. 16세기 후반까지 이 지역은 자연촌에 지나지 않았다. 1712년 두밀에 세운 반남(潘南) 박정(朴正)의 신도비에는 김포 '마산면'이라 했으므로 18세기 초 이전 어느 시기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고, 따라서 법정리로 편제됐을 것이지만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검단2동 대곡동(태정과 가현산 원경)

방리(면. 리)가 기록된 현전의 최고(最古)의 문헌은 1789년(정조 13)에 왕명으로 간행된 《호구총수》이 거니와 그 김포군편에 비로소 마산면 대곡리와 서원리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가 1842년(헌종 8)에 간행된 《김포군읍지》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1871년(고종 8)에 집필된 《김포군읍지》에는 두 개 리(里)를 합해 대곡리로 하였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혁한 결과를 기록한 월지유철의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1914년 3월 1일 '대곡리와 두곡리'를 합하여 '대곡리'를 설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조선조 말 행정구역 통폐합을 기록한 문헌으로 을미개혁(1895)의 결과가 반영된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가 있지만 내용이 1842년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현재 두밀에 있는 당씨(唐氏)의 정렬비에 '두곡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편제 시기는 알 수 없다. 1871년 이후 어느 시기에(아마 1895년일 것이지만) 설치했던 '두곡리와 대곡리'를 1914년 병합하고 '대곡리'로 하여 마산면·노장면·검단면을 통합해 확대 편제된 검단면에 소속되었고 1리 태정, 2리 두밀, 3리 황곡, 4리 설원으로 편성하였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법정 대곡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2동의 법정 대곡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10년 5월 10일부로 불로동 일부와 대곡동 일원을 검단2지구신도시 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가 2013년 3월 7일 지정을 취소하여 당해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② 명칭

‘대곡(大谷)이란 ‘큰 골’의 뜻이니, 대곡동에 속해 있는 마을들이 가현산의 동남편 큰 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쓴 것이다.

(6) 태정

① 역사

확실한 연조는 알 수 없으나 옛적에 하동정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정인지의 사당으로 알려진 사당이 있으므로 조선 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을 듯하다. 거창신씨는 연산주(主)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 이 마을로 낙향하여 세거해왔다고 한다.

이 마을은 원래 마산면 대곡리의 자연촌이었으나 1914년 이후 대곡리의 행정 1리 태정으로,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서구 검단동의 19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2동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태정(台亭)’이란 선조의 옹주로 상촌(象村) 신희(申欽)의 자부인 정숙옹주가 황곡에 살면서 출산했을 때 ‘태를 이 마을 뒷산에 묻었다.’ 하여 ‘태정(胎亭)’이라 써오다가 태정(台亭)이 되었다고 전해오지만 이 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소지명

- 윗말: 태정에서 북편에 있는 마을.
- 아랫말: 정인지사당이 있는 마을.
- 평동: 마을 중심의 삼거리 부근 일대의 마을.
- 장구메: 장구산 동남편에 자리잡은 마을.
- 덕고개: 덕고개 앞에 있는 마을.
- 진산: 마을 뒤 두밀과의 사이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2m. 뒷산이라고도 부른다.
- 쇠제산: 마을 동편 설원과 사이에 있는 산.
- 안산: 덕고개 뒷산.
- 장구산: 장구메라고도 부르는 장구 모양으로 생긴 산. 한자로는 부산(缶山)이라 쓴다.
- 청룡부리: 진산의 동쪽 부리, 즉 좌청룡의 부리라는 뜻이다.
- 쇠제모테이: 쇠제산의 남쪽 부리.
- 도라지골고개: 태정과 황곡을 왕래하는 고개로 예전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 쇠제: 마전동 쪽과 대곡동 쪽 지류가 쇠제산 앞에서 합류하여 나진교로 흐르는데 이 하천을 나진포천이라 부르며, 계양산의 발원부터 한강까지 총길이 12.5km에 달한다. ‘저(渚)’는 ‘물갈래’의 뜻이므로 하천이 합류되는 곳을 의미한다. 김포시 감정동의 조현 선생을 모신 우저서원(牛渚書院)도 이 지명에서

연유한 것이다. 하천이 세 갈래로 만난 곳이므로 ‘세저 > 쇠저’가 되었을 것으로 ‘쇠’를 우(牛)로 대역한 결과다.

- 솔다리: 장구산모퉁이에서 설원 방면으로 하천을 건너는 다리. 우리말에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솔다’란 말은 좁다는 의미이다. ‘솔섬’도 ‘좁고 긴 섬’을 지칭한다. ‘솔다리’가 소나무 다리가 아니라면 ‘좁은 다리’의 뜻으로 추정된다.

- 오기울: 여래로 가는 길의 첫번째 고개인 작은고개 우편의 골.
- 정현조사당: 세조의 부마 정현조, 또는 정인지를 모신 사당으로 전해 온다.

(7) 두밀(斗密)

① 역사

반남박씨는 550여 년 전 병문이 이 마을에 정착해 입향조가 된 이후 현재 13가구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풍산김씨는 김포시 원당동이 세거지였으나 약 250년 전 이 마을에 입향했으며 현재 10여 호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1789년(정조 13)에 제작된 《호구총수》,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의 《김포군 읍지》등에는 법정리로서의 ‘두밀’ 또는 그 이전 명칭은 기재된 것이 없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대곡리와 두곡리를 법정 대곡리로 개편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조 말에 ‘두곡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의 양달말에 있는 열녀 당씨(唐氏) 묘비에 검단면 ‘두곡리’라 한 것이 남아 있다. 1914년 이후 법정리에서 제외되어 대곡 2리로 되었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20통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2동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1712년 건립된 반남 박정(朴正)의 신도비문에 마산면 ‘두모곡’이라는 마을이름이 나온다. 조선조 말의 ‘두곡’, 현재의 이름 ‘두밀’도 한자표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뜻으로 ‘사방이 막힌 마을(갯)’의 뜻으로 고어 ‘뚝’을 한자로 쓴 것이다. 첩첩산중을 ‘두메산골’이라고 할 때의 ‘두메’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뚝’의 변형이다. ‘뚝’은 ‘원 또는 사방이 둘러 막혔다’는 사위(四圍)의 뜻으로 예전의 지명에서부터 사용해 온 말로 오늘날도 산간마을 중에는 뚝과 유사한 어형의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송악산으로 둘러싸인 개성의 옛 지명이 ‘두뚝골’이었다.

1796년(정조 20) 간행된 《신전자초방언해》라는 화약제조법에 관한 책에는 ‘덜뚝기 또한 도허니라’라는 내용이 있거니와 ‘뚝-분’으로 대응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한라산을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의 ‘둥근산-두무악’도 같은 뜻이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 예전부터 써온 ‘도마, 두마, 두모, 두무, 두미, 뚝골, 뚝말’ 등은 같은 어근 ‘뚝’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대동여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지명 두음산은 ‘뚝뚝’, 두음지는 ‘뚝지’, 도마치는 ‘뚝치’의 표기로 앞의 고유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현대지명에 많이 남아있는 ‘두무치[무안], 두무골[나주], 뚝병치[고흥], 뚝보리[화순],

뚝말[곡성], 그리고 '두밀리' 라는 곳이 가평에도 있는데 이들도 모두 같은 뜻이다.

두밀은 '뚝밀 > 두밀' 로 변한 단어로 한자표기가 '두모(杜毛), 두밀(斗密) 처럼 '막을 두(杜)', 또는 '말 두(斗)' 어느 편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뚝' 을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두 글자로 쓴 것일 뿐이다.

③ 소지명

- 넘말: 두밀에서 가장 큰 마을.
- 밭두밀: 넘말의 서편 밭두밀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바깥의 준말이 밭이므로 '바깥두밀' 의 뜻.
- 외밀: 넘말에서 외밀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외(外), 밀(密)의 뜻인 듯하다.
- 아랫말: 분틀메 앞(남쪽)에 있는 마을.
- 분틀메: 두밀중앙에 있는 산으로 해발 75m 정도. '분틀메는 빌터뫼', 즉 '빌다' 의 어간 '빌-' 과 '터', '뫼' 의 복합어로 하늘에 제사하는 단이 있는 산이란 의미로 추정된다.
- 한메: 두밀 동편 옹주물과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해발 95m. 한자표기는 한산인 바, '크다' 의 고어가 '하다' 이므로 '큰 산' 이라는 뜻의 '한산' 인 듯하다. 전래의 명칭은 할미산인 바, 한뫼의 변형일 수도 있고 '빌뫼 > 할미산' 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 안산메: 두밀과 태정 사이의 산으로 해발 102m. 두밀의 진산은 양달말 뒷산인 계봉산이라고 전해온다.
- 달안메: 양달말의 뒷산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뒷산의 북편쪽을 말한다. 황골에서 다라테 앞쪽을 달안메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한 듯하다.
- 다머리산: 두밀 북쪽 고창과 경계를 이루는 산.
- 감두리산: 넘말 뒷산의 동쪽 부리를 지칭한다. '달이산' 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감' 은 '신' 또는 '존장, 왕' 의 뜻이다. '달' 은 '산' 의 뜻을 가진 고구려계의 어휘이다. 또한 '이' 는 의미 없는 접미사이며, '산' 은 중복된 표기로 '여우재고개' 에서 '재~고개' 처럼 쓰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달' 은 '신산 또는 존장의 산' 의 뜻이 된다. 예전에 산신제를 지냈거나, 이 마을에 여러 기의 묘인 지석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벼들고개산: 벼들고개가 있는 산으로 김포시와 경계에 있다.
- 벼들고개: 두밀과 고창, 옹주물을 왕래하는 고개.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새마을사업으로 파괴했다.
- 옹주물고개: 한메를 넘어 안옹주물과 왕래하는 고개.
- 양알고개: 두밀과 설원을 왕래하는 고개. 고개의 형태가 가운데 작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대칭이어서 붙인 이름.
- 달안메고개: 양달말에서 다라테로 넘어가는 고개. 감두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방석재.
- 황골고개: 밭두밀에서 황골과 왕래하는 고개.
- 외밀고개: 넘말과 외밀 사이의 고개.

- 아랫말고개: 외밀과 아랫말 사이의 고개.
- 돌다리: 넘말에서 버들고개로 나가는 도로가 셋들과 만난 곳에 있던 예전의 징검다리, 시멘트 다리로 개축하였다.
- 찬우물: 황골에서 발원한 두 시내의 합류점 근처에 있는 논우물.
- 가마논: 셋들 안에 있는 큰 논. 가마는 크다는 뜻이다.
- 고구모테이: 돌다리 아래 시내에 접한 가파른 산 모퉁이.
- 한메약수터: 한메에 있는 약수로 1973년 《김포군지》에도 유명한 약수로 소개되었다. 옷오른 데 효과가 좋다고 전해온다. 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바위 밑에서 솟는다.
- 아랫말은행나무: 아랫말에 있는 500년 이상 된 은행이 잘 열리는 시 보호수 4-8-1호로 지정되었다. 아랫말느티나무는 은행나무 북편 산기슭에 있는 시(市)나무 4-8-2호로 보호수이다.

④ 전설

- 아랫말은행나무: 옛날 이 마을을 지나던 어느 대사가 이곳을 가리키며 명당이라 알려주고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터 자랐다고 한다.
- 분틀메: 까마득한 옛날 천지가 창조될 때 이 산이 명산인 안암산 자리를 차지하려 했으나 자리를 빼앗겨 현재의 자리에 눌러앉으며 자리를 빼앗긴 것이 분하다 하여 '분통메'라 부르던 것이 '분틀메'로 변했다고 전해온다.

(8) 황곡(黃谷)

① 역사

황곡의 원거인은 단양우씨였으나 1500년대 초에 단양우씨의 외손인 평산신씨 이간이 입향하여 입향조가 된 이후 현재는 후손 40여 가구가 세거하고 있다. 옛 문헌에 황곡이란 법정리는 없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검단면 대곡 3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21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2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예전에 한적한 마을이어서, 또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마을이라 매년 풍년이 들어 논 전체가 '황금물결'로 출렁거리려 '황곡'이라고 했다고 한다.

중세국어시기(14~16세기 말) 이후의 고어에서 '크다'는 의미의 단어가 '하다'이며 이것의 관형사형(수식하는 말)이 '한'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어 '큰 골'을 중세국어로 표기하면 '한골'이 되거니와 이것은 역행동화(逆行同化)되어 '항골'로, 이것이 다시 동화되어 '황골'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변천과정을 거친 것이 '황새'이다. '큰 새'이므로 '한 새'라 했던 것이니, 12세기의 문헌인《계림유사》에도 '백로를 한새'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새' > '항새' > '황새'로 변천해온 것으로 황새를 '누런새'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먹황새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검정노랑새’가 되고 만다. 먹황새가 검정색 ‘큰새’인 것처럼 ‘황골’도 ‘누런골’이 아니라 ‘큰골’이며 이것을 한자식 지명으로 바꾼 것이 ‘대곡’인 것이다.

한자지명 ‘황곡(黃谷)도 ‘큰골’의 의미가 된다. 황(黃)의 옛날 훈(訓)이 ‘갈’이었으니 갈색은 삼베의 색깔로 적황이다. ‘갈’은 ‘크다, 높다’의 뜻이었으니 가현산의 옛 이름을 김정호의 《동국여지지》에서는 ‘갈현산, 황곡’, 〈평산신씨가승〉에는 ‘갈연산’이라 했는데 모두 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갈[加乙]’이나 ‘갈(葛)’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고유어 ‘큰 산’의 표기이다. 지금도 ‘가린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고어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황곡은 ‘갈골’이 되는 ‘큰골마을’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큰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실지로 골이 큰 마을의 뜻’도 되지만 이 마을에 전해 오는 지식묘의 주인공은 부족장이었으므로 ‘존장이 사는 마을’의 뜻이 더 강하다.

③ 지명

- 황골: 마을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황골로도 부른다.
- 대추고개: 두밀고개 밑의 마을로 예로부터 큰 대추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장자매: 능뒤에 있는 마을.
- 도티울: 김포시 장기동과 경계에 있는 마을. ‘돌의골’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의 고어가 ‘돌’이었으므로 결국 돼지골의 의미가 되는데 가현산줄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옛날 멧돼지가 출몰한 곳이라는 뜻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밤가시: 도티울 동편골에 있는 마을. ‘밤+가시’이므로 밤동산마을의 뜻이다.
 - 다라테: 중심부에서 동편 달산 앞에 있는 마을. 구전에 의하면 마을 뒷산이 ‘달’의 형국이어서 그 앞에 자리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달안터라 하던 것이 ‘다라테, 다라티’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달안터가 다랏테나 다라티’로 변하는 것은 국어 변천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달밭터 > 달앗터 > 다랏터, 다라티, 다랏테’로의 변천이 국어 변천으로 볼 때 더 자연스럽다. ‘피밭골 > 피앗골(지리산)’ 참조.
 - 새터: 다라테 산 북편에 새로 형성된 마을.
 - 가현산: 검단동과 김포시의 경계에 있는 215m의 산. 옛 문헌에 모두 가현산으로 ‘거문고 현(絃)’자를 써왔으나 요즈음 지도에 가현산(歌鉉山)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산신씨가승〉과 《동국여지지》에 ‘갈연산·갈현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갈’이 고어에서 ‘크다’는 뜻이므로 ‘큰산’, ‘높은 산’의 뜻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권 148. 경도편에 “가을두(加乙頭)는 서소문 밖 20리 있는데 우뚝[突兀]하다.”고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 동지봉: 가현산에서 마을쪽으로 흐른 산줄기에 솟은 둥근 봉우리.
 - 월산: 다랏테의 뒷산으로 반달 형국이라고 한다.
 - 달안매: 황곡과 두밀 사이, 다라테의 앞산.
 - 담월산: 황곡과 고창미 사이의 산.
 - 두밀고개: 황곡과 두밀을 왕래하는 고개.
 - 도라지골: 황곡과 태정 사이의 고개.

- 가낙굴고개: 황곡과 가현 사이의 고개.
- 돌고개: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로 통하는 고개로 인근에 고인돌, 즉 지석묘가 있기 때문에 고인돌고개라 부르다가 줄여서 돌고개라 부른다. 10여 기의 지석묘가 있다.
- 새터고개: 다랏테와 새터 사이의 고개.
- 능뒤: 마을 뒤편 능선 너머.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을 능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 뒤편을 능뒤라 한다.
- 배들이보: 고창미로 나가는 들에 막은 보지만 보의 기능은 사라지고 도로로 사용된다.
- 찬우물: 다랏테 앞 논에 있는 수원 좋은 우물. 그 논을 옥답이라는 뜻으로 개똥논, 그 위의 논은 방야다리라 부른다. 현재는 모두 공장지대가 되었다.
- 지석묘: 가현산에서 마을쪽을 향해 내려온 산기슭에 4개 군, 30여 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인 북방식을 중심으로 5~10기씩 군을 이루고 있다. 3.5톤의 지석묘를 만드는 데 청장년 5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 마을에 있는 큰 지석묘는 1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청동기 시대에 이만한 가용인력(可用人力)을 동원하려면 이 인근에는 상당한 세력의 부족장과 많은 주민이 거주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특기사항

가현산 큰 골에 안긴 마을로 선사시대의 유물이 보전된 검단지역사의 산 증인이다.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상촌(象村)을 배출한 반촌(班村)이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마구 들어서기 시작해 공장의 공해에 찌들어 상촌이 목객을 만나던 정자 감지정(坎止亭)의 정취는 사라진 지 오래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1198년(신종 1)에 어태를 묻고 감무에서 현령고을이 되었다.”고 한 설명이 있다. 《대동지지》 산수편에는 “가현산은 서북 15리에 있고 옛 태무덤이 있다.”고 해서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옛 김포의 8경을 ‘금릉팔경승(金陵八景勝)’이라 해서 ‘가현산낙조(歌絃山落照)’를 읊은 시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망해사의 경치가 경기제일이라 했다.

뭇 까마귀 울음 멎고 저녁 연기 자욱한데 (群鴉啼盡夕煙多)
 한덩이 붉은 해가 바다 위에 일렁인다. (一片紅輪轉海波)
 산 아래 외딴 수풀 경치가 무한한데 (山下孤林無限景)
 가축과 귀가하는 목동의 노래 흥겹다. (牛羊歸處牧童歌)

(9) 설원

① 역사

약 350여 년 전 하동정씨의 13세 조(祖)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현재 40여 호의 후손들이 세거해오고 있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 1842년(헌종 8)의 《김포군읍지》 방리(면, 리) 편에

마산면 서원리(鋤院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에는 폐지된 탓으로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 검단면 대곡 4리로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22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2동 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예전에는 서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전래의 명칭은 설원 또는 설원으로 예전 임금의 행차나 관원이 출장여행 중 숙박하던 원이 있던 마을이기 때문에 설원(設院)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또 다른 문헌기록에 보면 설원이 아닌 서원(鋤院)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유추해보면 원의 이름이 서원이고 동시에 마을이름이던 것이 역원을 설치한 곳이라는 뜻으로 설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소지명

• 설원: 가장 동남쪽 마을로 동으로 김포시와 접하고 있다. 원래 원터라 전해지는 마을만 구별해서 설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 대행때미: 설원의 북편 마을, 우리나라 각처에 ‘-데미, -떼미’가 붙는 지명이 있다. 이것은 지명에 붙는 접미사의 하나로 산골 또는 사방이 막힌 곳의 뜻인 ‘뚝, 뚝, 뚝’과 같은 계통의 말로 ‘뚝’에 접미사 ‘이’가 복합되어 ‘뚝+이 > 더미 > 데미, 떼미’로 변형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행때미’는 사방이 막힌 곳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 마을이 설원 중에서도 서, 남, 북이 막힌 곳이어서 그런 지명을 갖게 된 것이다.

- 백암산: 설원과 뱀굴의 북쪽에 있는 하동정씨의 선산으로 흰 바위를 이고 있는 신령스런 산이다.
- 경두산: 마을 남쪽에 높이 솟은(96m) 산으로 보통 쇠제산으로 부른다.
- 톤매산: 설원 북편에 있는 낮은 산부리.
- 설원이고개: 설원에서 태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 양알고개: 설원과 두밀을 왕래하는 고개.
- 진골: 마을 앞의 큰골. ‘진골 > 진골’로 구개음화한 것이다.
- 가마논: 새논 아래에 있는 큰 논. 가마솔의 가마가 ‘큰’의 의미, 가마논도 ‘큰 논’이라는 뜻이다.
- 쇠제: 가현산에서 발원하여 가현, 여래를 흐르는 시내와 백석동에서 흐르는 시내가 여래 벌판에서 합류하여 다시 불로 앞에서 대곡동에서 흐르는 시내와 합류하는 검단지역의 대표적인 시내. 세 갈래 물의 ‘세제[三澗]가 음운변화로 ‘쇠제’가 되었다.

- 안산: 뱀굴의 앞산으로 설원의 안산이다. 주산과 마주보는 것이 보통이다.
- 원터: 예전에 역원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

3) 검단3동의 유래

199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

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재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로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검단3동 사진(신기)

2005년 9월 1일부로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과 검단2동 소속의 원당동을 합하여 검단3동으로 분동하였고(서구 조례 제804호), 2009년 9월 1일부로(서구조례 제844호) 검단4동이 신설됨에 따라 본 동 소속의 독정을 검단4동에 할애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당하동(堂下洞)

① 연혁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서부터 김포군 관련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동서(同書)에 노장면 당하리로 법정리였으나 1842년(헌종 8)의 《김포군읍지》에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 법정리가 아니었으나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에는 재등재 되었다. 1899년(광무 3) 《김포군읍지》는 1842년 내용을 가감 없이 복사해 조정에 보고했으므로 당연히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1914년 당시 조선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노장면 당하리 일부와 족저리, 독정리를 병합하여 확대개편된 검단면 소속의 당하리로 재편하였고, 1리 독정, 2리 신기, 3리 광명, 4리 족저의 행정리로 구분하였다.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 소속,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의 법정 당하동, 되었고, 2005년 9월 1일부터는 중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중에서 독정을 제외한 법정동들과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되었다. 정부에서 2007년 6월 29일 불로동, 당하동, 원당동 일원의 토지 11,239,000㎡, 호구 6만 6천 세대의 신도시로 지정하여 현재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일부와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검단3동 전체가 예전의 농촌지역 모습은 사라져가고,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옛 지명을 보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형태로든 보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② 명칭

당(堂)이 있는 마을, 원당리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당하리라 불려온 것이다.(상세 내용은 원당동 참조)

(2) 신기(新基)

① 역사

신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이씨는 회령군파로 11대조인 향영이 당하리 전주이씨의 입향조이다. 원래 족저리에 정착했다가 9대조 때 이 마을에 새로 터를 잡아 이주하였고, 현재 약 20호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옛 문헌에는 신기는 법정리로 등재된 적이 없고 당하리에 속하는 자연촌이었다.

1991년 3월 1일 이후 검단동의 9통으로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신기도 원당동 전체와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새로 터를 마련해 살기 시작했다 하여 예로부터 새텃말이라 불려오다가 일제가 마을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신기라고 했다. 새텃말, 새텃말, 새텃말, 새텃말은 모두 발음만 다를 뿐 새텃말에서 분화된 것들이다. 마을에 따라서 신촌, 새말, 새터라 부르는 곳도 있다.

③ 소지명

- 아랫말: 신기의 동쪽편 마을.
- 웃말: 신기의 서편 마을.
- 김목산: 마을 동쪽에 우뚝 솟은 해발 86m의 산으로 이 마을의 진산(鎭山)이다. 이 산기슭에 김목[씀바귀]이 많아 '김목산'이라 부르는데 달리는 제림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긴목산', 곧 '등성이가 길게 늘어진 산'의 뜻일 가능성이 더 크다.
 - 앞산: 마을 앞을 가로질러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발 88m, 75m, 36m의 연봉으로 이루어진 산줄기.
 - 독실고개: 신기에서 앞산을 넘어 독실로 통하는 고개.
 - 장안이고개: 독정과 신기 사이의 고개로 쓰레기수송로가 되면서 확장하였다.
 - 셋고개: 웃말에서 동물검역소 쪽을 통해 족저리로 넘어가는 고개.
 - 뒀고개: 신기에서 마을 뒷산을 넘어 족저로 통하는 고개. 제림산 줄기가 해발 50m 이상으로 높은 산줄기를 넘기가 힘들어서 뒀고개라 불려왔다.
 - 미루터모퉁이: 광명에서 신기에 이르는 제림산 남쪽 기슭 일대를 지칭하는 바, 국어에서 순음(唇音) ㅁ-ㅂ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빌우터' > '미루터'로 된 것. 제림산에서 당제를 지내므로 붙인 지명이다.
- 김목골: 제림산 줄기에서 아랫말 뒤쪽으로 파인 골.
- 골안: 마을회관 뒤편 김목골 사이에 있는 골.
- 사당거리: 웃말 앞의 논 부근을 이르는 지명. 사당거리우물도 있다.
- 장산골: 웃말에서 앞으로 바로 보이는 앞산의 큰 골.
- 배락골: 장안이고개에서 신기마을 쪽으로 향하면서 족저리와 신기의 도로 분기점에 있는 골과 일대

의 논.

- 삼밭골: 동물검역소 직전의 길 왼편 골.

(3) 광명(光明)

① 역사

• 광명: 대곶면 약암리에서 거주하던 청송십씨가 30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 매밭: 안동권씨의 집성촌으로 누대를 세거해왔다고 한다. 두 마을 모두 예전 문헌에 등재되지 않아 마을의 변천사는 알 수 없다. 예로부터 노장면 당하리의 자연촌이었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당하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10통,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1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중에서 독정을 제외한 법정동들과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광명도 검단3동이 되었다.

② 명칭

• 광명: 옛날 이 골에 마을이 처음 형성될 무렵 불과 한두 채의 집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비가 갠 뒤에 제림산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 광명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광명은 ‘광메이, 팽메이, 팽매기’로도 부르는데 이들은 ‘평양을 피양’, ‘양양을 야양’이라 하는 것과 같이 동음생략 현상이다. 팽메이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설에는 마을 뒷산에서 봉화를 올려 마을이 밝았으므로 광명이라 불렀다고도 하나 문헌기록에 당하동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고대의 지명어에서 ‘밝다’는 뜻을 가진 광(光), 명(明)이나 음이 ‘밭’과 유사한 한자들인 ‘백(白), 박(朴), 발(鉢), 불(不)’ 등을 사용한 경우는 그 마을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유구한 전통을 가졌다. ‘밭-’의 고어는 ‘붉’ 이거니와 최남선은 우리민족사상의 원천을 ‘붉’ 사상이라 하고 백두산의 뜻인 태백산을 ‘한 뫼’ 즉 ‘크며 밝은 산’이라 했으며 그 뜻은 신(神), 또는 천(天)으로 태양숭배사상의 결과라 하였다. 고대국가시대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풍년이 들고, 동시에 개인, 가정, 마을이 건강하며 복 받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며 살아왔다.

본 광명마을도 명칭 자체가 최남선이 말한 ‘붉’ 사상을 담고 있으며, 예로부터 제림산에서 매년 시월 초이튿날 산고사, 곧 천신제를 지내온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제림산이란 산이름도 바로 산제를 지내는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 제림산 남쪽 기슭의 광명과 신기 사이 모퉁이를 ‘미루터모퉁이’라 불러 왔는데 이것은 ‘빌터’ 즉 ‘빌터’의 뜻으로 추정된다. 제림산 북쪽 기슭에는 솔터구석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도 보통 전해오기로는 활터가 있던 곳이라고 하나 앞에서 설명한 소도(蘇塗)가 있던 곳이 아닌가 추정된다. 소도는 ‘솔터, 솔터, 솟대, 짐대’ 등으로 전국의 지명에 남아 있는데 이런 지명을 가진 마을은 모두 천신제를 지내던 전통을 가졌거나, 매우 오래전, 적어도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된 역사를 갖고 있다. 이상 몇 개의 소지명과 이 마을의 이름에서 확인한 바, 광명은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매밭: 매밭 앞산은 꿩이 기어가는 형국이어서 풍수설에서 말하기를 꿩을 이기는 것은 매이므로 매와 관련되는 지명이라야 마을이 평안하다 하여 매밭이라 하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중세국어(15~6세기 말)시대 또는 근대국어시기(17~19세기 말)까지 산을 ‘뫼’, 들(田)을 ‘매’ 라고 하였다. 밭은 지명에서 반드시 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고유명사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 단순히 마을의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매밭이란 지명도 풍수설을 떠나 국어변천과 관련시켜 보면 ‘산마을 ‘뫼밭’ 이라 했던 것으로 추정하면 ‘뫼밭 > 뫼밭 > 매밭’ 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마을은 동, 서, 남쪽 방향은 산으로 막혔고 겨우 뚫린 북쪽도 창신학교 쪽의 거리가 300여m 정도 되는 들이 있을 뿐이어서 이런 지명을 써온 것일 것이다.

③ 소지명

- 매밭: 당하동의 자연촌으로 안동권씨의 집성촌이다.
- 광명: 마을회관 일대를 텃골, 중심부라 하여 본동, 느티나무가 있어서 느티나무말이라고도 부른다.
- 솔터구석: 텃골 서편 제림산의 북편 기슭 일대의 지역과 그곳의 마을.
- 제림산: 마을에서 남서편에 솟아있는 해발 86m의 산. 이 마을의 당산으로 매년 10월 초이튿날 새벽 산마루에 천막으로 임시 당집을 짓고 산고사를 지내왔다. 6·25한국전쟁 이후 상당 기간 중단되는 동안 마을에 흉사가 생겨 다시 산고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계속해왔다. 제림산은 제사지내는 의미가 있는 산이름인데 음이 변하여 기밋산, 제밋산, 김묵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안산: 광명의 텃골 뒷산이 안산이거니와 안산은 주산, 좌청룡, 우백호와 함께 풍수설에서 말하는 명당의 요소가 된다. 안산의 동편 모퉁이를 안산모퉁이라 부른다.
- 청룡부리: 미루터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제림산 기슭. 좌청룡에 해당한다.
- 골목고개: 매밭과 광명 사이를 왕래하는 좁은 고개.
- 셋고개: 광명과 신기 사이를 질러 다니는 제림산 서편의 고개.
- 옷우물: 매밭 중앙부에 있는 물이 좋은 우물. 옷을 빨았을 때 전래의 기원하는 의식과 함께 목욕하고 밥을 지어 먹으며 옷을 치료했었다.
- 칠갈래길: 매밭, 광명 사이의 산등성이에 일곱 갈래가 난 소로.
- 쌍다리: 광명 들 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건너는 동서 방향으로 놓은 다리.
- 바래밭: 인천시와 접한 광명의 남쪽 끝 마을.
- 심한성 효자 정려: 1827년(순조 27)에 청송심씨 심한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내린 정려.

(4) 족저(足儲)

① 역사

약 400여 년 전 전주이씨 회령군파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원래 노장면 족저리로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에 법정리로 등재되었으나 그 후의 문헌들에는 법정리로서의 족저리는

보이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당하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11통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1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죽저도 검단3동이 되었다.

② 명칭

이 마을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며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저축을 많이 하여 모든 집들이 풍요해 '돈에 발이 묻힐 정도로 부자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축할 저(儲)를 써서 죽저리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옛 지명표기에서 한자의 새김을 사용한 광(光), 명(明), 이(梨), 적(赤) 등은 의미와는 관계없이 새김이 '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세계관이며 전통 신앙이었던 천승배의 여러 변형인 '소도, 산신제, 당제, 동제, 서낭굿' 등을 오래 전부터 지내온 마을이름에 사용되어왔고, '죽(足)'도 그 훈이 '발'이므로 본래의 뜻인 인간의 다리, 또는 만족, 풍족과는 관계가 없고 '발-'의 유사관념에 의해 위의 글자들과 같이 천신제를 지내 온 마을임을 나타내는 지명표기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저(儲)는 원래의 뜻 저축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의미 '담, 동산'의 뜻으로도 사용했다. 예전에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제단을 만들거나, 임시로 또는 상설의 당집을 짓거나, 큰나무를 세우고 끝에 새를 조각해 다는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단을 쌓아 신의 하강을 용이하게 하고 대목에 새를 달아 천상계와 인간을 매개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이며, 당집을 지어 신이 항상 그곳에 머물면서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저는 제단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전체의 의미는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마을' 또는 줄여서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의 뜻이 되며, 부자 마을이란 유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한자식 지명을 축자(逐字)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③ 소지명

- 넘말: 마을 중간의 도로를 중심으로 동편, 서편 마을이 서로 상대편 마을을 넘말이라 부른다.
- 삼밭구리산: 현 검역소 자리에 있던 해발 55m 정도의 봉우리로 작은봉이라고도 불렀다. 큰봉은 제림산이므로 비교적 관점에서 작은봉이라 한 것이다.
- 뒤고개: 죽저리와 신기 사이의 고개. 높아서 오르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
- 다레이고개: 죽저와 마전동 경계에 있는 고개.
- 천둥거리: 창신초교에서 들을 건너 매밭과의 분기점 일대, 즉 농협당하동지소가 들어선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 그 앞의 논을 천둥거리논이라 부른다.
- 삼밭굴: 죽저에서 장아니고개로 향하는 도로가 신기와의 분기점이 되는 서북편의 골. 마전동 쪽의 삼바지와 관련된 지명이 아닌가 추정된다.
- 신성굴: 원굴 다음의 골로 그 앞의 논도 동시에 지칭한다.

(5) 원당동(元堂洞)

① 연혁

1641년에 건립된 능굴마을에 있는 의령 남두장의 묘갈에는 ‘김포 노장리’라 되어 있다. 17세기 전반기에 이 지역이 어떤 면이 편제되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직 노장면이 설치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노장면 원당리로 기재되어 있는 바, 17세기 전반 이후로부터 18세기 후반 사이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리(里)가 면으로 승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산리가 마산면으로 승격한 것은 1789년 이전이었으므로 이 경우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842년(현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간행된 《김포군읍지》 등에는 모두 노장면의 법정리인 원당리로 존치되어 왔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옛 노장면의 북부지역에 있던 원당리, 고산리, 고산하리, 발산리를 법정 ‘원당리’로 병합하여 마산·노장·검단면이 통합되어 새로 탄생한 검단면에 소속시켰다.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의 법정 원당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2동의 법정 원당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중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중전의 원당동은 모두 검단3동이 되었다. 정부에서 2007년 6월 29일 불로동, 당하동, 원당동 일원의 토지 11,239,000㎡, 호구 6만 6천 세대의 신도시로 지정하여 현재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일부와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검단3동인 원당동 전체가 예전의 농촌지역 모습은 사라져 가고,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옛 지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형태로든 보전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② 명칭

원당이란 당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당 또는 당신(堂神)은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조상들의 우주관의 산물이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므로 자연물에 정령을 부여하고, 그것을 신비하게 여겨 외경의 대상으로 섬기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력의 소유자, 곧 광명과 흑암, 천둥과 비, 바람을 주재하는 ‘하늘’을 절대자로 여기고 될수록 하늘에 가까이 접근하여야 절대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관념하에 산에 오르게 되었고, 산정만으로 부족해 더 높은 제단을 쌓았던 것이며, 그 산정의 제단은 천신의 하강을 위한 계단이 되는 동시에 천신의 거주처로 믿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천신의 강하계단이 되는 산이 신성시되어 산신이란 신의 탄생을 가져왔고, 또 천신과 교섭을 위해 되도록 하늘에 가까이 세운 장대나 자연적인 거목에 신격을 부여해 수신(樹神)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신당에 신수가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것도 천신의 강하 계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은 산정에 쌓은 단이 ‘단’ > ‘당’으로 변천해온 것으로 추정되거나 그 이유는 ‘당’이 반드시 건축물이 축조된 곳만을 의미하지 않고 산정에 낮게 쌓은 돌단, 신수 밑의 평토, 입석 등을 모두 지칭하기 때문

이다. 전래의 당의 종류에는 천신, 일신, 성신, 산신, 수신, 서낭신, 지신, 수신, 사귀신, 인신 등이 있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편에 “망산이 현의 남쪽 2리에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현치소재가 현 장릉산 재실이 있는 곳이었다. 또한 현종 8년 간행된 《김포군읍지》 산천편에는 망산은 누락된 대신 ‘김포군지도’에 봉릉사 옆에 야미산을 그려 넣었다. 2리는 800여m가 되는데 장릉의 재실에서 옥계봉까지의 거리가 약 800m 정도며 지도의 그림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야미산이 옥계봉임이 추정 가능하다.

‘망’은 보름의 뜻이므로 ‘밝다’라는 의미가 되어 옛 지명표기에서 ‘광명’, 곧 ‘태양신’을 의미하는 ‘밝’의 지명이므로 ‘신을 모시는 산’, ‘신산’의 뜻이 되고, 야미산에서도 ‘밤[夜]’과 ‘그칠 미(彌)’를 합해 해석하면 ‘밤이 그치다’는 아침 즉 ‘밝다’의 뜻이므로 ‘망산’과 ‘야미산’은 같이 ‘밝’을 표기한 것이며, ‘신산’이 되므로 ‘당산’이 된다. 따라서 원당리 즉 ‘으뜸되는 당이 있는 마을’의 ‘당산’은 현재 ‘옥계봉’으로 추정된다. 옥계는 ‘대궐의 계단’이므로 이것도 ‘신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계단’으로서의 단 곧 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당은 ‘으뜸되는 당이 있는 마을’, ‘망산, 야미산, 옥계봉’은 모두 그곳에 ‘당’이 있음을 의미하는 지명들이다.

(6) 원당

① 역사

고려조 풍산백(豊山伯) 김문적(金文迪)의 5대손 안정(安鼎)의 후손들이 원당동의 가마논들이 비옥하므로 그곳에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된 후 세거를 하여 현재 4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이후 노장면 원당리였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원당리의 행정 원당1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12통,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2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중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원당도 검단3동이 되었다.

② 명칭

이 마을은 원당동의 으뜸 되는 마을이다. 원당이라는 이름 대신 ‘원데이’라고도 부르며, 고산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고산아래’라고도 불려왔다.

③ 소지명

- 뒷골말: 원당의 서편 골쪽의 마을.
- 뱀산: 옥계봉을 뱀산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전부터 이 산에 꽃뱀이 많아 뱀산 또는 배미산이라 불려왔다고 한다.

- 서낭당: 원당에서 장릉으로 통하는 고개에 예로부터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당고개라 해 왔으나 196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이란 미명하에 없애버렸다.

- 능굴고개: 원당과 능굴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

- 원터굴: 서낭당 밑의 골짜기. 그 앞의 논은 원터굴논이라 하는데 바위가 많았다.

- 능앞들: 장릉골에서 시작된 마을 앞의 들.

- 조축머리: 능굴고개의 원당쪽 아래, 곧 고개 밑을 가리키며 예전에는 주막도 있었다. 그곳의 마을은 아랫말이라 한다.

- 열녀정문: 풍산 김중정의 처 남양홍씨에게 내린 열녀문, 김원섭의 대문에 걸려 있다.

(7) 발산

① 역사

조선조 명종 무렵 양천허씨가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에서 이거하여 입향조가 되었고 현재 발산마을에 약 40여 호가 세거해 오고 있다. 능굴에는 의령남씨가 누대를 세거해왔고 풍산김씨도 이웃 마을 원당에서 이주해 여러 대를 살아왔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에서부터 ‘능동리’로 등재된 이후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까지 존속했으나, 동년 3월 1일부로 법정 원당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13통으로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2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발산도 검단3동이 되었다.

② 명칭

- 발산: 이 마을의 형국이 남쪽만 트이고 동, 서, 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이 마치 바리때와 같다 하여 예로부터 ‘바리때’로 불려오다가 ‘바리때 > 바리미’로 변천한 것을 일제강점기 초에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바리 발(鉢) 자를 써서 발산(鉢山)이라고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 능곡: 보통 전해지기로는 장릉이 조성된 다음 그 능의 골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골, 능굴’로 불려왔다고 하나 중간에 있는 마을들을 뛰어넘어 이 마을만 능곡이라 했을 리 만무하다. 이 마을에는 마을 서북쪽 아늑한 골을 윗목구석이라고 부르거나 예로부터 태릉이라고도 불려왔다. 오래 전부터 도굴꾼들이 수차례 드나들며 그곳을 파헤쳐 많은 유물을 도굴해갔다고 한다. 또한 장릉을 쓰기 이전부터 이 마을을 능굴이라 불려왔다고 하므로 누구의 태릉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에 연유해 능굴이라 불려왔던 것이 분명하다. 풍수상 옥계봉, 송우산, 장구산 쪽의 긴 줄기가 학의 형국이라 하며, 이 마을은 그 중 학의 가슴과 머리에 해당하는 형국이라 예로부터 명당이라 전해오고 있다.

③ 소지명

- 바리미: 발산의 전래 지명.

- 능굴: 원당의 자연촌의 하나로 능골, 능굴, 능곡 등으로 부른다.
- 아낙말: 대장간모퉁이 서편 골안에 있는 마을로 안악말로도 부른다.
- 샛말: 용머리와 모장대 사이의 마을.
- 장구산: 바리미에서 능굴에 이른 산줄기의 원경을 북에서 남으로 바라볼 때 장구처럼 생겨서 장구산이라 한다.
 - 모장대: 바리미 뒷산의 산줄기.
 - 말무덤끼: 마을 입구의 동쪽 산의 부리 끝.
 - 대장간모퉁이: 마을 입구 서편 산모퉁이. 예전에 대장간이 있던 곳이다.
 - 용머리: 바리미의 가장 북편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용바위가 있던 곳.
 - 뒷들: 모장대 너머 동북편의 들.
 - 동네논: 마을 안에 있는 문전옥답.
 - 긴논들: 마을 앞 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내 부근 일대의 들.
 - 가마산: 능굴 동북편의 마을 뒤 우뚝 솟은 해발 61m의 산.
 - 서못: 마을 앞 들에 있던 큰 우물이며, 그곳의 다리는 서못다리라 했다.
 - 솔모랭이: 송우산의 앞부리로 소나무가 우거져 솔모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송우산: 능굴과 창신초교 사이에 있는 산.
 - 내건너고개: 능굴과 창신초교를 왕래하는 고개.
 - 옷목구석: 능굴 안 서북편 넓고 평평한 골. 예전에 태릉이 있던 곳이라 전해오는 곳이다. 능굴고개 서편에 정원수를 식재한 곳이다.

④ 전설

인조가 부왕의 묘를 이장하려고 평복차림으로 지관을 대동하고 안암산(계양산) 일대에서 명당을 찾고 있던 차에 한 곳에 이르니 상주와 산역꾼들이 계곡물이 합류하는 곳에 장례를 치루고 있는지라 측은히 여기고 은전 몇 잎을 주면서 “왜 이렇게 험한 곳을 묘로 쓰는가?” 물으니 “박기경이라는 지관이 이곳에 묘를 쓰면 즉시 득전하게 될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과연 그 지관의 말대로 자신이 상주에게 은전을 주어 득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신통력이 있는 지관을 물어 찾아가니 백발 노인이 나막신을 껌고 있었다. 임금 일행이 “왜 나막신을 껌고 있는가?” 물으니, “나는 나라님의 나막신을 껌노라.”는 지관의 대답에 놀란 임금은 자신이 행차한 연유를 설명하고 명당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북성산을 일러주었다. 북성산(장릉산)에 지관이 일러주는 자리에 광증을 파니 물이 솟는지라 지관에게 알리니 지관이 김포시 풍무리 쪽 산 능선을 지팡이로 꼭 찌르니 샘이 솟구치고 광증의 물이 찾아 산역을 마쳤다. 이때 지팡이로 찌른 곳은 약수가 되어 장릉입구의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솟오른 데 효과가 좋았다.

풍무리의 물줄기를 뚫은 것만으로 부족해 물줄기를 더듬어 감정리에다 아홉 군데의 우물을 파 장릉의 물줄기를 잡았다. 그리하여 구(九)우물이 굳우물, 구두물이 되었다. 그후 다시 안암산의 지관 노인을 찾으니 집과 노인은 간 곳 없고 나무에 서리만 하얗게 내려 있어 그곳을 ‘나무서리’(목상)라고 부르기 시작

했다고 한다.

⑤ 속담

남서방네 지붕 잇듯 한다: 사람이 성질이 급하여 만사를 차분히 처리하지 못하고 서두르거나 대충대충 해치우는 경우에 쓰는 속담이다.

(8) 고산후(高山後)

① 역사

고성이씨 27대손 광업이 입향조이며 현재 10여 호의 고성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이 마을은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이후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에 노장면 고산후리로 존치되어 오다가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원당리의 행정리로 편제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14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2동 갈아파트가 신설되었다.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하여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고산후와 갈아파트도 검단3동이 되었다.

② 명칭

옥계봉에서 송우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고산이라 불렀는데 그 산의 뒤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고산뒤'라 해왔다.

③ 소지명

- 고산뒤: 원당동의 마을로 서편으로는 마전동, 북편으로는 불로동과 닿아 있다.
- 금릉산: 옥계봉으로 부르는 주봉으로 옛 봉릉사였던 금정사가 있는 산으로 해발 153m.
- 앞산: 고산아래, 고산 뒤 사이에 있는 높이 124m의 산.
- 호사냥: 창신초교 뒤편의 산으로 옛날 노씨네 처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을 당했기 때문에 호사냥이라 불렀다.
 - 북망산: 창신초교를 지나 능굴로 돌아가는 모퉁이를 말한다. 능굴에서는 솔모랭이라 부르는 곳이다. 북망산은 묘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
 - 송장산: 분두굴과 두래미 사이에 동서로 길게 누운 산등성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송장산이라 부른다.
 - 쪽박산: 송장산 끝 부분에 있는 작은 봉우리로 아파트 건설로 사라졌다.
 - 뒷산: 마을 뒤 서편에 있는 해발 105m의 산, 시월 초이튿날 산치성을 올리는 산이다.
 - 숫당고개: 목지로 넘어가는 고개로 전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 잣고개: 이 마을과 불로동 갈산으로 통하는 고개. 도로공사로 산이 사라졌다.
 - 나무고개: 도로확장이 된 고개, 불로동과 통한다.

- 가막골고개: 이 마을과 능골을 왕래하는 고개.
- 건넌골: 앞산에서 마을쪽을 향한 골짜기 또는 그 앞의 논.
- 가막골: 현 김포축산이 자리잡고 있는 골. 가마골 즉 큰 골의 뜻을 가진 어휘로 '가맛골' > '가막골' 이 된 것이다.
- 김안정 묘: 이 마을 남쪽 아파트 건설지구에 있는 묘로 고려말 삼사 좌윤(3품직)을 지낸 분의 묘, 인근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선사시대 주거지가 발굴되고 있다.

4) 검단4동의 유래

199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재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로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 이후 검단1동의 4통이 되었다가 2006년 9월 1일 서구조례 제844호에 의거 검단1동의 완정, 청마와 검단3동 소속의 독정을 할양받아 검단4동으로 편제되었다.



검단4동 사진(완정)

(1) 완정(完井)

① 역사

마을의 내력을 알 수 없다. 현재 양천허씨, 청주한씨, 배천조씨, 전주이씨 등이 살고 있다. 본래 마전리에 속한 자연취락이었으므로 옛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검단면 마전5리로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에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 소속,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검단1동의 5통이 되었다.

2006년 9월 1일부로 검단1동에서 검단4동으로 편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를 알 수 없다. 전해오는 바로는 이 마을의 물이 좋아 완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옛 지명에서 '정(井)'은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쓰는 접미사의 직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청송심씨 심조(1694~1756)의 연보에 따르면 이 마을의 예전 명칭은 완정리(完丁里)였다. '장정 정(丁)'도 또한 앞의 글자들과 같이 의미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정(井)-정(丁)'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우물과 관련된 지명은 아닌 듯하다.

③ 소지명

- 윗말: 완정의 중심이 되는 마을.
- 아랫말: 완정의 동북편 능안 방면의 마을.
- 버터굴: 아랫말 앞산의 골.
- 건넌산: 청마의 뒷산.
- 방아다리: 이 마을에서 문고개쪽의 산기슭.
- 산악굴: 방아다리 북편의 골
- 능너머: 능안골짜기 너머쪽(서편)의 산기슭.
- 우버니: 약수동쪽으로 가는 계곡.
- 문고개: 월현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 도로확장공사로 4차선의 넓은 고개가 되었다.

④ 전설

- 문고개: 병자호란 때 효종이 강화로 피란하던 중 쉬어가던 고개로 예전의 전쟁 때마다 관문의 기능을 했다하며 성(城)도 있었다고 전해온다.
- 아랫말: 아랫말의 형상이 용(龍)의 발과 같아서 집의 수효가 10호를 넘으면 마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해온다. 그리하여 항상 10호 이내로 유지되어 왔다.

(2) 청마(靑麻)

① 역사

약 500여 년 전 성주이씨가 용인에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후 연안김씨도 입향하여 두 성씨 모두 현재까지 세거해 오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검단면 마전리가 법정리였고 마전리란 명칭이 바로 이 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5년 3월 1일 이후 검단동 소속,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1동의 6통이 되었다. 2006년 9월 1일 서구조례 제844호에 의거 검단1동 소속이었던 완정, 청마와 검단3동 소속의 독정을 할양받아 검단4동으로 편제할 때 본 청마도 검단4동 소속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전래의 지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바지’는 이 마을이 예전부터 어저귀[삼]를 많이 재배해왔기 때문에 ‘삼밭이’로 써오던 것이 구개음화(口蓋音化: 입천장에서 발음하는 소리로 바뀌는 현상)에 의해 ‘삼바지’가 되었다.

③ 소지명

- 삼바지: 청마의 중심이 되는 마을.
- 뒷삼바지: 청마의 뒤쪽 끝의 마을.
- 옷골: 청마의 서북편 마을.
- 청너머: 청마의 남쪽 마을
- 도당장산: 예전 제를 지내던 이 마을의 안산(案山)으로 해발 66.7m, 삼각점이 있다.
- 능정산: 청마의 동북쪽, 안산의 위쪽에 있는 봉우리.
- 대봉산: 이 마을의 주봉으로 해발 114m의 높이. 마전동과 원당동의 경계지역.
- 청룡부리: 도당장산의 서쪽 끝의 부리로 명당의 요소인 주산, 안산, 좌청룡, 우백호의 하나이다.
- 뒷삼바지고개: 청마에서 당하리를 왕래하는 고개로 확장, 포장 공사가 완료되었다.
- 맑은내: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로 독정을 지나 이 마을 앞으로 흘러 능안 앞에서 가현에서 내려온 시내와 합류하게 된다.
 - 말죽거리: 청마에서 독정 쪽의 논으로 예전 1925년(을축)에 흉년이 들어 벼를 수확하지 못하고 검불을 베어 소, 말의 먹이로 썼다 해서 말죽거리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려온 지명이라 한다.

(3) 독정(獨亭)

① 역사

독정마을은 약 400여 년 전 좌랑을 지낸 퇴촌의 자(子) 광산김씨 달도(達道)가 입향 조로 후손들이 17대를 세거해왔고 현재 20여 호의 광산김씨가 살고 있다.

1914년까지 노장면 독정리로 법정리로 존속되어 오다가 개편된 검단면 당하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에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8통,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1동의 27통이 되었다. 2006년 9월 1일 서구조례 제844호에 의거 검단1동의 완정, 청마와 검단3동 소속의 독정을 할양받아 검단4동으로 편제할 때 독정도 검단4동으로 편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명칭

이 마을의 중심부인 건너말(양단말)의 뒷산에서 서편으로 뺀어 내린 능선의 끝부분, 즉 건너말 입구에 서 마을회관을 향한 오른편 언덕 위에 왕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을의 정자목이며 그곳에 독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독정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그 왕소나무는 500년 이상 된 거목이었으나 광복되던 해에 고사(枯死)하여 절구 등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다고 한다. 마을 서편 현재의 쓰레기매립지 도로 부근 까치사리 위쪽에 기와, 독을 굽던 가마가 거의 최근까지 있었으나 산업화에 밀려 사라졌다. 독을 굽던 곳이라 ‘독정’이라 불렀는데 이 어형이 변해 전래의 명칭 ‘독쟁이’가 되었다고도 한다.

한편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한 결과를 정리한 월지유철의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이 마을의 지명을 독정리(獨井里)라고 기재하고 있어 혼선을 빚게 한다.

③ 소지명

- 건넌말: 독정마을의 중심부로 큰봉에서 서편으로 뻗은 능선 앞 양지편에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양달말이라고 부른다.
- 응달말: 사거리쪽 응달에 있는 마을.
- 종일: 쓰레기수송로와 한국유리 부근에 있는 마을.
- 큰봉: 마을 뒷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 65m.
- 맑은내: 305번도로를 따라 가면서 좌측 두 번째 골에 있는 마을로 청천동이라 고도 부른다.
- 독쟁이골목: 사거리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낮은 고개에 있는 마을. 이 부근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 일대는 주막촌과 같았다. 전해오는 바로는 이 지역이 소의 낭심에 해당하는 형국이어서 소가 소변을 쏟듯 사람들이 그곳에다 돈을 쏟아부으므로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고 한다.
- 콩당머리: 사거리의 동북편 현재 공장이 들어선 위치는 풍수확상 소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라 해서 콩당이, 콩덩이이라고도 불려왔다.
- 까치사리: 까치가 사는 곳이란 뜻의 까치살이가 변한 것. 예전에는 주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서 까치가 먹이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까치가 많았다고 한다.
- 장아니고개: 신기와 독정 경계에 있는 해발 45m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고개였으나 쓰레기매립지 도로 개설로 낮아져 약간의 언덕길로 남아 있다.
- 웃골: 장아니고개 밑의 골로 마을에서 가장 위쪽이므로 웃골이라 했다.
- 외골: 청마로 통하는 소도로 부근의 골로 개구리굴이라고도 부른다. 와(蛙)골이 외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느르머리: 마을회관과 전에 청마로 통하던 소로 부근의 언덕 끝 부분으로 두어 채의 가옥이 있다. 길게 늘어진 산머리란 뜻이다.
- 독정터: 건넌말 입구 왼편 언덕으로 옛 왕소나무가 있던 곳. 독정이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큰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 알메부리: 천주교묘지 서편의 둥그런 산부리.
- 여묵굴: 천주교묘지 앞의 골.
- 심두굴: 인천시 경계쪽의 깊은 골.
- 가마터: 까치사리 일대와 그 북편에 예전 그릇 굽던 가마가 있던 곳. 6·25전쟁 뒤까지 그릇을 구웠으나 산업화에 밀려 사라졌다.

5) 검단5동의 유래

1995년 2월 28일 이전까지 검단면은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었고, 면치소제는 마전리 원현이었다. 995년 3월 1일 검단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서구청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설치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

로 검단동이 분동되어 행정 검단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이 설치되었다(서구조례 제675호).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은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검단5동 사진(단봉초등학교 부근)

(1) 오류동(梧柳洞)

① 연혁

옛 김포군의 방리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로부터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 어디에도 법정리로서 오류리는 올라 있지 않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옛 검단면의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을 합하여 오류리로 하고 마산면, 노장면, 검단면을 통합해 새로 확대 편제된 검단면의 8개 리 중 하나로 설치하였다. 당시 행정리는 1리 봉화촌, 2리 대촌, 3리 오류동, 4리 반월촌을 두었다. 1957년에 5리 금호동이 신설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법정 오류동,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법정 오류동으로 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동은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오류리란 이름은 오동나무와 수양버들이 많은 마을이어서 이들 단어의 한자를 합해 오류리라 했다는 설과 마을 북쪽 넓은 벌에 오리가 많이 앉으므로 오리골이라 했다는 설이 전해온다.

(2) 봉화촌(烽火村)

① 역사

달성서씨는 17대를 세거해왔고 현재 10가구, 반남박씨는 16대에 13가구, 고성이씨도 17대에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의 김포군 관계 문헌들에 봉화촌이 법정리로 기록에 오른 것은 없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오류리의 행정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27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41통이 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이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됨에 따라 봉화촌도 검단5동 소속이 되었다.

② 명칭

《세종실록》 지리지에 백석산 봉수는 현의 서북 20 리에 있고, 북으로는 통진 약산(《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수안산), 남으로는 부평 축곶산에서 전달되며 김포의 냉정산봉수에 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봉수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없다. 봉수제의 본격적인 실시는 조선초이므로 이 마을의 명칭도 봉수제와 역사를 같이한 마을로 볼 수 있다. 그 후 백석산봉수에 대한 기록은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의 《김포군읍지》 등에도 계속 나타난다. 을미사변 이후에는 봉수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후 1899년(광무 3)에 김포군에서 작성한 《김포군읍지》에는 여전히 백석산에 봉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봉수는 역사적 유물로서 봉수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역사적 유물인 봉수대가 있는 마을이므로 봉화촌이라 한 것이다.

③ 소지명

- 윗말: 봉화촌의 남쪽편 마을.
- 아랫말: 봉화촌의 북편 마을. 지형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랫말이 된 것이다.
- 분두굴: 봉화촌의 북편 마을로 '분토'가 낮으므로 '분토골'이라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해 '분두굴'이 되었다.
 - 새떼기: 가라지 서남쪽 산부리에 있는 마을.
 - 유감밭: 단봉초등학교 뒤편 두어 집이 있는 작은 마을.
 - 백석산: 이 마을의 주산으로 정상부분이 석영으로 된 거대한 암석으로 성산(聖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해발 57m의 높이.
 - 봉우뚝: 봉화촌의 지명이 유래된 예전 봉수대가 있던 곳. 현재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봉우뚝이 있던 곳은 어느 집안의 가족묘지가 조성되었다.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봉수대이므로 조선 초부터 운영되던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보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장자리모퉁이: 마을의 북쪽 끝으로 좌동으로 건너가는 길의 왼편 산 끝 모퉁이.
 - 가라지: 봉화촌에서 논틀건너 동편의 산부리.
 - 마루테기: 봉화촌과 대촌 사이를 왕래하는 낮은 고갯길.
 - 돌계: 가라지 동편의 산부리로 그곳에 돌이 많아 붙인 이름. 풍산김씨의 선산이 있고 공장들도 입주해 있다.
 - 신방죽: 장자리모퉁이 앞에 있던 방죽, 북쪽 앞으로 있는 검단천의 뚝을 신방죽 뚝이라고 부른다.

④ 특기사항

백석산 줄기를 서편으로 두르고 북쪽에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에 자리잡은 마을로 346번 도로와 인접해 일찍부터 공장들이 입주해 옛 모습은 사라졌다.

조선초부터 중요 통신수단의 하나였던 봉수대가 있어 마을이름도 봉화촌이라 짓고 궁지로 여겼으나, 현재 봉수대는 흔적도 없고 봉수꾼들의 거주지로 생각되는 밭에서는 깨진 토기나 기와 조각이 텅굴고 있을 뿐이다. 봉수대터에 오르면 일망무제(一望無際)여서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장소로 최적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

(3) 대촌(大村)

① 역사

광주이씨가 17대째 세거하고 있고 현재 후손들이 8세대 거주하고 있다. 옛 문헌들에는 법정리로서의 대촌은 등재된 적이 없으므로 자연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법정 오류리의 2리 대촌으로 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27동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의 42통으로 변경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이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될 때, 대촌도 신설 검단5동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예로부터 백석산 남쪽 골에 있는 이 마을 인근에서 으뜸되는 마을이어서 큰말이라 했고 이를 한자지명으로 대촌이라 했다. 백석산 동남쪽의 마을은 예로부터 ‘모림’이라 불리었는데 확실한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1951년 개교한 단봉초등학교의 이름은 검단의 ‘단’과 봉황새 ‘봉’을 취한 것인 바, 이 학교의 소재지가 오류동이므로 오동나무를 좋아하는 서조 봉황새의 ‘봉’을 썼다고 한다.

③ 전설

단봉초등학교 자리가 명당이어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계란장수가 계란을 지고 다니며 장사를 하다 현 단봉초등학교 자리에서 하루를 묵게 되어 하룻밤을 자고나니 계란이 모두 부화해 병아리가 되었다고 한다. 단봉초등학교는 낮은 언덕을 뒤로하고 좌우로 낮은 능선이 잘 뻗어 있는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명당전설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서편에는 흰 바위를 머리에 얹은 백석산이 있다. 백석산의 선바위가 누워 있다면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서 있기 때문에 명산이라고 한다. 이 일대의 마을들은 그러한 백석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수년 전 어느 채석상이 이 산의 백석을 채광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수호신 백석산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4) 오류동

① 역사

선거인은 고씨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300여 년 전 배천조씨 문빈이 입향하여 입향조가 되었으며 현재 10여 호의 후손들이 세거해 살고 있으며, 경주이씨, 결성장씨 등은 약간 후대에 입향하여 여러 대를 세거해오고 있다.

김포시 관련 옛 문헌에 법정리로서 오류동은 등재된 적이 없는 것을 보아 자연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이후 오류 3리로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29통이, 2002년 1월 1일부터 검

단 1동의 43통이 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이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고 오류동은 검단5동 소속이 되었다. 지역 내에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인천지하철 2호선의 종점역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② 명칭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 한자지명을 오류동이라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전래의 지명이 오리울인데 이것은 마을 북편의 들이 조수가 드나드는 개펄이어서 오리가 많이 앉기 때문에 마을이름을 오리골로 부르던 것이 ‘오리울’로 변천했다고 전해온다.

③ 소지명

• 큰오류골: 오리울의 큰말로 서편 골에 자리잡고 있다. 형국이 삼태와 같아 무엇이든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 부자마을이라고 말한다.

• 작은오류골: 큰오류의 동편 언덕너머에 있는 마을.

• 돌부리: 마을 북편 산부리를 가리킨다. 돌개라고도 부른다.

• 돌고개: 오류골과 봉화촌을 왕래하는 고개. 백석산을 넘어다니므로 생긴 이름이다.

• 도돌개고개: 오류골에서 대왕쪽을 왕래하는 고개.

• 수굴고개: 마을에서 마을입구로 나가면 넘는 첫째 고개. 고개너머 좌측 골을 수(水)굴이라 부르는 데서 그곳의 고개이므로 수굴고개라 부른다.

• 탁박굴고개: 큰오류골에서 북쪽 산의 왼편 골을 통해 넘는 고개. 고개너머가 박굴이다.

• 비선머리: 수굴고개 남쪽 계곡의 동편 산모퉁이로 평산신씨의 비가 있는 곳. 함흥에서 주야로 길을 독촉해 상어를 땅에 내리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묘를 썼다 한다.

• 시장축: 큰오류골 앞의 옥답. 예전 어떤 사람이 집안일은 무관심한 채 노름만 일삼아 집에 불났다고 거짓말로 알렸으나 짝도 않고 “시장축에도 불났느냐?”고만 물었다고 한다. 집은 타도 좋으니 시장축만 무사하라는 뜻으로 그만큼 좋은 논이라는 내용이다.

• 오리앉는내: 이 마을과 좌동 사이를 흐르는 검단개에 오리가 많이 앉아 그렇게 부른다.

• 거늬내: 돌부리 앞쪽의 시내.

• 도래방죽: 작은오류골 앞의 시내(검단천)에 쌓은 뚝. 시내의 합류점 부근의 논은 별뜰지, 도래방죽 안쪽의 논은 도창개라 부른다.

④ 전설

500여 년 전 마을을 개창할 때 입향조 고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해오는 회화나무가 있다. 옛적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한 주민이 부러진 가지를 주워다 생활용구를 만든 후 집안식구가 모두 동티가 나서 심하게 앓았다. 그 뒤로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나무는 워낙 고목이어서 속이 텅 비어 있어 그 속에는 반 쯤 용이 된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전해온다. 예전에는 수제를 지

낸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5) 반월촌 · 금호동

① 역사

약 600여 년 전 청주한씨와 경주이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호구총수》 시대부터 검단면 소속의 법정리인 고잔리가 조선조 말까지 존치되어 오다가 1914년 일제가 이 일대의 자연촌인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을 통합해 오류리로 하였다. 금호동은 6·25전쟁 후 실향민들이 깃발에 제방을 막고 개간을 하고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 각각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30통(3개반) 31통(1개반)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44, 45통으로 변경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이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고, 반월, 금호도 검단5동 소속이 되었다.

② 명칭

• 반월촌: 마을 서편에 있는 섬이 반월도여서 그 섬의 이름을 좇아 반월촌이라 했다고 한다. 다른 설로는 이 마을을 안고 있는 산의 형국이 반월형이어서 반월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고잔: 《호구총수》는 물론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에 모두 당시 검단면 고잔리(高蠡里)로 기록되어 있다. 고잔이란 지명은 우리나라 각처에 분포하지만 특히 해변, 강변 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마을에서 유래를 배를 타기 위해 높은 잔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잔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고잔의 잔이 술잔의 뜻이므로 유래담은 동음전인에 의한 해석일 뿐이다. 옛날 지명표기에서 ‘꽃’을 한자음으로 표기할 때 ‘고지, 구지, 고잔’ 등으로, 훈으로 표기할 때 ‘꽃(串)을 서 왔지만, ‘꽃’의 고어가 ‘꽃’이므로 ‘꽃(串), 꽃[花]을 함께 써온 전통이 있다. 현재까지 지명에 남아있는 ‘고잔, 고지, 구지’가 모두 같은 뜻으로 ‘꽃’의 변형이다. 고잔은 ‘꽃 + 안’일 뿐이며 ‘밭고잔’은 ‘바깥꽃안’의 준말이다. ‘밭고잔’은 ‘박꼬잔’으로 발음할 수도 있으나 다른 의미는 아니다. 이상과 같이 속 나간 지형을 예로부터 ‘꽃’이라 했고, ‘고잔’은 잔교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의 한자표기도 음을 표기한 경우는 앞에 든 여러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 글자 하나하나의 해석은 의미가 없다.

• 반월: 반월과 같은 지형의 특징을 지명으로 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황해도 배천은 옛 고구려식 지명이 한자로 반갈양(半乞壤)이라 했다. 이 한자표기에서 ‘반갈’은 ‘밝을’이며 ‘양’은 ‘땅’으로 고대어 ‘내(나)에 대응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밝은내’가 된다. 이 경우 ‘반(半)’이 ‘밝-’의 음을 표기한 것이다. 이것은 고어 ‘붉’이며 하늘의 신비함에 두려움을 느껴 하늘을 무서워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된 천승배사상을 낳게 한 근원이 된 것이다. 한편 ‘월 - 달 - 산’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반월은 ‘달’이 되고 이것은 ‘천신제를 지내는 산’이란 뜻이 된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해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을 것이며 그곳에서 천신제를 지냈을 것이다. 반월도는 바로 ‘달섬’으로 ‘뱃길의 무사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내던 섬’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이 마을이름이 된 듯하다. 금호동은 1957년 신설될 때,

김포의 금과 해안지역이므로 ‘호수 호(湖)’를 써서 작명했다.

③ 소지명

- 밭고잔: 고잔의 바깥 마을.
- 안고잔: 고잔의 안쪽 마을.
- 왜굴: 마을 동쪽 언덕너머에 있는 마을.
- 가마구리: 346번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마을.
- 까치말: 346번도로 남쪽에 있는 마을.
- 바라고지: 346번도로 서남쪽 방향에 있는 곳에 있는 마을
- 마당부리: 가마구리 서편의 작은 곳에 있는 마을.
- 들거머리: 이 마을의 북편 끝에 있는 마을로 들거머리로 향하는 고개는 들거머리고개라고 한다.
- 왜굴고개: 왜굴을 왕래하는 고개.
- 가마구리고개: 마을 입구 가마구리에 있는 고개.
- 방죽머리: 들거머리 북쪽의 산모퉁이. 예전에는 이곳이 강화, 김포간 통행로여서 배에서 내린 길손들이 이곳에 있던 주막에서 쉬어가곤 했다고 한다. 그곳에는 방죽머리 우물도 있었다.
 - 소자방죽: 왜굴 동편의 논을 가로질러 오류동으로 건너막았던 방죽으로, 효자가 변한 것이며 예전 어느 효자가 막았다고 전해온다. 소재방죽이라고도 불렀다.
 - 바라고지: 346번 도로 남쪽으로 뻗어나간 곳으로 바라꼬지라고 한다.
 - 달점: 바라꼬지 끝에 있는 예전의 섬. 월섬이라고도 부른다.
 - 반월도: 빗점 북편에 있으며 제방이 없던 시절에는 섬이었다.
 - 금호동: 이 마을에 으나무가 있어 으나무곶이라 했다.
 - 오류농장: 금호동에 조성된 대규모 농지와 낚시터 등을 통틀어 이르는 명칭.
 - 육도: 오류농장 안에 있는 예전의 섬.
 - 추도: 육도 남쪽에 있는 예전 섬으로 쓰리섬이라고도 했다.
 - 승도: 추도 남쪽에 있는 예전 섬으로 되섬이다.
 - 고도: 육도 서쪽의 섬.
 - 명도: 육도 북쪽에 있던 섬.
 - 울도: 육도 서남쪽에 있던 비교적 큰 섬으로 중앙에는 해발 65m 정도의 산이 있으며 서편의 작은 섬은 소울도라고 불렀다.
 - 복숭아섬: 울도 동남쪽 약 1.7km 정도의 거리에 있던 복숭아 모양의 섬.
 - 이들 섬 이외에 울도 남쪽에 있는 거침도, 매도, 토도, 길무도 등은 동아매립지공사로 모두 육지화 되었다.

(6) 왕길동(旺吉洞)

① 연혁

1789년(정조 13) 전국의 가구수와 인구를 조사해 보고한 결과를 책으로 편찬한 《호구총수》에 옛 검단면 소속 왕길리였다. 이 지명은 1842년(헌종 8)에 김포군에서 집필해 조정에 보고한 《김포군읍지》에도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임금 왕(王)자를 썼던 왕길리가 왕성할 왕(旺)으로 바뀐 것은 1871년(고종 8)에 집필한 《김포군읍지》부터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김포군읍지》에도 바뀐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일제가 지명을 개정할 때 전해오던 왕길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마산면, 노장면을 흡수해 확대 개편된 새 검단면의 법정리가 되었다. 당시 왕길리는 소왕길리, 안동포리, 속사곶리를 병합해 탄생하였고 행정리로는 1리 대왕, 2리 사월, 3리 안동포, 4리 소왕으로 구분되었고, 1985년에는 약수동, 1992년에는 종현이 각각 분리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법정동이 되었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법정 왕길동이 되었다. 2013년 7월 5일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독립할 때, 왕길동도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 마을이름을 ‘왕성할 왕(旺)’, ‘길할 길(吉)’ 자를 써서 지으면 부유한 마을이 될 것이 라는 어느 대사의 말을 듣고 왕길리로 했다고 한다.

• 왕권이 지엄하던 조선조에 지명에 ‘임금 왕(王)’ 자를 사용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호구총수》의 기록에 왕길리라 했으므로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고대국가의 도읍이었던 왕검성, 백제 무왕을 도읍이었던 왕궁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본 왕길리는 어떤 연유로 이런 지명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선사시대에는 주로 해안이나 강변에서 소규모 국가들이 근거를 잡았으므로 이들 해안마을도 그런 연고가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종현은 왕길리 입구 오른쪽의 아파트이다.

(7) 대왕·소왕

① 역사

이 마을의 선주민은 고씨였으나 내력은 알 수 없다. 광주이씨는 400여 년 전 연산주 시대에 국변을 피해 대촌으로 낙향해 살기 시작했고 현재 20여 호의 후손들이 세거해오고 있다. 하동정씨는 마전동 완정에서 이주했고, 300여 년을 세거해와 현재 후손 6가구가 살고 있다. 《호구총수》 시대부터 왕길리라는 법정리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법정 왕길리를 대표하는 마을로, 왕길1리와 4리가 되었고,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32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3년 7월 5일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독립할 때,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예전부터 ‘큰외리’로 불려왔는데 일제의 행정구역개편 무렵 이 인근에 7개 마을이 있고 봉화촌에 면사무소가 있었으므로 그 주변 마을을 외리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대왕, 소왕은 잘 되라는 기원의 의미를 담아 ‘왕성할 왕(旺)’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③ 소지명

- 대왕: 예전부터 불려온 이름은 큰외리이다. 왕길리의 으뜸되는 마을.
- 소왕: 작은 외리로 불려온 큰외리 서편 단봉국교 남쪽의 마을.
- 큰모서리: 큰외리의 서편쪽 마을.
- 건넌말: 큰외리의 동편쪽 마을.
- 당산: 큰외리 뒷산으로 당제를 지내오던 산.
- 말무덤: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무덤으로 고분인 듯하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말타고 가던 사람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서 지나가야 했다고 하므로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의 묘였던 듯하다.
- 고개너머: 사거리로 향하는 마을 동북편의 작은 고개.
- 독굴: 고개너머에서 사거리쪽의 작은 골짜기.
- 장사바위: 옛 김포요업이 있던 뒷산에 있는 바위로 장사가 만진 손가락 자국이 있다. 그 앞에는 작은 바위가 흩어져 있는데 장사공깃돌이라고 한다.
- 작은실: 대왕, 완정간의 도로 왼편에 있는 첫 번째 계곡, 보통 계곡 명칭은 ‘골, 굴’이나 ‘울, 울’이 있으나 북방 고구려계의 지명인 ‘실’도 골의 뜻인데 인근 김포시의 지명에 매우 드물게 남아 있고, 인천에는 계양구의 독실이 있다. 본 ‘작은실’의 ‘실’도 ‘방 실(室)’의 의미가 아니고 ‘골’의 의미로 매우 희귀한 자료다. 현대어의 ‘시내[川]’도 ‘실내[谷川] > 시내’로 변천해 온 어휘이다.
- 큰실: 작은실 다음에 있는 큰 골. 의미는 위의 경우와 같다.
- 외릿골: 마을 동편에 있는 큰 골.
- 잣마당: 사월로 통하는 길 중간의 언덕. 재는 고개이므로 고개와 그 일대의 편편한 지형을 이르는 지명.
- 조구내리: 앞방죽 서편의 산부리. 옛날에는 이곳이 선착장이어서 배가 닿았고 그 언덕에 조기건조장이 있었다. ‘조기널이 > 조구내리’로 변한 것으로 ‘모기 > 모구, 호미 > 호무’처럼 변동하는 것은 경상도 방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지역 방언에 나오는 것이 특이하다.
- 햇밀: 조구내리 북편의 산부리.

(8) 사월(沙月)

① 역사

- 속사곶: 약 400여 년 전 안동권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고 현재 후손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이씨, 경주김씨, 남원양씨들도 5가구 정도씩 거주하고 있다.

• 거월: 약 400여 년 전 공주이씨가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 사월지역에는 예전부터 독립된 법정리로 속사곶리가 있었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조정에 보고한 《김포군읍지》에 모두 속사곶리가 존치되어 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 법정 속사곶리를 폐하고 속사곶과 거월을 '사월'이라 고쳐서 왕길리에 소속시켰고, 왕길 2리로 존속해왔다.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33동이 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 1동의 47동이 되었다. 2013년 7월 5일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독립할 때,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 속사곶: 전래의 명칭은 '속새우지'인데 이것은 속사곶이가 변천한 것이다. 이 지명의 유래는 마을이 형성될 때 이곳은 바닷가였으므로 모래를 가마니에 담아 제방을 쌓아 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자로 표기하여 속사, 즉 '모래를 묶어 쌓다'란 의미의 지명을 짓고 '곶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속사곶'이라 했다는 것이다.

• 거월: 속새우지 남쪽에 있는 거월의 유래는 분명치 않다. 거월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달'이며 그것은 속새우지에 있는 소지명 '달본동산'이란 산과 관련해서 생긴 지명으로 추정된다. '달'이 산이므로 '큰산마을'의 뜻이 있다.

③ 소지명

- 속새우지: 옛 속사곶리로 '속새곶이' > '속새우지'로 변천해온 것이다.
- 거월: 속새우지 남쪽 백석동과 접경에 있는 마을.
- 윗말: 사월의 위편 마을로 넘말이라고도 한다.
- 가운데말: 윗말과 아랫말의 중간이 있는 마을.
- 아랫말: 사월의 제일 남쪽에 있는 마을.
- 한뫼: 마을 동북편에 있는 해발 104.9m의 산으로 한메, 할미산이라고도 부른다.
- 안산: 사월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55m 정도, 명당의 4요소인 주산, 좌청룡, 우백호 중의 하나이다.
- 광명산: 거월 동북편에 있는 해발 55m 정도의 산, 산신제를 지낸 산인 듯하다.
- 달본동산: 마을 중간 서편에 있는 산으로 해발 25m 정도.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하는 동산.
- 도당재고개: 사월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 도당제를 지내던 고개.
- 소댕이: 거월의 뒷산 능선으로, 명칭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전에 소도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소도는 천신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며 마을의 집회 장소이기도 했다.
- 갯모퉁이: 거월 남쪽의 산모퉁이를 가리키는 지명.
- 느릿개: 갯모퉁이 남쪽의 개로 현재는 논. '느릿, 느런'이란 말은 '늘어지다'에서 온 말로 '긴 개'의 뜻.

(9) 안동포

① 역사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에 법정 안동포리로 등재된 이후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 등에 모두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왕길리 소속의 행정리로 개편되었고, 1995년 3월 1일 이후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34통,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의 48통이 되었다. 2013년 7월 5일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독립할 때, 안동포도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② 명칭

예전에 부성개로 불렀는데 부자로 성실하게 사는 갯마을의 뜻이라 한다. 서해안 간척사업의 결과 어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나, 예전에는 검단면 어업의 본거지로 일찍부터 동력선인 중선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포구였다.

안동권씨가 입항하여 살게 되면서 안동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안동개, 안동포리로 부르기도 했다.

③ 소지명

- 안동포: 왕길리동 서남단 곳에 있는 마을.
- 당산: 대촌에서 안동포로 넘어가는 고개 왼편의 산으로 당이 있던 곳. 어촌이므로 출어 때 풍어제를 지내던 곳이며 서낭당에서는 서낭제도 지냈다. 어촌의 동제는 풍어제를 비롯하여 뱃길의 안녕을 비는 용신굿, 뱃고사인 서낭풀이 등이 행해졌다. 현재는 지하철 공사로 산이 대부분 사라졌다.
- 당재: 당산을 넘어 대촌으로 가는 고개.
- 두리물: 당산 동쪽 기슭에 있는 큰 우물로 두루물, 두우물, 두정, 큰우물, 웅달우물, 용두정 등 여러 이름이 있다.
- 빨래골착: 당산의 동편 골로 두리물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기 때문이다.
- 장승배기: 당산 동남편 산부리에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승배기라 했으나 세우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 돌배기여: 마을 앞 동남편에 있던 돌로 된 압초. 현재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있다.
- 돌배기개: 돌배기여 부근의 개펄.
- 강번지: 예전 배가 드나들던 마을 앞의 갯골로 중선이 출입할 수 있는 넓은 갯골. 큰개라고도 불렀다.

④ 특기사항

예전부터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던 순수 어촌으로 어항으로는 김포군 제일의 규모였다. 조기

철에는 중선을 몰고 연평도 근해에 출어해 만선으로 돌아왔고, 민어철이면 어린애들 키만큼 큰 민어를 잡아오기도 했다. 6·25전쟁 직후 조기잡이하러 연평도 근해에 출어했다가 북한해군의 공격을 받아 생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마을 앞의 개펄은 썰물 때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고 굴, 조개, 맛, 방게 등의 어패류가 가득해 50년대 어려웠던 시절 조개, 방게 잡으러 망태 메고 달리던 곳이다. 서해안간척사업으로 포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 마을에도 많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특히 제재공장이 다수 입주해 소음은 물론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상황이 되었다.

(10) 약수산 · 종현

이 마을은 1978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목탄 사업이 공해산업으로 밀려나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인구가 점차 늘자 1988년 내무부고시에 의해 왕길5리 약수동으로 편제되었다.

약수동이란 이름은 원현과 동 사이에 있는 산에 약수가 있으므로 거기서 취한 것이다. 어렵사리 개척한 두메마을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1995년 3월 1일부터 서구 검단동,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의 50통으로 변경되었다. 51통 종현은 옛 검단면 시절 왕길6리로 검단사거리에서 왕길리 접경지역의 아파트 지역이다. 2013년 7월 5일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독립할 때, 약수산, 종현도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욱)